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 연구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승 곤

경희대학교 대학원

관 광 학 과

유 근 준

2014년 8월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 연구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승 곤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경희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 관광전공

유 근 준

2014년 8월

유근준의 관광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교수 이 충 기 (印)

부심교수 이 기 종 (印)

부심교수 이 승 곤 (印)

부심교수 이 태 희 (印)

부심교수 이 후 석 (印)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4년 8월

국문 초록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 연구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을 중심으로 -

유근준

본 연구는 지오투어리즘의 가치를 밝히고, 지오투어리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지오파크 관광객들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지오파크 방문행동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오파크 관광객들이 지오파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지오파크를 찾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그들의 행동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인간행동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그 우수성이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목표지향적 행동이론(MGB)을 적용하고 사전지식을 추가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이론(E-MGB)에 대한 모형비교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주세계지질공원을 찾는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긍정적 예기정서, 부정적 예기정서, 열망, 행동의도 요인 이외에 지오파크 관광객들의 지오투어리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정도에 대한 변인으로 사전지식을 추가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오파크 관광객의 태도에 따른 열망의 관계에 대해 검증한 결과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도의 네 가지 하위요인 중 '제주 지오

파크 방문은 가치 있는 행동이다'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긍정적인 행동이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규범이 열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제주지오파크를 방문함에 있어 주변사람들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변수로써 지오파크 관광객과 가까운 사람들은 열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분석결과 주관적 규범은 지오파크 방문에 대한 열망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셋째,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열망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결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자들이 제주세계지질공원을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지 않으며, 여유와 경제력 및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행동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오파크 관광객이 여유와 시간은 부족하지만 제주 세계지질공원을 재방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높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넷째, 긍정적 예기정서는 열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 긍정적 예기정서가 열망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정적 예기정서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도 긍정적 예기정서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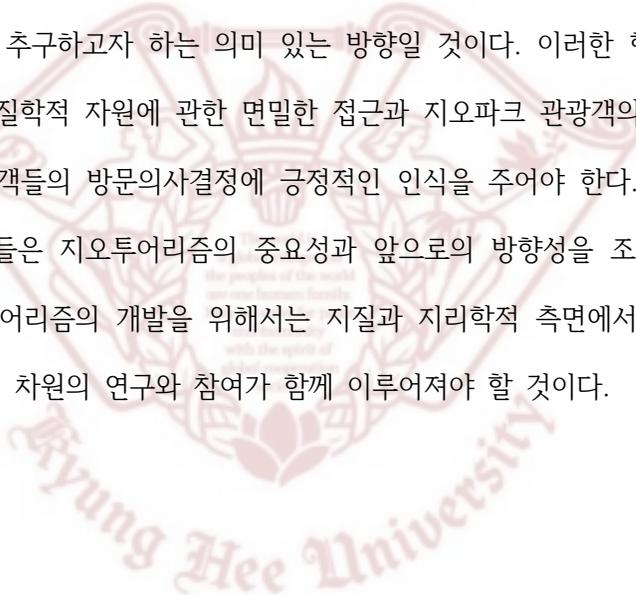
다섯째, 제주지오파크를 방문하고자 하는 열망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열망이 MGB이론의 선행변인들과 행동의도와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추가적으로 제시된 연구 가설에 대해 살펴보면 사전지식은 열망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사전지식과 행동의도와의 관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오파크 관광객의 자연유산 및 지질학적 관심과 지오파크에 대한 중요성 인

지는 지오투어리즘과 지오파크를 방문하고 찾을 때 더욱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곱째,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모든 모형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 되어 최종모형으로써 그 적합성이 검증 되었다. 더불어 MGB와 사전지식을 확장한 E-MGB의 모형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수인 행동의도에 대한 R^2 값이 E-MGB에서 좀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질자원을 기반한 지오투어리즘 맥락에서 볼 때 지오파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자연유산의 보존, 환경 친화적 지역개발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경제적 이익에 관한 순환구조는 지오투어리즘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방향일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관광개발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지질학적 자원에 관한 면밀한 접근과 지오파크 관광객의 리즈(needs)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관광객들의 방문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인식을 주어야 한다. 본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자들은 지오투어리즘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지오투어리즘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질과 지리학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관광학적 관점과 관광마케팅 차원의 연구와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1
제 2 절 연구 목적	6
제 3 절 연구의 구성	7
제 2 장 이론적 배경	10
제 1 절 지오투어리즘	10
제 2 절 지오파크	18
제 3 절 지오투어리즘 연구동향	45
제 4 절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52
제 3 장 연구 설계	71
제 1 절 연구모형	71
제 2 절 가설의 설정	72
제 3 절 구성요인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77
제 4 절 분석방법	86
제 4 장 실증 분석	87
제 1 절 표본의 특성	87
제 2 절 기술통계 분석	91
제 3 절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성 검증	92
제 4 절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 검증 결과	99

제 5 장 결 론	105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105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08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111
참 고 문 헌	113
부록: 1. 설 문 지	131
부록: 2. 유럽지오파크 네트워크 현황	135
ABSTRACT	140



< 표 목 차 >

<표 2-1> 지오투어리즘의 개념	13
<표 2-2> 지오투어리즘의 분류	16
<표 2-3> 세계 지오파크 인증현황	22,23,24
<표 2-4> 아시아 태평양 지오파크 현황	29
<표 2-5> 제주 지오명소	38,39
<표 2-6>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추진현황	41
<표 2-7> 부산 국가지질공원 지오명소	42
<표 2-8> 강원평화지역지질공원	43
<표 2-9> 청송국가지질공원	44
<표 2-10> 지오투어리즘 선행연구	48
<표 3-1> 설문지 구성	83
<표 3-2> 모집단 크기별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표본크기	85
<표 4-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88
<표 4-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89
<표 4-3> 기술통계 분석	91
<표 4-4>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94
<표 4-5> 측정모형의 적합도	96
<표 4-6> 전체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타당성 신뢰성 분석	97
<표 4-7> 상관관계 분석결과	98
<표 4-8>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에 대한 검증결과	100
<표 4-9> 가설검정 결과	104
<표 4-10> 적합도 비교분석 결과	104

< 그림 목차 >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9
[그림 2-1] 지오투어리즘의 개념도	10
[그림 2-2] 다른 투어리즘과 지오투어리즘과의 관계	14
[그림 2-3] 지오투어리즘 관광객 분류	17
[그림 2-4] 세계 지오파크 네트워크	19
[그림 2-5] 유럽지오파크 네트워크 분포	25
[그림 2-6] GRAMPIANS FROM MOUNT	30
[그림 2-7] 중국 세계 지오파크 분포도	31
[그림 2-8] 말레시아 랑카위 지오파크	34
[그림 2-9] 베트남 동 반 지오파크	35
[그림 2-10] Fishbein and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	53
[그림 2-11]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	57
[그림 2-12] Perugini and Bagozzi(2001)의 목표지향적 행동이론	59
[그림 3-1] 연구모형	71
[그림 3-2] 제주도 대표지질명소	84
[그림 4-1] 모델분석 결과	10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1. 연구 배경

관광형태의 변화와 함께 관광현상 또한 복합적이고 다원화된 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 관광활동을 대체하고 환경보존과 동시에 다양한 관광행태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 생태관광(ecological tourism),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Fennell & Eagles, 1990). 특히 대안관광보다 적극적인 환경보호와 생태계의 균형 및 지속성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제안되고 있다(Inskeep, 1991).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이란 현재 관광객의 욕구가 미래세대를 침해하면서까지 충족되어서는 안 된다(Boo, 1990)는 개념으로 현 세대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에게 관광기회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발과 보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관광분야에 도입하여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김대관·김동렬, 2001). 관광객의 입장에서 볼 때, 지속가능한 관광은 손상되지 않는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변화된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관광유형으로 각인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지역주민이 관광의 주체로 부상한다는 점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환경의 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속가능한 관광이 선호되고 있다(오정준, 2003).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을 도입한 이후로, 지오투어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붓

물처럼 쏟아져 나왔다(Boley, Nickerson, & Bosak, 2011). 최근에는 지오명소(geosite)의 지리학적 특성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새로운 파생분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에 의해 발전된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 지오투어리즘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통합된 형태로써 그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광의 다양한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오투어리즘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Stokes, Cook, & Drew, 2003).

지오투어리즘의 최종 목적은 그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파괴되지 않은 자연보호구역과 인간 활동의 중심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함께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Boley, Nickerson, & Bosak, 2009). 지오투어리즘은 지역주민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지역유산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지오투어리즘은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유익하고 이상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Boley, Nickerson, & Bosak 2011).

한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자연보호의 모델로써 지오파크(geopark)를 선언한 유네스코는 지오파크를 지정된 지질학적 장소로 여기고 있으며, 이는 지오투어리즘이 새로운 글로벌 현상으로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Dowling, 2009). 지오파크는 “지질학적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진귀함, 미적인 매력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지역이다(UNESCO, 2006).” 또한 지구 유산과 지오명소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며, 아울러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합적으로 다룬 컨셉의 일부라 할 수 있다(Farsani, Coelho, & Costa, 2009).

지오파크는 보존과 교육 그리고 관광을 통해 본래의 목표를 성취하고 있으며 지구과학적 지식을 위한 연구를 추구한다. 이는 정부와 학자들에 의해 보호받고 연구되는 지질명소와 박물관, 방문객 센터, 트레일(trails)가이드 투어, 답사여행, 지역역사문화, 지도, 교육자료 및 세미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Newsome & Dowling, 2010). 지오파크 개발의 몇몇 예로는

Araripe Geopark, Brazil; Hong Kong Geopark, China; Lesvos Petrified Forest Geopark, Greece; Beigua Geopark, Italy; Geopark Naturtejo, Portugal 등이 있으며, 과타말라, 온두라스, 루마니아, 로드 아일랜드, 몬타나, 몬트리올 같은 도시와 국가들이 지오투어리즘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협정에 조약을 맺고 있다(Dowling, 2010). 그 밖에도 미 국무부, 농림수산부, 국토관리국, 인디언 사무국 역시 법률상으로 서명하고 지오투어리즘의 원칙에 참석하겠다는 동의를 하였다(National Park Service, 2008).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에 제주도가 세계지오파크(GGN: Global Geoparks Network)로 선정되면서 지오투어리즘이 부각되고 있다(유근준·이승곤, 2013a). 더불어 2012년 1월 29일부터 ‘자연공원법’ 개정·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가 시행되었다(환경부, 2013).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질자원을 보전하며,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함과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자연공원법, 2011).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지질공원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질공원 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질공원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2012년 국가지질공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우리나라의 풍부한 지질유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GGN)인증을 받도록 추진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환경부, 2013). 2012년 국가지질공원 인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 최초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국가지질공원이다. 울릉도·독도 및 제주도 지오파크는 우수한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질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질유산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이다(환경부, 2013). 따라

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과 관광객 유입을 위해 뛰어난 가치를 지닌 지질명소에 대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관광학 분야에서는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이론적 체계와 그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의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커뮤니티 위주로 운영되지만 산업 내 파급력이 큰 지오투어리즘 연구는 초기단계로 아직까지 제대로 연구된바가 없으며 관광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에 소극적이다(유근준·이승곤, 2013a; Boley et al., 2011; Bosak, Boley, & Zaret, 2010; Boyle & Nickerson, 2010; Buckley, 2003; Joly, Verner, & Cot, 2009; Lew 2002; Stokes et al., 2003). 따라서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관광학 관점에서의 논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2. 문제 제기

지오투어리즘의 구성요소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촉진시킨 1987년 세계 환경개발 위원회(WCED)와 함께 시작된 지속가능한 관광의 범위 내에서 논의되어 왔다(Bosak et al., 2010). 지속가능한 관광은 전 세계적 패러다임으로 관광의 형태를 변화시켜 놓았다. 따라서 지오투어리즘이라는 주제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학계의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Boley et al., 2011; Bosak et al., 2010; Buckley, 2003; Lew, 2002). 이런 이유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문제 제기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오투어리즘의 학술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오투어리즘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시에 지오파크 관광객의 경향성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지오파크 관광객은 자신의 다변화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정 장소를 방문하고 있고, 지역사회나 관광 운영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때, 지오파크 관광객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동인을 제공하거나 관광지를 재구조화시키려는 관광의

패러다임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지오파크 관광객들의 의사결정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적 검증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지오투어리즘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관리 전략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인식되고 있다(National Geographic Center for Sustainable Destinations, 2011; National Park Service, 2008). 또한 지오투어리즘은 환경·역사·문화 지역주민의 삶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과 특징에 따른 지오투어리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셋째, 국내 지오투어리즘 연구는 초기 단계이다(김범훈, 2013; 박민영, 2012; 유근준·이승곤, 2013). 따라서 관광객들은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지오투어리즘 연구는 지질과 지형학적 측면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국내연구동향을 분석한 김범훈(2013)의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관광학계의 학문적 연구와 학술적 토론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지오투어리즘의 가치를 밝히고, 그 중요성을 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구주제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오파크 관광객들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방문행동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는 것은 지오투어리즘과 관련된 관광산업과 학술연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지오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분석방법으로 그 우수성이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목표지향적 행동이론(MGB: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을 적용하고자 한다.

관광객의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모델은 Ajzen(1991)이 제안한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김흥렬·이태희·윤철민, 2010; 유근준·이승곤, 2013b;

이충기·송학준, 2010; Carrus, Passafaro, & Bonnes, 2008; Lam & Hsu, 2004, 2006). 계획된 행동이론은 특정 행동을 하려는 의도와 새로운 행동, 예를 들어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이론적 체계로서 유용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 분야에서 개념적 모델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동의도의 동기적 내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목표지향행동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통합적인 사회심리학적 모형으로 목표지향적 행동이론(MGB)이 제안되고 있다(송학준·이충기, 2010; Lee, Song, Bendle, Kim, & Han, 2012; Richetin, Perugini, Adjali, & Hurling, 2008; Song, Lee, Kang, & Boo, 2012; Song, You, Reisingerc, Lee, & Lee, 2014). 이에 따라 지오파크 방문객의 목표행동에 있어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설명변량을 보다 높게 설명할 수 있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을 적용하여 그 유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전지식에 따른 지오파크 관광객의 태도와 행동 특성을 측정하여 관광객의 유치 전략과 관리정책에 필요한 마케팅적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 목적

국내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태관광에 대한 연구(오민재·이후석, 2002)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오파크관광대상지를 선호하는 지오파크 관광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김범훈, 2013; 유근준·이승곤, 2013a; 정강환,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오투어리즘을 관광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지오투어리즘의 이론적 고찰 및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오파크 관광객들의 의사결정과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MGB이론, 사전지식이론에 대한 개념적 고찰을 실시하고, 특히 MGB이론에 사전지식이론을 적용한 모델 간의 비교 관점에서 차이점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지오파크 현황과 지오투어리즘의 특성 및 국내외 연구유형을 파악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을 MGB이론을 적용하여 규명하고,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하는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기정서, 부정적 예기정서, 지각된 행동통제감, 열망, 행동의도와 확장된 구성개념인 사전지식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사전지식 유무에 따른 모델 간 설명력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지오파크 관광객을 세분화하고, 향후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을 측정하는 것은 지오투어리즘 관련 실무자들로 하여금 지오투어리즘의 활성화에 관한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오파크 관광객의 가치측정은 지오투어리즘 자원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지지를 받기 위한 기초적 연구가 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의 구성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부분으로 연구 배경, 문제 제기, 연구 목적, 연구의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논문의 개략적인 흐름과 본 연구의 당위성을 제기하였다.

제 2장은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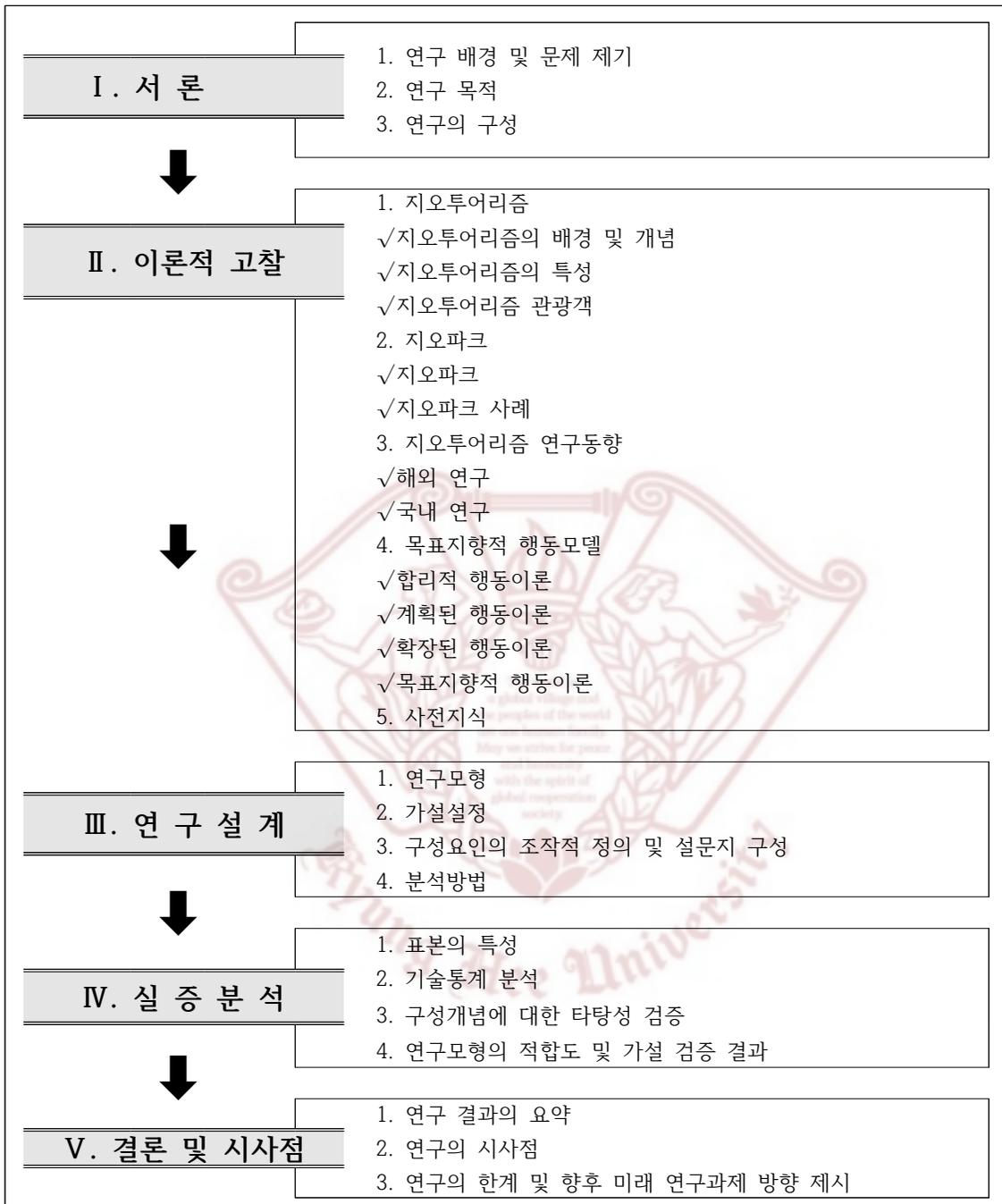
첫째는 지오투어리즘, 둘째는 목표지향적 행동이론, 셋째는 사전지식에 대해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오투어리즘은 지오투어리즘의 개념, 지오파크의 배경, 지오파크의 국내외 현황, 지오투어리즘의 선행연구를 서술하였고,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은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의 개념, 설명변수, 목표지향적 이론의 선행연구,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에 대한 선행연구 순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전지식은 사전지식의 개념, 사전지식의 선행연구 순으로 서술하였다.

제 3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연구조사 부분으로 연구 방법 및 연구 설계에 대한 연구 모형과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조사 설계를 위해 표본 설정 및 조사 방법에 관한 설계를 소개하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에 대해 작성하고 분석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 4장은 실증 연구 부분으로 SPSS 18.0을 사용하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고 구성개념 간의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AMOS 18.0을 이용하여 확인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목표지향적 행동이론(MGB) 내 구성개념의 영향 관계와 모형 적합도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전지식에 따른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 특성 비교에 대한 모델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제 5장은 결론 부분으로 연구의 전체적인 요약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등을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은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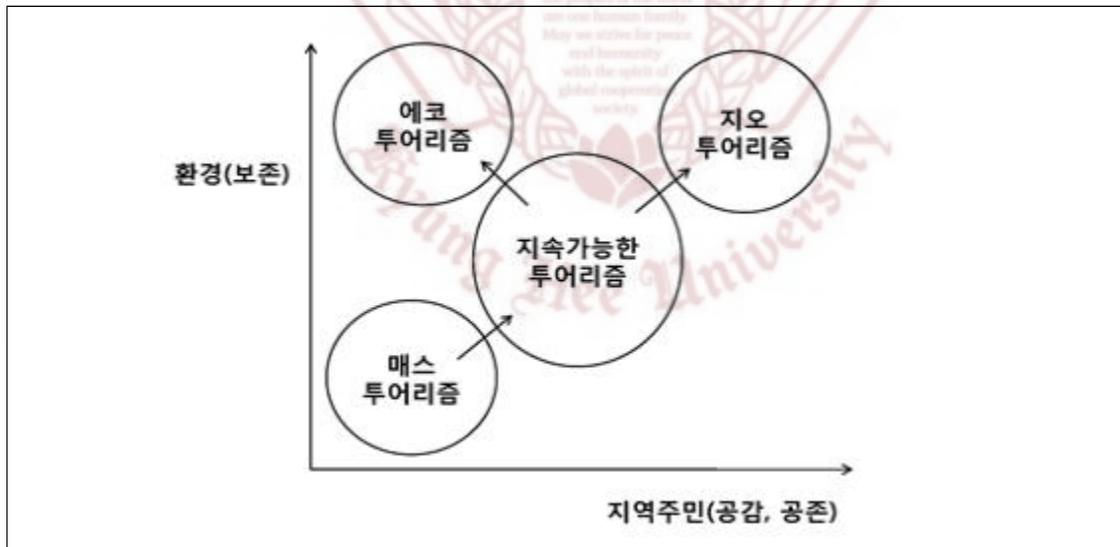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지오투어리즘

1. 지오투어리즘의 배경 및 개념

지오투어리즘이 새로운 글로벌 현상으로써 등장하게 되었다(Dowling, 2009). 지오투어리즘은 지속가능한 관광과 관련된 문화관광, 모험관광, 생태관광 등과 관련이 있지만 이들과는 다른 새로운 관광형태이다(유근준·이승곤, 2013a). 지오투어리즘은 그 지역의 지리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며 관광객들에게 진짜 여행경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 다차원적인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Buckley 2003; Stokes et al., 2003).



출처: 유근준·이승곤(2013a).

[그림 2-1] 지오투어리즘의 개념도

지오투어리즘은 Thomas Hose(1995, 1996)에 의해 초기개념이 제시되었고 개발되었다. 2000년에 들어와 지오투어리즘은 한층 더 세련되게 정제되었으며, Joyce(2006)에 의해 규정지어지고, Dowling과 Newsome(2006)에 의해 그 개념이 확장되고 퍼져나갔다. 한편 지오투어리즘은 두개의 다른 정의를 갖고 있는데, 이는 '지질'학적 혹은 '지리'학적 관점에서 따온 '지(geo)'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질학자들은 지오투어리즘을 지역의 지질형태나, 암석의 배열구조, 화석층과 같은 지질학적 장소에 초점을 두어 투어리즘을 묘사해왔다(Stueve, Cook, & Drew, 2002; Newsome & Dowling, 2010). 그러나 지오투어리즘은 용어자체가 복잡하고 여러 관광 유형에 비해 다소 포괄적이며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수 많은 학술논문이 지오투어리즘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무엇을 어떻게 지속시켜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Boley, Nickerson, & Bosak, 2009; Hose, 2006; McCool, Moisey, & Nickerson, 2001).

지오투어리즘은 본래 지질학적 특성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1997년 Jonathan Tourtellot of National Geographic은 지오투어리즘의 개념을 “환경뿐만 아니라 여행의 모든 부분을 함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그 지역의 지리학적 특성을 유지시키고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아울러 그 지역의 환경과 문화유산, 미적유산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 하였다(Stokes et al. 2003).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정의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투어리즘을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단순한 이론적 개념,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Dowling & Newsome, 2006).

Bosak, Boley, 그리고 Zaret(2010)에 의하면 이상적인 지오투어리즘 관광지(지오명소)는 지오파크 관광객과 지역주민(호스트)에게 이득이 되어야 하며 이는 그 지역의 독특한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진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지오파크 관광객들은 그 지역의 삶의 방식과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소통에 이끌려 그 지역

을 방문하게 되며, 여행을 하는 동안 지역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길 원한다. 지오투어리즘이라는 개념은 환경 같은 어떤 특정 부분 보다 더 나아가 문화와 미학, 전통, 주민들의 복지를 포괄하는 관광지의 모든 측면들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에 전체적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관광과 관련해서 지오투어리즘의 개념이 점차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Boley & Nickerson, 2013).

Boley et al.(2011)은 생태관광과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점이 어디에 있는냐에 따라 두 가지가 나뉜다고 하였다. 지오투어리즘과 생태관광 간의 차이점은 대부분의 생태관광에 대한 정의가 “보호지역” 또는 “자연지역”에 대한 생태관광을 제한한다는 반면에 지오투어리즘의 정의는 인간과 자연이 상호보완하고 보호가 필요한 자연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장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지오투어리즘은 관광객과 목적지 간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전략이다. 지역주민들은 관광객들에게 그들의 관광 행동과 의사를 통해 지리적 특성을 가진 특정한 목적지를 경험 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그 지역의 자원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부여하는 지속가능한 전략적 관계를 유지한다(Boley & Nickerson, 2013).

최근에는 지오투어리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오투어리즘은 지질과 자연경관을 특화한 지속가능한 관광형태라 할 수 있다. 지오투어리즘은 관광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지역의 환경, 문화유산, 미적유산,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포함하는 지리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는 투어리즘이라 정의하고 있다(Stokes, Cook, & Drew, 2003). 이에 지질학적 특성을 잘 갖춘 곳을 독립적으로 방문하는 것과 지질학적 흔적연구, 전망 포인트, 가이드투어, 지질학적 활동 및 방문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오명소에 대한 후원을 통해 지오투어리즘은 점차 그 모습을 갖추어나가고 있다(Newsome & Dowling, 2010). 이에 따라 유근준·이승곤(2013a)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연구에서 지오투어리즘이란 “지오파크를 기반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현상이며 지속가능한 관광의 발전된 유형의 투어리즘”이라 정의

하였다. 이는 지오투어리즘의 핵심 구성요소인 교육·학습을 통해 지구과학 연구의 또 다른 촉매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오투어리즘은 지질학적 다양성에 대한 보존을 촉진시키고 가치가 있는 자연문화유산을 관광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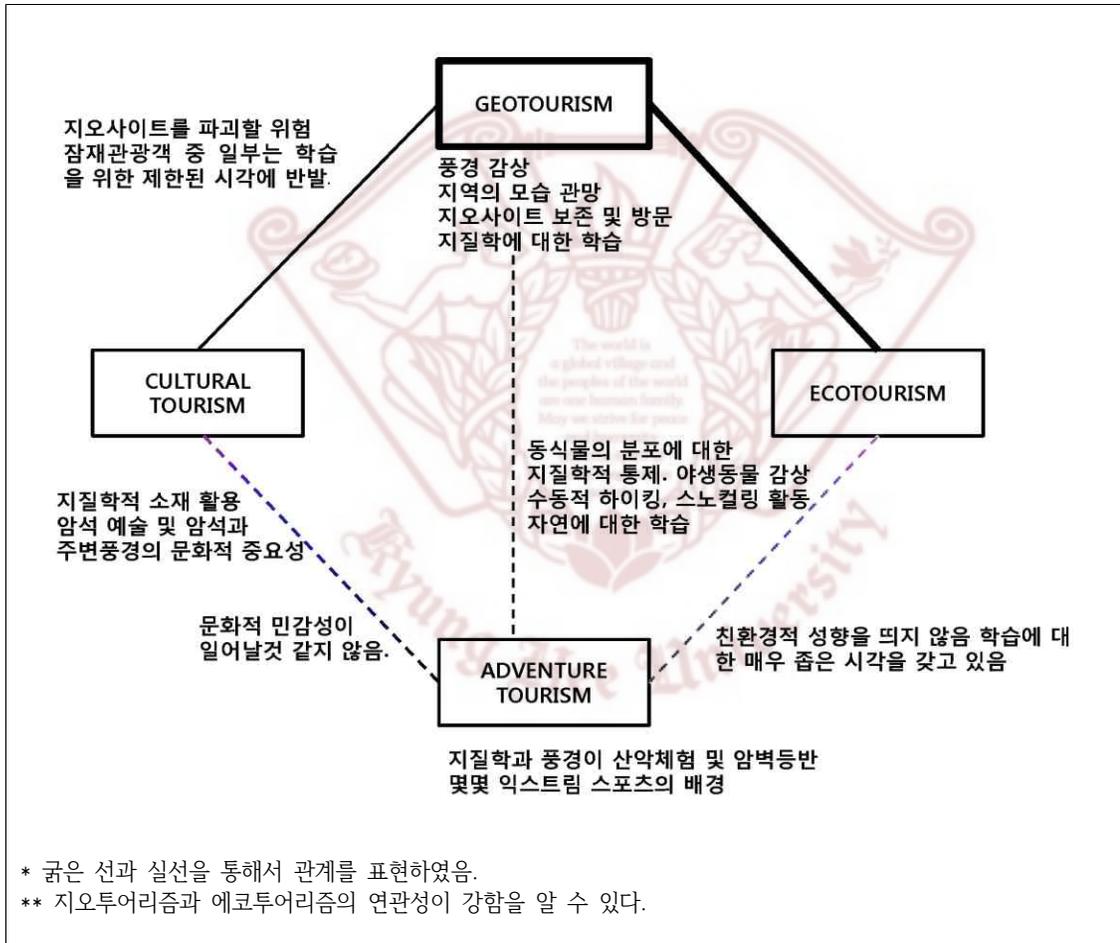
<표 2-1> 지오투어리즘의 개념

연구자	지오투어리즘의 개념
Bastion(1994)	일반적인 관광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외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관광객이 학생일 경우 지오 명소는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되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Boley(2006)	지속가능한 관광의 범주 안에서 (생태관광은 자연교육과 환경관리 요소를/ 공정관광은 주민들의 복지를/ 문화유산관광은 지역문화보호를/ 미적경관은 아름다움을 감상) 지오투어리즘 관광객들은 지오투어리즘의 진정성을 경험하게 된다.
Dowling(2011)	지오투어리즘은 지형·지질 명소를 장려하고, 자연 감상과 학습을 통해 지형·지질 다양성 보전과 지구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효과는 지오투레일(geo-trails)과 전망 포인트(view-point), 가이드 투어(guided-tours), 지오활동(geo-activities)과 지오명소(geosite), 방문 센터(visitor-center)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Hose(1995)	지리적으로 또는 지질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의 지형과 지질의 학문적인 의미와 지구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과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Joyce(2006)	지리학과 관광의 부분 집합이며 지오투어리즘 관광객들은 지형·지질을 배우기 위해 지오명소를 방문하는 사람이다.
National Geographic (2011)	어떤 장소의 환경, 문화, 미학, 유산,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 등과 지질학적 특성을 유지관리 보존하고자 하는 관광이다. 더불어 그 지역의 문화·역사, 그리고 독특한 가치를 포함하는 관광을 의미한다.
Pralong(2006)	지오투어리즘은 교훈적이며 재미있게 자연경관을 탐방하고, 이를 통해 지구과학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암석의 시·공간적 차원이나 지표면의 지형 등을 포괄하는 지오 마케팅(Geo-marketing)이다.
Stokes, Cook & Drew(2003)	지오투어리즘은 그 지역의 지리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며 관광객들에게 진짜 여행경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 새롭게 떠오르는 투어리즘이라 할 수 있다.
Stueve(2002)	지오투어리즘은 지오명소의 지리적 특성과 탐방지 지역주민의 삶, 환경, 문화, 미적경관 등을 지속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Thompson (2007)	지오투어리즘은 지리학적 성격을 포함하며 유지하고 지질학적 장소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관광을 포괄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그 지역의 정체성에 초점을 둔다.

출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2. 지오투어리즘의 특성

지오투어리즘은 지구의 지질학적 특성을 체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지속가능한 투어리즘의 형태이다. 이를 통해 지오투어리즘의 환경적, 문화적 특성과 보존에 관해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는 지오투어리즘과 관련된 상품을 창출하고 지질학적 유산을 보호하며 지역 커뮤니티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 Newsome & Dowling(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그림 2-2] 다른 투어리즘과 지오투어리즘과의 관계

또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그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지질학적 문화 유산을 더욱 더 발전시킨다(Newsome & Dowling, 2010). 그러므로 지오투어리즘의 특성은 지질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자연적인 것부터 인공적인 것까지 모든 종류의 자연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원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자연적 자원들(요소는) 자연풍광, 대지의 형태, 사암노두(바위가 특 튀어나온 형태의 돌), 바위의 종류, 퇴적물, 토양 그리고 결정들을 포함하고 있다(Dowling, 2011).

'관광'으로써의 지오투어리즘은 그 지역방문, 학습, 이해 그리고 지오명소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말한다. 지오투어리즘은 '형태와 형성과정' 이라는 지질학적 구성요소와 함께 관광지, 숙박, 투어프로그램, 액티비티, 통역, 그리고 플래닝과 매니지먼트에 관한 투어리즘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결합한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Dowling & Newsome, 2006). 또한 적합한 수준의 지속가능성 측정연구를 통해 지질학적 문화유산 보존에 힘을 쓰고, 해석과 교육을 통해 지질학적 이해를 한층 더 발전시키며 결과적으로 관련 관광객들을 창출하고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Dowling, 2010).

1) 지오투어리즘의 분류

지오투어리즘은 <표 2-2>와 같은 다수의 필수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지금의 형태인 지오투어리즘을 만들어내고 있다. 즉 상호연관 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요소들이 지오투어리즘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Dowling & Newsome, 2006).

지오투어리즘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지오투어리즘이 투어리즘 액티비티의 광범위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Dowling, 2010). 첫째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실행가능하며, 둘째 지역사회발전 중심이며, 셋째 지오투어리즘적 보존을 촉진시키고 지질학적

이해를 수반하는 교육적인 특성과 함께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끌어내는 것이 지오투어리즘이다. 첫 번째 특징은 지오투어리즘 상품으로 고려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나머지 특성들도 지오투어리즘의 형태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속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교통, 접근성, 숙박, 서비스, 숙련된 직원, 플래닝과 경영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오투어리즘과 관련해서 투자자, 정부 측 기획자, 환경단체들, 대학연구기관까지 다양한 기관들을 이해관계자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Dowling,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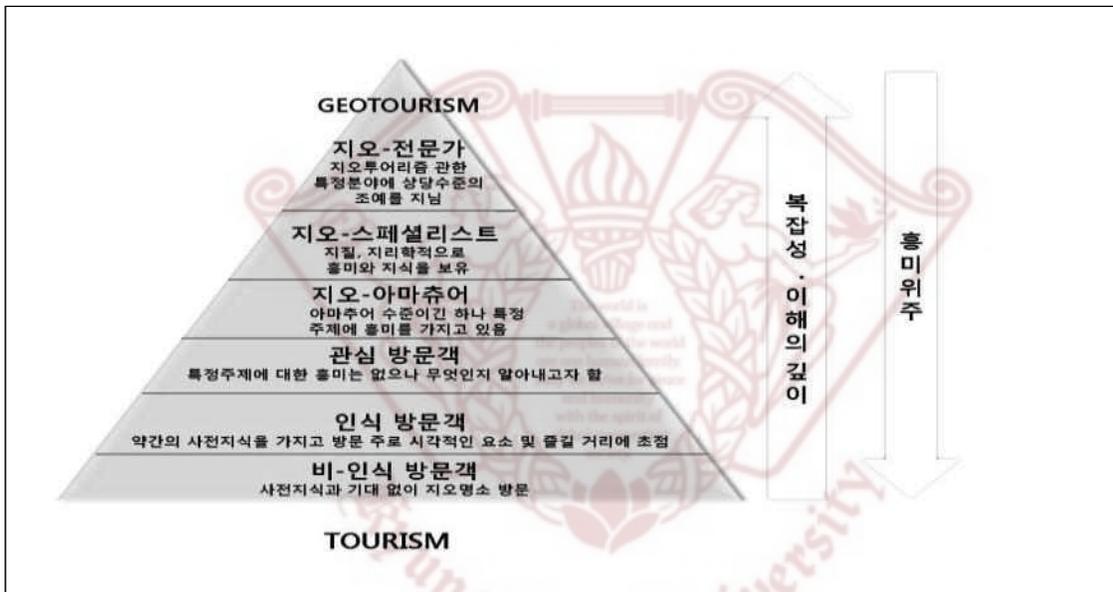
<표 2-2> 지오투어리즘의 분류

지오투어리즘		
TOURISM (관광)	명소	그랜드캐년(거시, USA), 웨이브락(중규모, AUS), 화석층(미시, UK)
	숙박	지오민박, 지오리조트
	투어	경비행기투어, 전문화된 가이드 투어, 셀프가이드 투어 (자동차 드라이브, 하이킹)
	액티비티	지역방문객 센터, 가상 투어
	가이드해설	방문객센터, 가이드 및 셀프가이드 투어, 팸플릿
	기획 및 경영	지오사이트 보존, 지오사이트 관광기획, 팸플릿
FORM (지형)	풍경	화산지형, 빙하지형, 하천지형
	지형	풍화지역, 카르스트 지형
	퇴적층	표토지형
	암석	암석 노출지형, 미네랄 광물
	화석	퇴적층 환경
PROCESS (작용)	광물학	빙상
	화성암 형성과정	화산지, 용암
	풍화작용	강 협곡, 산맥
	침식	산사태, 폭포, 해안절벽
	퇴적	개펄, 삼각지

주) Dowling & Newsome(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3. 지오파크 관광객

Grant(2010)은 지오파크 관광객의 범위를 다음<그림 2-3>과 같이 제안하였다. 지오파크 관광객은 지오투어리즘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방문객들'로써 모든 관광객을 지오투어리즘 관광객으로 보며, 지오투어리즘 관광객의 범위를 비-인식 방문객, 인식 방문객, 관심 방문객, 지오-아마추어, 지오-스페셜리스트, 지오-전문가 등으로 구분하였다.



주) Grant(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그림 2-3] 지오투어리즘 관광객 분류

Hughes와 Ballantyne(2010)는 지형·지질 자원에 대한 해설 체계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이해 또한 중요하므로 지형·지질 자원해설을 위한 효과적인 매체 선정과 개발에 대한 연구가 강조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에 적합한 해설과 설명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Grant, 2010).

한편 Boyle과 Nickerson(2010)은 지오파크 관광객(US \$141.70)이 일반 여행객(US \$109.15)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오파크 관광객이 “더 높은 질”의 방문객들이라는 것이다(Moeller, Dolnicar, & Leisch's, 2011). 따라서 어떠한 관광지에서 지오파크 관광객 수의 증가는 일반 여행객들 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지오파크 관광객들은 그들의 관광 동기와 지역의 정체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관광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관광지의 목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객들이다(Boley & Nickerson, 2013). 그러므로 지오파크 관광객을 분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오투어리즘 체험과 관련해서 관광객들의 의사결정과정을 측정하는 것이야말로 지오투어리즘 산업의 장기적 관점에 있어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울러 지오투어리즘이 제공하는 정보들은 방문객들의 실제 기대치에 부응하거나 이를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오파크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와 만족도는 그 지역의 보존과 보호 다음으로 중요 할 것이다(Dowling, 2010).

제 2 절 지오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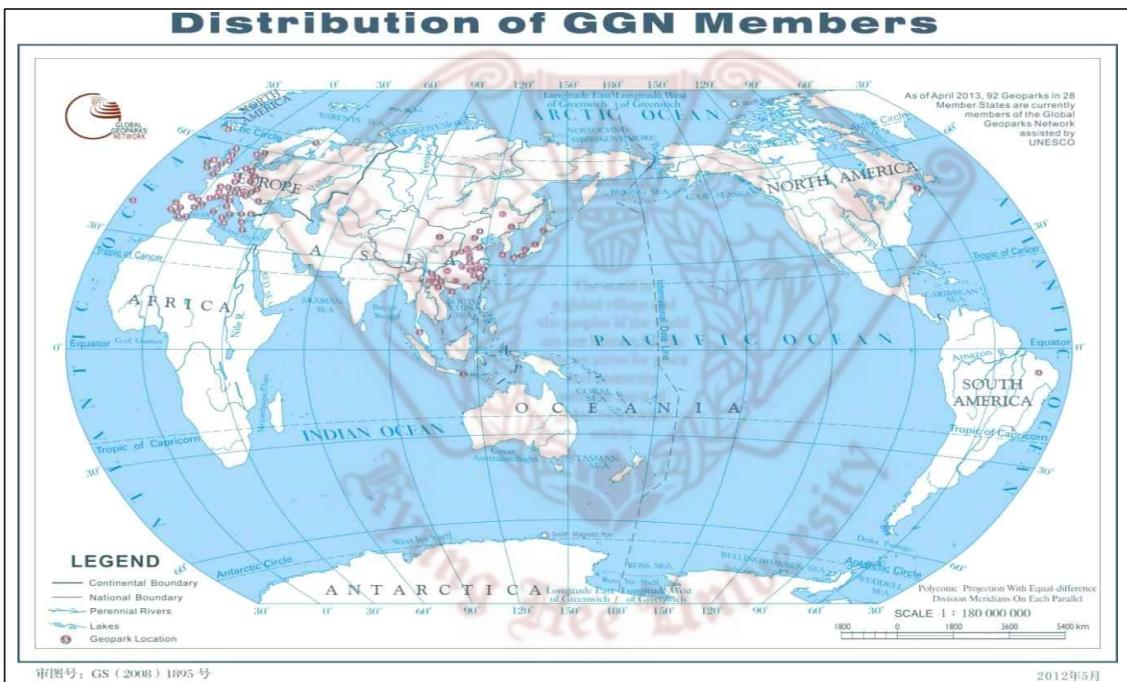
1. 지오파크

지오파크의 명칭은 1997년 유네스코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후, 2000년 6월에 유럽 지오파크 네트워크(EGN: Europe Geopark Network)가 설립되었다(Zouros & Martini, 2003). 2001년에는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지오파크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2004년 유네스코가 주최한 베이징 국제 지오파크 컨퍼런스에서 세계지오파크 네트워크(GGN: Global Geopark Network)가 설립되었다(EGN, 2013b). 최근 EGN, GGN에 이

어 아시아 태평양지역 지오파크 네트워크(APGN)가 결성되었다(APGN, 2013).

지오파크는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Global Network of National Geoparks에 의해 발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네트워크 파트너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세계 중요 지오파크들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지리학적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가와 개발자들의 활발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UNESCO, 2006). 지오파크의 목적은 첫째 자연유산의 보존(conservation)과 둘째 교육(education) 그리고 관광(tourism)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다.

출처: GGN(2014).



[그림 2-4] 세계 지오파크 네트워크

Patzak과 Eder(1998)는 지오파크를 지질학적 중요성과 특별함, 그리고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명소들로 구성된 영역이라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 지역의 지질학

적 역사, 이벤트, 지질형성과정들을 대표하고 있다. 지오파크는 자연공원과 다르게 정부의 권한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과 과학, 문화, 관광을 통한 사회 경제적 개발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EGN과 UNESCO가 권고하는 지오파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규모와 장소 - 회원가입을 원하는 지질공원 후보지는 지역 경제와 문화개발을 하기 위한 충분한 표면적을 가져야 하며 더불어 생태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여야 한다.

나. 운영과 지역주민의 참여 - 지오파크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다. 지역주민들과 지자체가 그들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발전을 충족시키기 위한 운영계획을 개발하고 실행시키는데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다. 경제 발전 - 지질공원의 주된 전략적 목적중 하나는 경제활동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UNESCO지원을 요구하는 지오파크는 문화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개발을 조성하게 한다. 이것은 인간 생활여건과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

라. 교육 - 지오파크는 지질 과학적 지식과 환경적 개념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원 수단과 활동을 제공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 모든 교육적 활동은 전반적인 환경보전에 관한 윤리적 측면을 반영해야 한다.

마. 보호와 보전 : 지오파크는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장소를 보전하는데 기여한다.

바. 글로벌 네트워크: 국립지오파크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지질학 유산문제에 있어 전문가들과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협력과 교환의 장을 제공한다. 앞에서 진술한 기준처럼 지오파크는 3가지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보존, 교육 그리고 지오투어리즘을 통한 지역경제의 촉진).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오파크는 네트워크 활동과 지역주민들의 협력 및 교류를 잘 활용

해야 한다.

지오파크의 중심활동 중 하나는 지오투어리즘 이다. 지오파크의 컨셉은 최근에 개발되었으며 지오파크의 지형·지질학적 자원을 기반으로 지오투어리즘을 통하여 경제개발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Gray, 2004, 2008). 지오파크 개발에 따라 그 지역에서는 적절한 형태의 지역 경제개발과 지역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수입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교육활동과 결합되어 방문객을 증가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시킨다(Farsani, Coelho, & Costa, 2011).

유네스코는 세계지오파크 네트워크에 편입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 지오파크를 지원하고 있다(Alexandrowicz, 2006). EGN이 설립된 이후로, 지리학적 문화유산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은 각각의 지오파크의 주요 목적이 되어 왔다(EGN, 2013b). 지오파크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2009년까지 19개의 회원국에 전 세계적으로 64개의 지오파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NESCO, 2009). 그러나 GGN에 의하면 2014년 2월 기준으로 30개의 회원국에 100개의 지오파크가 인증 받아 세계지오파크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GGN, 2014).

<표 2-3> 세계 지오파크 인증현황

NO.	지오파크(명)	인증 연도	국가(명)
1	Nature Park Eisenwurzen	2004	오스트리아
2	Huangshan Geopark		중국
3	Wudalianchi Geopark		
4	Lushan Geopark		
5	Yuntaishan Geopark		
6	Songshan Geopark		
7	Zhangjiajie Sandstone Peak Forest Geopark		
8	Danxiashan Geopark		
9	Stone Forest Geopark		
10	Reserve Géologique de Haute Provence		
11	Park Naturel Régional du Luberon		
12	Nature park Terra Vita		독일
13	Geopark Bergstrasse-Odenwald		
14	Vulkaneifel Geopark		
15	Petrified Forest of Lesvos		
16	Psiloritis Natural Park		
17	Marble Arch Caves & Cuilcagh Mountain Park		아일랜드/북 아일랜드
18	Copper Coast Geopark		아일랜드 공화국
19	Madonie Natural Park		이탈리아
20	Maestrazgo Cultural Park		스페인
21	North Pennines AONB Geopark		영국
22	Hexigten Geopark		2005

(표 계속)

NO.	지오파크(명)	인증 연도	국가(명)
23	Yandangshan Geopark	2005	중국
24	Taining Geopark		
25	Xingwen Geopark		
26	Bohemian Paradise Geopark		체코
27	Geopark Harz Braunschweiger Land Ostfalen		독일
28	Geopark Swabian Albs		이탈리아
29	Parco del Beigua		
30	Hateg Country Dinosaur Geopark		루마니아
31	North West Highlands - Scotland		영국
32	Forest Fawr Geopark - Wales		
33	Araripe Geopark		2006
34	Taishan Geopark	중국	
35	Wangwushan-Daimeishan Geopark		
36	Funiushan Geopark		
37	Leiqiong Geopark		
38	Fangshan Geopark		
39	Jingpohu Geopark	노르웨이	
40	Gea- Norvegica Geopark		
41	Naturtejo Geopark	포르투갈	
42	Sobrarbe Geopark	스페인	
43	Subeticas Geopark		
44	Cabo de Gata Natural Park		
45	Papuk Geopark	2007	크로아티아
46	Geological and Mining Park of Sardinia		이탈리아
47	Langkawi Island Geopark		말레이시아
48	English Riviera Geopark		영국
49	Longhushan Geopark		중국
50	Zigong Geopark		
51	Adamello Brenta Geopark	이탈리아	
52	Rocca Di Cerere Geopark		
53	Alxa Desert Geopark	2009	중국
54	Zhongnanshan Geopark		그리스
55	Chelmos-Vouraikos Geopark		일본
56	Lake Toya and Mt. Usu Geopark		
57	Unzen Volcanic Area Geopark	포르투갈	
58	Itoigawa Geopark		
59	Arouca Geopark		
60	Geo Mon Geopark - Wales	영국	
61	Shetland Geopark		

(표 계속)

NO.	지오파크(명)	인증 연도	국가(명)
62	Stonehammer Geopark	2010	캐나다
63	Leye-Fengshan Geopark		중국
64	Ningde Geopark		핀란드
65	Rokua Geopark		그리스
66	Vikos - Aaos Geopark		헝가리-슬로바키아
67	Novohrad-Nograd geopark		이탈리아
68	Parco Nazionale del Cilento e Vallo di Diano Geopark		일본
69	Tuscan Mining Park		대한민국
70	San'in Kaigan Geopark		노르웨이
71	Jeju Island Geopark		스페인
72	Magma Geopark		베트남
73	Basque Coast Geopark		중국
74	Dong Van Karst Plateau Geopark		프랑스
75	Tianzhushan Geopark		2011
76	Hongkong Geopark	아이슬란드	
77	Bauges Geopark	아일랜드 공화국	
78	Geopark Muskau Arch	이탈리아	
79	Katla Geopark	일본	
80	Burren and Cliffs of Moher Geopark	스페인	
81	Apuan Alps Geopark	오스트리아	
82	Muroto Geopark	2012	중국
83	Sierra Norte di Sevilla, Andalusia		프랑스
84	Villuercas Ibores Jara Geopark		헝가리
85	Carnic Alps Geopark		인도네시아
86	Sanqingshan Geopark		스페인
87	Chablais Geopark		포르투갈
88	Bakony-Balaton Geopark		슬로베니아 및 오스트리아
89	Batur Geopark		중국
90	Central Catalunya Geopark		중국
91	Azores Geopark		이탈리아
92	Karavanke/Karawanken	2013	일본
93	Yanqing Geopark		네덜란드
94	Shennongjia Geopark		슬로베니아
95	Sesia - Val Grande Geopark		터키
96	Oki island Geopark		우루과이
97	Hondsrug Geopark		
98	Idrija Geopark		
99	Kula Volcanic Geopark		
100	Grutas del Palacio Geo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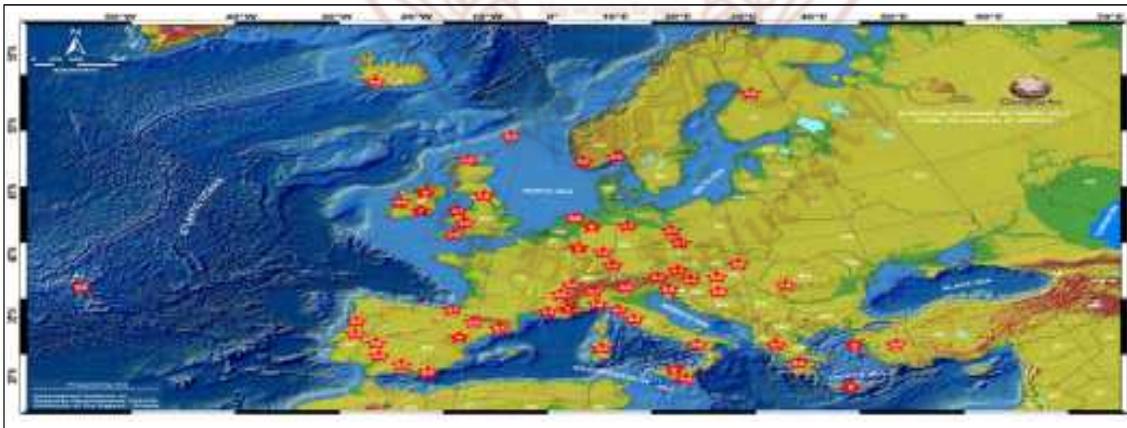
출처: GGN(2014).

2. 지오파크 사례

지금까지 지오파크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연보호에 관한 새로운 모델로써 자연보호구역에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려는 전략을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진화시켜왔다(Farsani, Coelho, & Costa, 2011). 지오파크를 지역에서 유럽과 글로벌 단위로 옮겨가는 것은 지오파크에 특별한 가치를 안겨주었다(Frey, Schäfer, Büchel, & Patzak, 2006).

1) 유럽지오파크 네트워크(EGN: European Geoparks Network)

유럽에 있는 지오파크들은 European Geoparks Network과 특별한 파트너십을 맺어왔다. 유럽지오파크는 지역공동체들이 문화적 교류 및 정체성 보존 프로그램을 따르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광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EGN, 2013a).



출처: EGN(2014).

[그림 2-5] 유럽지오파크 네트워크 분포

유럽지오파크 네트워크에 의하면 2014년 현재, 터키의 쿨라 지오파크의 가입으로 21개 국가, 58개 지오파크로 구성되어 있다(EGN, 2014).

(1) 그리스(Lesvos Petrified Forest Geopark)

그리스의 Lesvos Petrified Forest Geopark는 잘 개발된 지오투어리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The island of Lesvos는 그리스의 첫 번째 지오파크로써 나무 기둥에 화석화되어 표면으로 나온 침적물들과 1630평 방 킬로미터의 면적에 이르는 해양생물 화석지로 구성되어 있다.

Lesvos Geopark는 직간접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일자리의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오투어리즘을 통해 형성된 소규모의 호텔 및 게스트 하우스, 레스토랑 등이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EGN, 2013b). 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발을 통해 파생된 여러 가지 경제적 성과들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이다 (Dowling, 2010).

Lesvos Geopark는 박물관 투어프로그램, 테마가 있는 가이드투어 등의 광범위한 액티비티 범주 내에서 발전해왔다. 또한 과학적인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겸비한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온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결과로 2009년 Lesvos는 EGN에 의해 European Destination of Excellence Award 수여받았다.

(2) 아일랜드(Copper Coast Geopark)

아일랜드의 지오투어리즘은 County Waterford, Copper Coast 지오파크에 의해 지속가능한 관광의 촉진재가 되었다. Copper Coast Geopark는 아일랜드의 동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6개의 주요 지오명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은 4억6천년의 진화과정에 따른 환경의 다양

성을 엿볼 수 있는 자연지질학 박물관이다(EGN, 2013b). 이 지오파크는 여러 가지 교육서비스와 함께 지질학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새롭게 발굴한 문화유산을 보호해야겠다는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Maher, 2010).

(3) 이탈리아(Beigua Geopark)

The Beigua Geopark는 2005년 EGN 및 GGN 지오파크로 등재되었고 그 이후로 지방정부들과 관광기관 및 오퍼레이터, 기업가, 농업가, 대학, 리서치기관, 일반학교, 자원봉사자,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Burlando et al. 2009). Beigua Geopark의 총 면적은 3만9천2백30헥타르에 10개의 지자체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으로 특히 알프스의 진화과정과 이탈리아의 지질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역이다.

Beigua Geopark의 개발전략을 살펴보면 지역주민들은 생물학적 다양성과 문화유산, 전통음식 그리고 이 지역의 독특한 지형학적 풍경 등을 잘 어울리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막대한 경제성장을 불러왔다(Dowling, 2010). 아울러 이 지역의 지리학적, 문화적, 전통적, 유산의 정체성을 향상시켰다(EGN, 2013b).

(4) 포르투갈(Geopark Naturtejo)

Naturtejo 지오파크는 스페인 국경과 인접한 베리아 반도 중앙에 위치하며, 리스본에서는 200km, 마드리드에서 350km에 지점에 있다. Naturtejo 지오파크의 범위는 총 4,617킬로미터의 지역으로 2003년부터 준비하여 2006년 9월에 유럽 지오파크 네트워크와 세계지오파크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되었다(EGN, 2013b).

Geopark Naturtejo에는 지질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16개의 지오명소를 통해 지오투어리즘 관련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이 지역 지오투어리즘의 다양성은 올레길, 보트, 카

약여행, 산악자전거 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Rodrigues & Carvalho, 2009). 본 지오파크는 439km의 산책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103km는 지역의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많은 흥미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방문객들은 그 지역의 지오교육프로그램 및 화석이나 광산, 그리고 지질학적 테마에 초점을 둔 루트를 통해 진정한 탐험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특화된 트레일로(walk trails)는 지오투어리즘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생물다양성 및 역사와 문화적인 측면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Geraldes & Ferreira, 2009).

(5) 아이슬란드(The World of Fire, Vestmannaeyjar)

아이슬란드는 지오파크 관광객들의 파라다이스로 울퉁불퉁한 바위들과 빙하 화산 그리고 지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대서양의 중심지역에 걸터앉은 등마루로써 아이슬란드는 22개의 활화산과 250개의 지열활동지역, 780개의 온천과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만년설을 지니고 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지역으로 1/3에 이르는 용암원이 표면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천 년간 아이슬란드의 기원이 되어왔다(EGN, 2013b).

베스트만나에이야르(Vestmannaeyjar Islands)제도 11000년 전의 해저화산에 의해 형성되었다. Heimaey의 주섬에서는 1973년에 일어난 화산분출이 1.5km 반경의 균형을 만들어내었으며 섬의 동부지역을 분리시켜놓았다. 이렇게 화산분출을 통해 'Fire Mountain' 불리는 빨간 화산재로 이루어진 봉우리를 형성하게 되었다(EGN, 2013b).

오늘날에는 화산활동의 결과로 탄생된 붉은 화산재의 봉우리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주요 카드가 되고 있으며 화산분출에 초점을 맞춘 Volcanic Film Show의 지역 관광명소로써 그 명성을 쌓고 있다. 이곳은 1973년 5000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화산분출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시 화산분출은 다섯 달 동안 지속되었으며 용암과 화산쇄설물이 400개의 주택들을 집어삼켰다. 이를 활용하여 화산쇄설물에 의해 묻힌 14개의 주택들을 발굴하고 관광자원화 시키

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아시아 태평양 지오파크 네트워크(APGN: Asia Pacific Geoparks Network)

APGN는 글로벌 지오파크 네트워크(GGN) 파트너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오파크 설립을 촉진시키고 지질유산 및 지오명소 이해 당사자들 간의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APGN의 주요 활동으로 지오투어리즘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오파크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첫째 홍보 및 과학적 이해, 둘째 기술 및 전문 지식, 그리고 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APGN, 2013).

<표 2-4> 아시아 태평양 지오파크 네트워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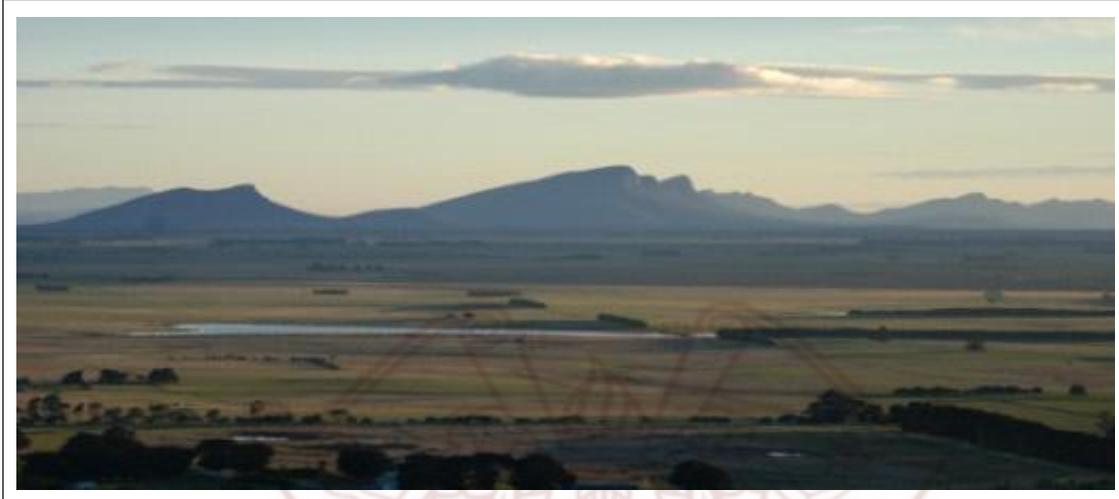
국가	APGN
호주(1)	Kanawinka
중국(24)	Mount Lushan Geopark (WH), Wudalianchi Geopark (MAB), Songshan Geopark, Yuntaishan Geopark, Danxiashan Geopark, Shilin Geopark (WH), Zhangjiajie Geopark, Huangshan Geopark (WH), Xingwen National Geopark, Hexigten National Geopark, Yandangshan National Geopark (only in Chinese), Taining National Geopark, Fangshan Geopark, Leiqiong Geopark, Funiushan Geopark, Wangwushan-Daimeishan Geopark, Jingpohu Geopark, Taishan Geopark (WH), Longhushan Geopark, Zigong Geopark, Alaxa Geopark, Qinling Geopark, Ningde Geopark, Leye-Fengshan Geopark
이란(1)	Qeshm(2012 GGN 인증 취소)
일본(5)	Toya Caldera and Usu Volcano, Itoigawa, San'in Kaigan Geopark, Muroto Geopark, Unzen Volcanic Area
한국(1)	Jeju Geopark
말레이시아(1)	Langkawi Geopark
베트남(1)	Dongvan Geopark

출처: APGN(2009).

(1) 호주

Kanawinka 지오파크는 호주에서 가장 광범위한 화산 지역이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지오

파크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Kanawinka는 호주 최초의 국가 지질 공원으로 2008년 57번째 세계지오파크로 인증되었다. Kanawinka는 분화구와 석회암 해안 동굴, 오름, 폭포와 호수, 습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58개의 중요한 지오명소가 지정되어 있다(APGN, 2013).



출처: Kanawinka Geopark(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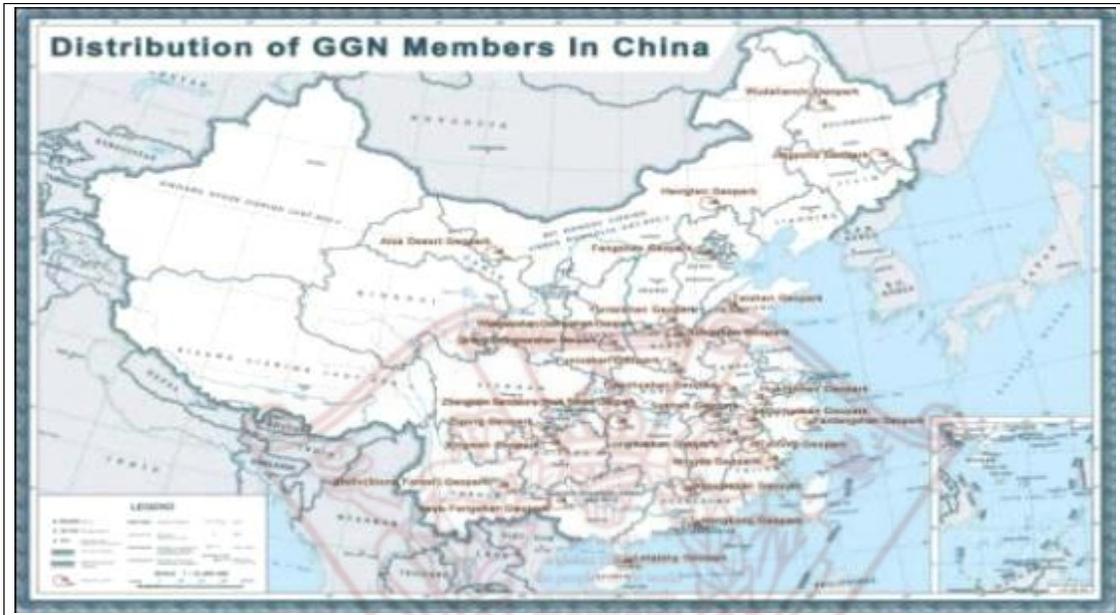
[그림 2-6] GRAMPIANS FROM MOUNT

그러나 2012년 9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지질공원 총회의 재평가에 대한 결과 Kanawinka 지오파크의 세계지질공원자격을 상실하였다. 세계지오파크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주민 참여 프로그램, 국제협력 네트워크 등의 후속조치에 대한 평가결과이다. GGN은 보전과 교육, 주민참여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핵심적 가치를 다루고 있다(GGN, 2013).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인증 심사기준과 재평가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중국

중국은 GGN에 가장 많은 지오파크를 인증 받고 있다. 2013년 4월을 기준으로 총 27개의 세

계지오파크가 가입되어 있다(GGN, 2013). 그러나 제 11차 포르투갈 세계지오파크 총회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많이 알려진 장가계와 황산 세계지질공원이 주의를 받아 2년 후 GGN인증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GGN(2014).

[그림 2-7] 중국 세계 지오파크 분포도

중국은 2004년 GGN의 설립과 함께 8곳의 지오파크를 인증 받았다(Huangshan Geopark, Wudalianchi Geopark, Lushan Geopark, Yuntaishan Geopark, Songshan Geopark, Zhangjiajie Sandstone Peak Forest Geopark, Danxiashan Geopark, Stone Forest Geopark).

2005년에는 4곳의 지오파크가 인증되었다(Hexigten Geopark, Yandangshan Geopark, Taining Geopark, Xingwen Geopark). 2006년에도 6곳이 GGN에 가입하였으며(Taishan Geopark, Wangwushan-Daimeishan Geopark, Leiqiong Geopark, Funiushan Geopark,

Fangshan Geopark, Jingpohu Geopark), 2007년에는 2지역(Longhushan Geopark, Zigong Geopark)이 가입되었다.

또한 2009년 Alaxa Geopark과 Zhongnanshan Geopark 2지역이 추가로 인증되었고 2010년에도 Leye-Fengshan Geopark, Ningde Geopark가 가입되었다. 2011년 Tianzhushan Geopark과 Hongkong Geopark가 세계 지오파크 네트워크에 가입하였다.

가장 최근에 인증된 Sanqingshan은 중국 장시성에 있는 산으로 주봉인 위징봉(해발, 1817m)을 중심으로 1000종 이상의 식물과 800종 이상의 동물이 공생하는 지역으로 기후는 아열대 몬순기후와 해양기후이며 기암괴석, 구름바다, 다양한 숲과 바위의 조화, 달밤, 시냇물과 호수, 폭포 등이 절경을 이루고 특히 환상적인 모양을 한 48개의 화강암 봉우리와 89개의 화강암 기둥으로 이루어진 특이하고 뛰어난 경관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아름다운 경치와 자연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UNESCO, 2013b). Sanqingshan은 독특한 화강암 지형에 대한 가치와 미적 우수성이 높게 평가 되어 2012년 9월에 GGN의 일원이 되었다(GGN, 2013).

(3) 일본

일본은 모두 5 곳의 지오파크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지오파크를 통해 지역의 관광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지질공원을 지정 운영하여 지역 관광마케팅에 적용하고 있다.

2009년 8월 토야호와 우수화산(Toya Caldera and Usu Volcano)은 일본 최초로 GGN에 인증되었다. 토야호와 우수화산은 17세기 이전까지 특별한 활동이 없었으나 1663년 분화를 재개하며 9차례의 분화를 기록 중이다. 1910년 분화 때에 메이지신산이 만들어졌고 1944년 분화 때는 쇼와신산이 1977년 분화에는 우수신산이 탄생했으며 2000년에는 신산을 만들어졌다. 이

러한 화산활동은 관광객들에게 화구호와 단층 변동, 피해와 복구, 다양한 식생 회복 등을 현장에서 학습, 견학 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지오투어리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GGN, 2013).

이토이가와(Itoigawa)는 니가타현 남쪽에 있으며 도시 남쪽으로 히우치산(2462m), 구로히메산(1222m), 고렌게산(2766m)이 있고 3개의 강과 일본에서 가장 긴 동굴인 하쿠렌동굴과 아오미센리동굴이 있다. 이토 이가와 지오파크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지질학의 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이토이가와는 지질 및 지형의 다양성과 동·식물의 생태적 가치가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토이가와 지오파크는 총 746. 24km²의 지역에 24곳의 지오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GGN, 2013).

운젠화산(Unzen Volcanic Area)은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유서 깊은 관광지인 운젠 온천이 있다(AGP, 2013). 지열 활동이 활발한 운젠 온천 부근은 1995년 분화가 끝난 후, 시마바라반도 전체의 재생과 활성화를 목표로 ‘시마바라반도 재생 활동(가마다스 계획)’이 1996년부터 시작됐다. 이는 지오파크로 이어지는 관광자원 활용의 5가지 기능의 밑거름이 되었다. 운젠화산 지오파크는 헤이세 분화로 피해를 입은 건물과 가옥은 일부를 이설하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시하고 구 오노코바 초등학교 옆에는 시마바라반도 지오파크의 정보센터 중의 하나인 오노코바 사방을 건립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화산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Unzen geopark, 2013).

산인해안 지오파크(San'in Kaigan Geopark)는 2010년 10월 GGN에 가입되었다. 산인해안 지오파크는 동서로 약 110km, 남북으로 30km의 해안 지오파크이다. 각종 암석, 지층, 해안 지형 등의 아름다운 지형이 있으며 특히 해안사구는 산인해안 지오파크를 대표하는 지오명소이다(AGP, 2013).

무로토 지오파크(Muroto Geopark)는 2011년 9월에 세계지오파크에 가입되었으며 총길이

248.3 km에 이르는 지역이 지오파크로 지정되었다. 특히 무로토지역은 무로토 곶을 중심으로 동서 53.3km의 해안선을 갖고 있다. 지형은 면적의 약 87% 이상이 산림이고 남북으로 산맥이 뻗어있다. 해안선을 따라 특이한 해안구릉을 형성하고 있는 무로토 지오파크는 1964년 국립공원을 지정된 해안공원이다. 북부의 도쿠시마현 쪽은 리아스식 해안이며 남부의 고치현 무로토 곶 주변은 용기해안으로 저탁암층, 용기해식동굴 등의 역동적인 지질현상을 볼 수 있다(AGP, 2013).

(4) 말레이시아

랑카위는 목가적 해변과 고대의 열대우림이 지역의 문화와 함께 하는 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65%를 차지하는 열대우림은 5억년 세월의 지질학적 가치와 역사를 반영한다. 랑카위 지오파크(Langkawi Geopark)는 말레이시아 최초의 세계지오파크로 말레이시아 반도 북서쪽에 있으며 99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랑카위 지오파크의 총 면적은 478km이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고대 열대 우림과 석회암으로 형성된 카르스트, 종유석 & 석순동굴 그리고 해양 생물의 보고인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다(AGP, 2013).



출처: AGP(2013).

[그림 2-8] 말레이시아 랑카위 지오파크

(5) 베트남

동 반 스톤 하이랜드(Dong Van Stone Highlands)는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GNN의 일원으로 2010년 3월에 가입되었으며 위치는 베트남 하지앙의 북쪽에 있다. 동 반 지오파크(Dong Van Geopark)는 4개 지역 2,346 km의 자연지역으로 60%의 카르스트 지형에 의해 덮여있다. 이 지역의 기후는 아열대기후이며 계절적으로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고 연평균 온도는 섭씨 24 -28이다. 특히 동 반 지오파크는 지질유산과 지역의 독특한 문화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다. 카르스트 고원과 이 지역 17 소수민족의 문화는 GGN의 가입으로 동 반 지오파크를 홍보하고 보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출처: <http://dongvangeopark.com/Pages/galleryShow.aspx?id=2>

[그림 2-9] 베트남 동 반 지오파크

3) 국내 지오파크

우리나라는 풍부한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지질자원 보호 및 활용에 미흡하였다(환경부, 2013). 그러나 2010년 제주도가 세계지오파크로 선정되면서 지오투어리즘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국가 지질공원 인증에 관한 근거(제36조의3)가 마련되었다(자연공원법, 2011).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함과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유근준·이승곤, 2013a).

국가지질공원에 관한 인증절차를 살펴보면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통하여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질공원 지역이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뛰어난 미적 가치를 가진 지역으로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고,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 도모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인증된 지질공원은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하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자연공원법, 2011).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위해 독특한 지질 및 지형을 갖춘 지역의 지오명소에 대하여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시행이후 2014년 3월 기준으로 총 5곳의 국가지질공원이 등재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환경부는 2012년 12월 제2차 지질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 최초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하였다. 울릉도·독도 및 제주도 지질공원은 우수한 지질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질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질유산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환경부, 2013). 2013년 12월에는 부산국가지질공원이 12개의 지오명소가 선정되었으며 2014년 3월에는 제 7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경북 청송군과 DMZ접경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

(1) 제주 지오파크

천혜 자연경관과 다양한 화산지형의 제주도는 섬 전체가 지질유산의 보고로 세계지오파크에 선정되었다. 2010년 세계지오파크로 인증된 제주도는 자연경관의 아름다움과 화산활동 등의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한 지질자원을 가지고 있다(유근준·이승곤, 2013a).

제주도 지오파크는 화산분출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지형은 해안저지대에 발달한 용암대지와 중앙부의 한라산 순상화산체 및 그 위에 발달한 단성화산(monogenetic volcanoes)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제주지오파크, 2013). 한라산의 정상부에는 백록담이 있으며 약 360여 개의 오름이 산재하여 제주도의 전체 지형 및 독특한 지질 특성을 이루고 있다. 해안의 총 길이는 약 419.95km로서 해안지형은 화산암이 노출된 암석해안이며 소규모 해변(pocket beach)과 해안사구가 있다. 또한 제주도 지오파크의 특징 중의 하나는 대규모의 용암동굴이다. 한라산 주변에 위치한 현무암질 용암류(lava flow)가 해안 쪽으로 유출되면서 세계적인 규모의 용암동굴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제주의 자연과 문화적 가치인식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2002)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2007)지정으로 증명되었다(GGN, 2013).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오명소로 GGN에서 가입된 만장굴, 산방산, 서귀포 패류화석층, 성산일출봉, 수월봉, 용머리해안,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 천지연폭포, 한라산 등 9개의 지오명소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선흘 곶자왈이 있다.

<표 2-5> 제주도 지오명소

지명	소개	자료
산방산	<p>산방산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 있으며, 조면암 형질로 이루어진 종모양의 종산화산체이다. 산방산은 395m의 높이를 지닌 거대한 용암덩어리라 할 수 있다. 밝은 회색을 띠고 있는 산방산 용암동은 주상절리가 잘 발달한 폭 2m, 높이 100m 이상의 수직 주상절리들은 남쪽 절벽에 잘 나타나고 있다. 산방산 아랫부분에는 조면암의 각진 파편들로 구성되어 있는 두꺼운 화산각력암층이 있으며, 이 각력암은 산방산이 성장하는 동안 가스 압력의 증가에 의해 용암동이 폭발하거나 붕괴하였음을 알 수 있다.</p>	
용머리해안	<p>용머리는 산방산 남쪽 해안에 작은 돌기처럼 돌출해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용머리의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용머리가 응회환(수성화산의 한 종류로 높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분화구를 지닌 화산체: White & Houghton, 2000)의 잔존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산체의 붕괴와 더불어 화도이동에 의해 용머리 수성화산체의 기와 면적이 증가되었다. 이는 용머리해안의 형태와 구조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아울러 용머리 해안 응회환은 분출 당시 상당히 습한 조건 하에서 분출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p>	
수월봉	<p>수월봉은 제주도의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기복이 낮은 언덕 형태의 화산쇄설성 퇴적층이다. 이 퇴적층의 두께는 최대 약 70 m에 이른다. 수월봉에 대한 퇴적학적 연구결과(Sohn & Chough, 1989)는 이 나지막한 언덕이 응회환의 화구륜 지층의 일부를 나타내며, 이들의 화도는 현재의 해안선에서 바닷가 쪽으로 수 백 m 떨어진 곳에 위치함을 지시한다.</p>	
증문대포 해안 주상절리	<p>뜨거운 용암의 냉각에 의해 화산암이 만들어질 때 일반적으로 냉각절리가 만들어지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수직의 주상절리로 나타난다. 제주도에서 주상절리 최고의 표식지는 약 3 km의 암회색 조면현무암질 용암이 노두로 나타나고 있는 대포동의 해안가이다. 대포동의 주상절리 용암은 colonnade(주상절리의 기둥이 두껍게 잘 만들어져 있는 아랫부분)와 entablature(주상절리의 기둥이 가늘고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윗부분)가 수평과 수직 단면에서 잘 발달되어 있다. 국부적으로 휘어져거나 경사져 있는 용암의 기둥들은 이 용암이 잎사귀 모양(lobate geometry)을 하고 있었음을 지시한다.</p>	
천지연폭포	<p>천지연폭포는 정방폭포, 천제연폭포와 함께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높이는 22m, 폭은 12m이며, 폭포 아래에는 수심 20m의 호수가 형성되어 있다. 폭포의 하류는 서귀포항까지 약 1km 정도의 계곡을 형성하는데, 이곳에 서식하는 무태장어, 담팔수나무 및 난대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p>	
선홍꽃자왈	<p>선홍꽃자왈은 동백동산으로 대표되는 제주도의 대표적 꽃자왈 지역이다. 선홍꽃자왈은 크게 조천-함덕 꽃자왈 지대에 속해 있으며, 이 꽃자왈 지대는 크게 제주시 조천읍과 함덕리 일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함덕-와산 꽃자왈 용암류, 조천-대흘꽃자왈 용암류, 그리고 선홍 꽃자왈 용암류로 구분된다. 선홍꽃자왈은 거문오름(해발 456m)에서 북오름을 지나 선홍꽃까지 약 7km에 걸쳐 이어진 꽃자왈 지대를 이루고 있다. 선홍꽃자왈은 동백동산으로 대표되는 울창한 산림지대이며 동백동산 습지는 2011년 람사르(Ramsar) 습지로 지정되기도 하였다.</p>	

(표 계속)

지명	소개	자료
한라산	<p>한라산은 제주도 순상화산의 중심 봉우리이며(1,950 m), 제주도의 상징이자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일어난 제4기 화산활동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한라산 정상부에는 백록담 분화구, 영실기암의 가파른 암벽과 약 40여개의 오름 등 다양한 화산지형을 갖고 있다.</p> <p>원래 지형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한라산은 1966년과 1970년에 각각 천연기념물(제182호)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이후 한라산 국립공원에서의 활동은 엄격하게 통제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화산지질 및 화산지형과 더불어 독특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갖게 되었다.</p> <p>한라산은 2002년과 2007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p>	
성산일출봉	<p>해 뜨는 오름으로 불리는 성산일출봉은 전형적인 응회구이며, 높이 180m로 제주도 동쪽 해안에 거대한 고대의 성곽처럼 우뚝 솟아있다. 이 응회구는 해수면의 위치가 현재와 거의 동일했던 약 5천년 전 수심이 얇은 해저에서 수성화산 분출작용에 의해 생성되었다(Sohn & Chough, 1992). 성산일출봉은 2000년과 2007년에 각각 천연기념물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성산일출봉은 수려한 경관을 제공하여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성산일출봉 응회구는 수심이 얇은 해저에서 분출하여 해수면 위로 성장한 쪼갬형 화산의 탄생과 성장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성산일출봉은 쪼갬형 수성화산 분출에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종류의 퇴적구조들을 간직하고 있어(Sohn & Chough, 1992), 성산일출봉의 과거 화산활동과 퇴적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다른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수성화산에 대해서도 분출 및 퇴적작용 해석의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다.</p>	
만장굴	<p>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위치하는 만장굴은 전체길이 약 7,400 m, 최대 높이 약 25 m, 최대 폭 약 18 m로서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한 부분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황상구 외, 2005)에 속하는 용암동굴이다. 지점에 따라 2층 또는 3층 구조가 발달하는 용암동굴로서 제주도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세계적으로도 큰 규모에 속하는 용암동굴이다. 수십만 년이라는 매우 오래 전에 형성된 동굴임에도 동굴 내부의 구조와 형태, 미지형, 동굴생물 등 보존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는 물론 경관적 가치도 큰 동굴로 평가된다.</p> <p>만장굴 3입구에서 1입구까지의 거리는 약 4,500 m, 지표의 고도차는 약 54 m이며, 지표의 평균경사는 0.7°, 만장굴 바닥의 경사는 0.4°이다. 1°이하의 완만한 지형경사, 용암이 흐른 유도(lava flow channel)나 용암제방의 흔적이 발달되지 않는 지표의 특징, 그리고 길쭉한 형태의 압력언덕 등을 종합해 보면, 만장굴을 형성한 용암은 용암천(熔岩川)의 형태로 흘러가기보다는 얇은 판상(sheet)으로 흘러 용암팽창과 터짐 현상을 반복하면서 흘렀으며, 이러한 흐름 상태에서 용암류(熔岩流)의 표면이 굳고 그 내부의 용암은 계속 흘러내려 초기 만장굴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p>	
서귀포층	<p>1960년대 이후 지하수 개발을 위해 제주 전역에 걸쳐 시추된 수천 개의 시추공 자료들을 통해 제주도의 지하층서는 잘 밝혀져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 지하층의 가장 주목할 점은 제주도의 용암류가 해안지역에서는 두께가 50~150 m 내외의 두께라는 점과 제주도 지하 전역에 약 100 m의 두께를 가지는 화산쇄설암이 분포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ohn and Park, 2004; Sohn et al., 2008).</p>	

출처: 제주도세계지질공원, 연구자 촬영.

(2)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첫 국가지질공원인 울릉도·독도는 울릉도·독도 전역(해상 1km 포함)으로 면적은 127.9km²(육상 72.8km², 해상 55.1km²)이며 지질명소는 23개소(울릉군 19, 독도 4)이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울릉도·독도의 풍부한 지질유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여 국가 브랜드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환경부, 2013).

'우산국(于山國)' '우릉도(芋陵島)' 혹은 '무릉도(武陵島)'. 울릉도를 지칭하는 갖가지 지명에서 알 수 있듯 울릉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울릉도는 북위 37°33', 동경 130°47'에 위치하며 화산암의 오각형 형태의 섬으로 동서길이 10km(독도포함 96.3km), 남북길이 9.5km(독도포함 34.8km), 해안선 길이는 56.5km에 이르고 유인도 3개섬, 무인도 40개 등 총 43개의 섬을 부속도서로 57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법정리는 10개리이며 행정리는 25개리이다(울릉도·독도국가지질공원, 2013).

독도는 삼봉도, 가지도, 우산도라 하였으며 울릉도에 입주민들이 돌섬이라고 하였다가 독섬으로 표기하면서 독도가 되었다고 한다. 독도는 전체면적이 187,453m²이고 울릉도에서 동남쪽 87.4km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서도와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표 2-6>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현황

지질공원 추진 현황

▶ 2010년도

- 국내지질공원 간 정보교류(3.30)
- 제4차 세계지질공원 총회 참석(4.9~15)
 - ↳ 말레이시아 랑카워[울릉도지질공원 소개발표]
- 울릉도 세계지질공원 추진전략 심포지엄 개최(5.7)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심사평가 참관(7.27~29)
- 지질과학연합학술발표회(10.27~28)

▶ 2011년도

- 춘계 지질과학기술공동학술대회(4.27~29)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국제세미나(5.28)
- 한일 지질공원 심포지엄 개최(10.25)
- 지질과학연합학술발표회(10.26~29)

▶ 2012년도

- 울릉도·독도 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 <http://geopark.ulleung.go.kr> (11.8.7~12.3.5)
-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설명표지판 문안 및 디자인 용역(3.31~7.4)
- 제5차 세계지질공원 총회 참석(5.11~15)
 - ↳ 일본 나가사키현 시마바라시
-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7.4)
- 울릉도·독도 지질공원 심포지엄 개최(8.8)
-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등재 주민간담회 개최(8.10)
-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현지예비 심사(8.9~11)
-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10.11~12)
-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서 제출(10.29)
-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현지 실사(12.7~13)
-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심의 의결(12.21,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결정)
-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인증(12.27, 환경부고시 제2012-249호)

▶ 2013년도

- 지질공원 인증서 및 동판 수여식 참석(2.20)
- 국가지질공원 인증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및 사례 발표(2.20~2.22)
- 지질공원 해설사 소양과정 교육 실시(15명, 6월중)

지오사이트

▶ 2010년 GEOSITE (6개소)

- | | |
|--------|---------|
| - 저동해안 | - 도동해안 |
| - 할포구미 | - 코끼리바위 |
| - 알봉 | - 나리분지 |

▶ 2011년 GEOSITE (14개소)

- | | |
|--------------|-----------------|
| - 봉래폭포 | - 거북바위 및 향나무자생지 |
| - 국수바위 | - 버섯바위 |
| - 학포해안 | - 태하해안산책로 및 대룡담 |
| - 노인봉 | - 송곳봉 |
| - 용출소 | - 울릉원시립~성인봉 |
| - 삼선암 | - 죽암물줄해변 |
| - 섬목해안 및 관음도 | - 독도 |



출처: <http://geopark.ulleung.go.kr>

(3) 부산국가지질공원

부산지질공원은 해양, 산지 및 낙동강하구 등의 독특한 경관 및 지질유산을 보유함과 동시에 이와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자연 및 문화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다(부산국가지질공원, 2013). 부산의 대표적인 지오명소로 낙동강 하구, 몰운대, 두송 반도, 두도, 송도반도, 태종대, 오륙도, 이기대, 장산, 금정산, 황령산 구상반려암, 백양산 등의 총 12개의지질명소가 선정되어 부산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다. 부산국가지질공원은 부산시 7개 자치구(금정구, 영도구, 진구, 서구, 사하구, 남구, 해운대구)에 위치하며 총 면적 151.48 km²이며, 하구지역, 퇴적지역, 심성암지역, 화산암지역의 4개 권역으로 구분되어있다(부산국가지질공원, 2013).

<표 2-7> 부산국가지질공원 지오명소

구분	개소	내용
산지	4개 지역	금정산, 백양산, 장산, 황령산
해안가	5개 지역	이기대, 태종대, 송도, 두송 반도, 몰운대
섬	2개 지역	오륙도, 두도
강 하구	1개 지역	낙동강 하구

(4) 강원평화지역지질공원

강원 평화지역 지질공원은 강원도 북부 DMZ(Demilitarized Zone)접경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5개 군을 포함하는 지역이며 남한의 실질적인 최북단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수리적으로는 동경 127° 05' ~ 128° 35', 북위 37° 49' ~ 38° 36' 에 걸쳐 있으며, 지질공원에 해당하는 면적은 총 2,067.07km²이다(강원평화지역지질공원, 2012).

강원 평화지역 지질공원의 지형을 거시적으로 보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내륙지방으로 갈수록 점차 경사가 완만하게 낮아지는 반면, 동해안 쪽으로는 급하게 경사가 달라지는 한반도의 전체적인 동고서저(東高西低)형 지세를 뚜렷이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1차적인 골격이며, 신생대 제3기에 동해의 해저지각 확장으로 한반도가 수평 횡압력을 받아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지반이 융기한 것에 기인한다(강원평화지역지질공원, 2012).

<표 2-8> 강원평화지역지질공원

구분	등급	명칭	내용
용암의 땅(철원권역)	핵심	철원용암대지	-용암대지, 스탬토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245호)
		고석	-협곡 및 현무암? 화강암 부정합
		대교천현무암협곡	-신생대 현무암 협곡
	일반	직탕폭포	-신생대 현무암 용암층 폭포
		삼부연폭포	-중생대 화강암 지대 폭포
유수의 땅(화천·양구·인제권역)	핵심	곡운구곡	-중생대 화강암 하상지형
		비래암	-석영반암 관입체
		화천백립암복합체	-고원생대 백립암
		양구백토	-석류석 화강편마암 풍화토(고령토)
		해안분지	-침식분지
		대암산용늪	-산지습지(고층습원)
	일반	용화산	-화강암산지 및 풍화미지형
		양의대하천습지	-하천습지
		두타연	-폭호 및 구하도
		소양강하안단구	-하안단구
		내린천포트홀	-포트홀
		진부령	-경동성요곡운동
		화진포	-석호 -사빈해안
파랑의 땅(고성권역)	핵심	고성제3기현무암	-제3기 현무암 및 맨틀포획암
		송지호 해안	-사빈, 사취 및 암석해안 -화강암 풍화미지형 및 규장암맥
	일반	능파대	-타포니 -육계도
위치			

출처: 강원평화지역지질공원(2012)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5) 청송국가지질공원

청송지질공원은 2014년 3월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으며, 청송군의 17개소의 지질명소가 인증 받았다.

<표 2-9> 청송국가지질공원

구분	내용	
명칭	청송국가지질공원(CHEONGSONG GEOPARK)	
총 면 적	151.34km ² (주왕산지구: 113.26km ² , 신성지구 38. 08km ²)	
인 구 수	26, 697명(외국인 포함)	
지질명소 17개소	암석/지질작용	8개소(기암 단애, 급수대 주상절리, 주방천페페라이트, 백석탄, 방호정퇴적층, 청송구과상유문암, 청송얼음골, 청송자연휴양림 퇴적층)
	침식 및 경관	5개소(노루용추, 용추, 절구, 용연, 달기폭포)
	동굴 및 화석	4개소(연화굴, 무장굴, 주왕굴, 신성공룡발자국)
지질시대 분포	선캠브리아기, 쥬라기, 백악기, 신생대 제3기	
주요 암종 분포	화성암	응회암, 유문암, 현무암, 안산암 등
	퇴적암	세일, 이암, 사암, 역암, 석회암 등
	변성암	화강편마암, 각섬석편마암, 흑운모편마암 등
탐방안내소	주왕산국립공원 탐방객안내센터(상의 지질학습관)	
	신성지질학습관	
	꽃돌채굴체험장 지질학습관	
지질탐방로	주방계곡 지질탐방로	
	신성계곡녹색길 지질탐방로	
	청송자연휴양림 지질탐방로	
	낙동정맥트레일 지질탐방로	
추진경과	2010년부터 국가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인증	2014. 3. 31(월) 개최된 제7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위치		

출처: 청송국가지질공원(2014)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제 3 절 지오투어리즘 연구동향

1. 해외 연구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연구는 2000년에 이르러 지질학, 지리학, 관광학 등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지오투어리즘 관련 선행연구들은 개념 정의에 관한 연구(Dowling, 2006, 2008; Hose, 1995; Stokes et al., 2003), 지오투어리즘을 위한 자원 발굴과 보존·관리에 대한 연구(Erikstad, 2013; Joyce, 2010; Moreira & Bigarella, 2010; Larwood, Badman, & McKeever, 2013), 지오투어리즘의 효과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관한 연구(Farsani et al., 2011; Frey et al., 2006; Newsome & Dowling, 2010), 지오파크 관광객에 대한 연구(Boley et al., 2011; Boley & Nickerson, 2010, 2013; Bosak et al., 2010; Grant, 2010; Hose, 2000), 지오투어리즘의 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Azman, Halimb, Liuc, Saidinb, & Komoo, 2010; Dowling, 2011; Hughes & Ballantyne, 2010)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여행 산업 협회(TIA)에서는 여행의 새로운 트렌드로 지오투어리즘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광객의 환경 및 문화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Stokes et al., 2003). TIA의 연구에서는 환경, 문화와 역사, 지오투어리즘을 연상시킬 수 있는 태도와 행동에 대하여 8개로 나누어 지오파크 관광객을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Boley & Nickerson, 2013). TIA의 연구는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 연구를 통해 Stokes et al.(2003)는 지오투어리즘이란 환경 문화 미술 문화유산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포함한 그 지역의 지리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지오투어리즘을 위한 자원의 보존·관리에 대한 최근 연구의 예를 보면 Erikstad(2013)는 지

오유산(geoheritage)과 지질다양성(geodiversity)관리에 대한 연구에서 3가지 즉, 지질다양성, 보존 및 전략, 보존관리의 주요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미래관리 부분에 대하여 5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지질 암석, 광물, 화석, 지형의 형태와 프로세스와 관련된 지질다양성(geodiversity), 둘째 세계자연유산으로 중요하고 지질학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지질유산(geological heritage), 셋째 지질학적 특징을 보여주며 지구의 역사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역으로 지오명소(geosite), 넷째 자연자원의 복원과 보호, 보존 등에 관한 자연보존(nature conservation), 마지막으로 지오유산 측면에서의 지질보전(geoconservation)이다.

지오투어리즘의 효과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오투어리즘의 경제적 역할 차원에서 관광 마케팅 형태로 논의 되고 있다(Newsome & Dowling, 2010). Farsani et al.(2011)은 지오투어리즘이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수입의 증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업종 및 상품을 만들어내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지역주민들에게 안겨준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지오투어리즘 역할과 지역경제에 지오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지오파크는 흥미로운 지질학적 특성들과 현상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교육적 과학적 관광학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지오파크 관광객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지오파크 관광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Boley와 Nickerson(2010)의 측정연구(GTS)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지오투어리즘의 구성 요소를 환경태도와 행동, 문화유산태도와 행동, 미적유산태도와 행동, 지역주민의 참여 등의 8가지 척도를 개발하여 실증분석에 적용하여 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더 나아가 Boley와 Nickerson(2013)은 GTS척도를 이용한 연구를 확장하여 지오파크 관광객을 3가지 세분화된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들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행객을 세분화하고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GTS척도가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지오

파크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마케팅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오투어리즘의 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는 지오파크에 대한 이해와 지오유산의 가치공유, 지질유산 개발에 따른 역할과 관리, 지오파크의 경제적 효과, 지역공동체의 권한과 책임 등 지오파크의 중요한 지질학적 특성을 보존하고 지구과학적 지식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Dowling, 2009). 이는 정부와 학자들에 의해 보호받고 연구되는 지오사이트와 박물관, 안내소, 트레일, 가이드 투어, 교내소풍, 대중문학, 지도, 교육자료 및 세미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Dowling, 2011).



<표 2-10> 지오투어리즘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Boley, Nickerson, & Bosak(2011)	지오투어리즘의 컨셉을 학술분야에 본격적으로 도입. 또한 환경, 유산, 미술품, 문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웰빙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
Farsani, Coelho, & Costa(2011)	지역주민들의 경제를 향상시키는 지오파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25개의 지오파크에서 운영되는 전략들을 분석.
Bosak, Boley, & Zaret(2010)	지오투어리즘의 개념이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대륙의 왕관지역을 지오투어리즘을 소재로 지도제작에 내포된 힘과 관계를 연구.
Dowling(2010)	지오투어리즘은 많은 국가와 지역들에게 그 지역의 독특성에 걸 맞는 정체성을 찾아 이를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오투어리즘은 새롭고 짜릿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지질학적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Dowling(2009)	지오투어리즘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지오투어리즘이 관광 액티비티의 광범위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Erikstad(2013)	지질유산(Geoheritage)과 지질다양성(Geodiversity)관리에 대한 연구에서 3가지 즉, 지질다양성, 보존 및 전략, 보존관리에 관한 연구.
Grant(2010)	지오투어리스트의 범위를 연구.
Maher(2010)	지오투어리즘은 비용 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 타게팅,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프로모션을 가능하게 만들고 향후 지속가능한 투어리즘의 개발을 책임질 수 있는 효과적인 브랜드의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Dowling & Newsome(2006)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개념의 확장과 확산연구.
Holloway & Taylor(2006)	투어리즘적 측면에서 볼 때 지오파크는 세계문화유산 단지와 유사하게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명소”로 비춰질 수 있다. 관광명소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
Joyce(2006)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세련된 정제, 지오투어리스트들은 지형·지질을 배우기 위해 지오사이트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다.
Stokes, Cook, & Drew(2003)	지오투어리즘은 환경 문화 미술 문화유산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포함한 그 지역의 지리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는 학문이다.
Hose(1995)	지오투어리즘의 초기 개념을 제시하였다(지리·지질학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에 관하여 관광객들에게 학문적인 의미와 지구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과 자료를 제공하는 것).

출처: 유근준·이승곤(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2. 국내 연구

국내의 경우 지오투어리즘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처음 소개한 정강환(2000)의 “지질관광대상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시장분석과 관광 프로그램 및 이벤트개발에 관한 연구” 이후 지질, 지리, 관광학 등 학문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 200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지오투어리즘 관련 국내연구를 분석한 김범훈(2013)의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전문학회지 등에 발표된 지오투어리즘 논문은 모두 172편으로 연구동향에 따라 ‘자원개발(113편)’, ‘보존·관리(13편)’, ‘교육적 인프라개발(8편)’, ‘지오투어리스트(4편)’, ‘주민참여 및 홍보·마케팅(3편)’, ‘정책적 접근(40편)’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김범훈(2013)의 지오투어리즘 연구동향 분석결과, 현재까지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연구는 특정분야 즉, 자원개발 등의 편중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오투어리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관광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다른 주제의 연구 못지않게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김범훈, 2013). 따라서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학문적 접근과 활성화를 위한 관광학 측면의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유근준·이승곤, 2013a).

한편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지리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지리학계에서는 지형경관의 응용차원에서 지오투어리즘과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직접 지오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구체적인 연구사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표 되고 있다(권동희, 2013). 예를 들어 지오투어리즘의 개념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김창환, 2009, 2011; 박경·김창환, 2012; 박미영, 2011; 전영권, 2010), 지형·지질자원을 활용한 연구(권동희, 2011; 전영권, 2005), 교육·홍보측면의 연구(정필모·서종철·전영권·신영규, 2010),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 지오파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리학계에서는 지오투어리즘을 소개하고 지오파크에 대한 지리학의 역할과 지리학 분야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논하여 왔다(김창환, 2009). 하지만 지오투어리즘과 지오파크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부터 통합된 명칭 없이 지오파크, 지질공원, 지리공원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지오투어리즘은 특정 분야의 연구주제가 아니며 지질학, 지리학, 관광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논의 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제 간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정확한 명칭에 대한 의견을 통합하여야 한다.

지질학 분야에서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자원에 관한 연구(안건상, 2011; 전용문·안웅산·류춘길·강순석·송시태, 2012; 허철호·최상훈, 2007), 지질유산의 평가 및 지질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박준형·정대교, 2012; 손영관·우경식·권창우·김련·전용문, 2009), 지질·지형자원을 조사하고 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용문 등(2012)은 '제주도 곶자왈 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고찰' 연구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지질학적 측면의 곶자왈 정의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어떠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손영관 등(2009)은 제주도를 사례로 지질유산과 지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질유산의 정량적 가치평가 모델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지질유산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인 지질모니터링(geomonitoring)의 개념과 방법과 제주의 3개 세계자연유산지구(한라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에 대하여 실제 이루어진 지질모니터링의 결과 부분과 향후 모니터링 방향을 소개하였다(손영관 등, 2009).

안건상(2011)의 연구에서는 서남해안의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화강암의 경관을 소개하고 지형학적으로 해석하고 조사를 통해 발견된 월출산의 사자봉과 향로봉, 천관산의 구룡봉의 나머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하였다. 더불어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는가에 대해 지질학적으로 해석하였다.

허철호·최상훈(2007)은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 부존하는 지질 및 지형경관 자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국립공원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

하고,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 위치하는 지질 및 지형경관 자원 중 학문적 측면과 관광적 활용 측면에서 보존되어야 할 지형경관자원과 암상, 지질구조 등의 특성 파악 및 상호관계 해석과 이들을 이용한 적절한 테마 관광 요소의 도출을 통한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박준형·정대교(2012)는 지질유산의 정량적 가치평가 모델 개발 연구에서 국내 지질유산의 가치를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항목 및 기준을 설정하여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실제 국내 사례에 직접 적용해 봄으로써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모델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관광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는 “지질관광대상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시장분석과 관광 프로그램 및 이벤트개발에 관한 연구”(정강환, 2000)의 연구 이후 미진하였으나 최근 이수진(2013)의 지질관광동기와 서비스품질이 관광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유근준·이승곤(2013a)의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탐색연구 등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기존 관광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학문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끌어가는 연구시스템을 갖추고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유근준·이승곤, 2013a). 또한 학제 간 교류와 연계방안에 관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4 절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
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
행동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Perugini와
Bagozzi(2001)가 제안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의사결정과정 및 행동을 예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연구이며
인간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태도는 핵심요인으로 이와 관련된 이론들이 활발히 적용되어 왔다
(유근준·이승곤, 2013b). 인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Fishbein and Ajzen의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을 들 수 있다.

1. 합리적 행동이론(TRA)

Fishbein &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에 의하면 태도(AB: Attitude toward
Behavior)와 주관적 규범(SN: Subjective Norm)은 행동의도의 중요한 선행변수로 태도는 특
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평가적인 반응으로 정의되며,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에 대한 주변사
람들의 영향으로 개인의 지각된 사회적 압박으로 정의된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며 실제행동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Ajzen, 1991).

합리적 행동이론 방정식: $B \sim BI = (AB)W_1 + (SN)W_2$

B=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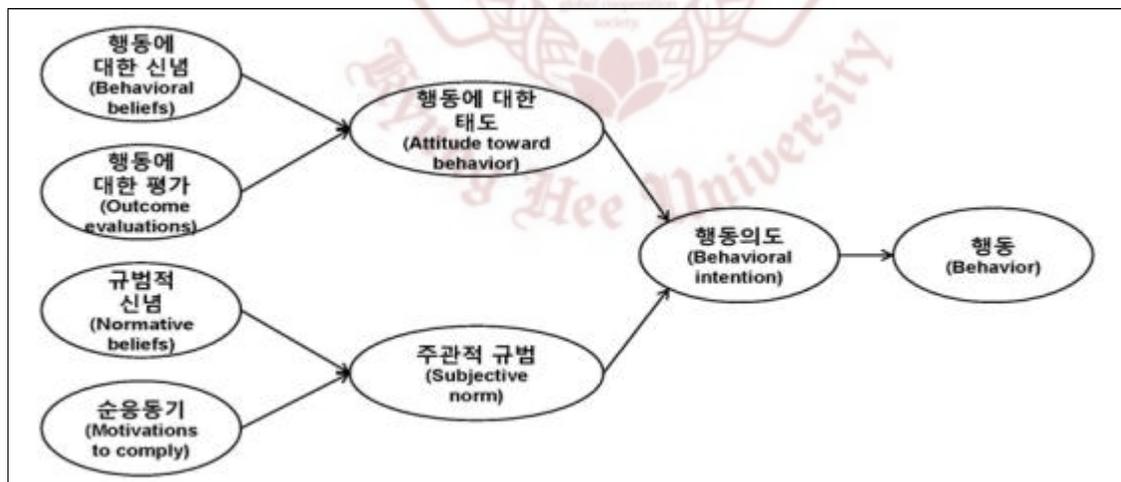
BI= 행동의도.

AB= 태도, W_1 = 태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의 가중치.

SN= 주관적 규범, W_2 = 주관적 규범에 대한 상대적 영향의 가중치

Ajzen과 Fishbein(1980)은 한 개인의 특정 행동은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 행동을 실행하려는 의도가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행동을 위한 의도는 그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태도와 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두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합리적 행동이론은 계획된 행동이론의 유용성이 제기되기 전까지 태도와 행동에 대하여 다양한 실증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김용중·김동진, 2012; 김홍범·유지영·이재형, 2012; 박진경, 2011; 박희서·노시평·김은희, 2007; 전병길·정윤조·정하윤, 2007).

Dodor와 Rana(2009)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만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며, 그 밖의 외부적 요인들은 제외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합리적 행동이론은 잠재적인 실제행동과 그에 따른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이론의 “불확실성”(Sapp & Jensen, 1997)과 “불충분함”(Leone, Perugini, & Ercolani, 1999)이 제기되었다. 즉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 금전, 자원, 기회와 같은 외부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Ajzen & Fishbein, 1980).



[그림 2-10] Fishbein &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

1) 태도(AB)

태도는 행동의 결과에 관한 개인의 신념과 그 결과에 따른 중요성이나 가치에 의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측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 대상에 대한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을 보이는 학습된 선유경향이라 할 수 있다(Fishbein & Ajzen, 1975). 예를 들어, 지오명소인 한라산에 간다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한라산에 가면 아름다운 경관을 볼 것이다. 라는 기대와 기분들이 모여 한라산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태도는 특정대상을 포함하는 지속적이며 일반적인 평가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2) 주관적 규범(SN)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특정행동을 수행할 때 주변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의미한다(Bearden & Etzel, 1991; Cheng et al., 2006). 주관적 규범은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믿는 정도를 말하며 관련 준거집단이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지지 혹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박희서·노시평·김은희, 2007). 이를 규범적 신념이라 하고 Ajzen(1991)은 규범적 신념을 주관적 규범의 기초를 이루고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이성일(2011)은 이에 대해 주관적 규범은 개인에게 있어서 가족이나 친척, 친구, 동료들, 비즈니스 거래처, 이웃들로부터 개인의 특정행동에 대해 동의함 또는 동의하지 않음(주관적 규범)과 그 행동과 관련한 주변인들의 의견에 대해 이를 따르려는 동기(순응동기) 2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최영정(2010)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들의 기대지각과 그들의 기대에 따르려는 순응동기의 함수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관적 규범은 목표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행동주체가 느끼는 지각된 사회 압력(perceived social pressure)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윤설민·오선영·윤선정, 2010; 윤설민, 2011; 이준엽·안태기, 2008; Pavlou & Fygenson, 2006), 본 연구에서는 지오투어리즘을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주변사람들에 대한 의견과 반응에 대한 지각된 사회 압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행동의도(BI)

Fishbein과 Ajzen(1975)은 의도를 “행동이론에 있어서의 핵심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의도는 특정행동에 대한 직접적이고 유일한 결정 및 선행요인이며, 의도는 주관적 규범과 행동에 대한 태도 간에 있어서도 상호간에 긍정적인 함수관계를 갖고 있으며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Pierro et al.(2003)은 행동의도를 “내가 6개월 안에 댄스학원에 다닐 실행 가능성의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Lam과 Hsu(2004)는 여행의도를 “레저나 휴가를 목적으로 개인의 미래 여행목적지를 예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박미진(2007)은 진로정보 탐색행동에 대한 의도를 진로정보와 탐색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정의하였고, 임운정(2008)은 행동의도를 한류문화를 대표하는 드라마와 음반에 대한 외국 관광객들이 소비행위를 수행하려는 의도의 정도라고 하였다. 이충기·송학준(2010)은 조화로운 열정과 강박적 열정이 카지노 방문객의 갬블링 행동의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조화로운 열정이 카지노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윤설민(2010)은 행동지속의도를 모험적 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지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성일(2011)은 방문 행동의도를 “실제 한국여행의 실행에 옮기는 행위

실천에 대한 본인의 의지”로 정의하였고 최영정(2010)은 행동의도를 “관광객이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책임관광에 대한 행위를 수행하려는 강도”라고 정의하였다.

2. 계획된 행동이론(TPB)

합리적 행동이론(TRA)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Ajzen(1985)은 행동수행에 필수적인 자원과 기회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도를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통제감(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을 추가한 계획행동이론(TPB)을 제안하였다. 송학준·이충기(2010)는 복합리조트 카지노 방문객의 행동의도 예측연구에서 계획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과 매우 유사하며, 행동주체가 직면하는 외부영향과 관련된 지각된 행동통제감(PBC)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합리적 행동이론보다 발전된 이론이라 하였다(Zint,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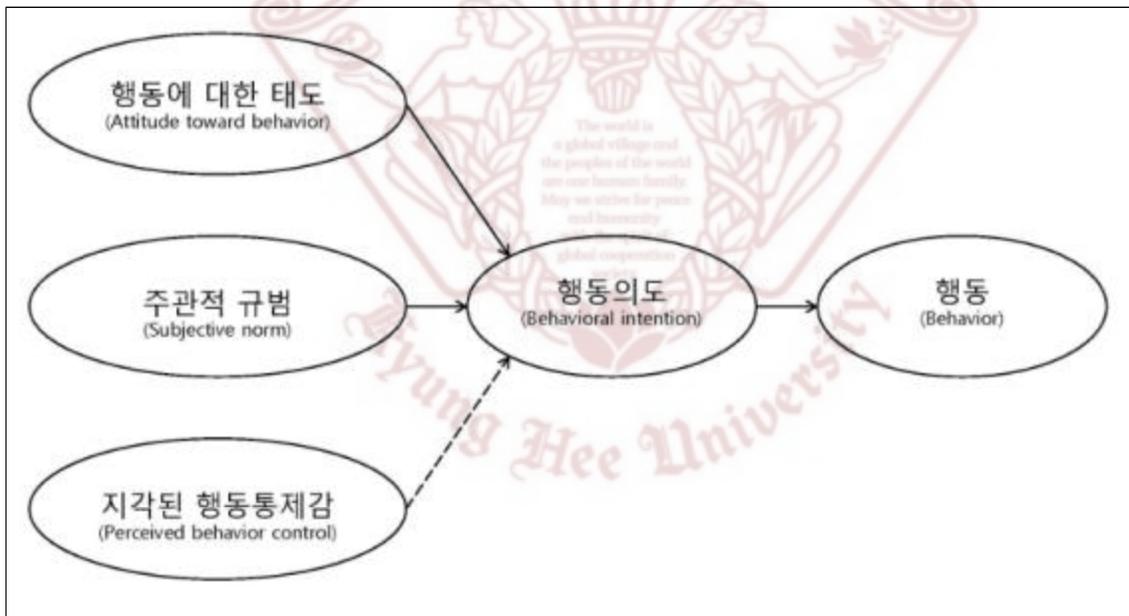
Ajzen(1991)에 의하면 자원 보유량과 자신감이 클수록 개인은 의도한 행동에 더 많은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갖게 되며, 자신이 그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지각할 때 실제 행동수행을 예측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도입한 계획행동이론은 외부영향력이 존재하는 보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행동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였다(Cheng, Lam, & Hsu,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행동이론에 사용된 요인(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의 설명력은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Armitage & Conner, 2001; Ravis & Sheeran, 2003).

1) 지각된 행동통제감(PBC)

지각된 행동 통제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행위자의 자발적인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매우 어렵거나 쉽게 작용되는 요인들에 대한 지각정도를 말하며, Ajzen(1991)은 이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서 해당 행동을 하는

것이 쉽거나 또는 어렵다고 느끼는 행동에 대한 인지된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관하여 국내 연구자들은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최영정(2010)은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책임관광을 하는 관광객들이 책임관광 행동에 필요한 기술, 자원, 기회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지각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최은정(2010)은 인지된 행동통제를 “개인의 통제력 결여, 방해물의 존재 등과 관련된 행동 수행력”이라고 정의하였다. 한수진(2009)은 지각된 행동통제를 “식후, 자기 전 칫솔질 실천에 대해 대상자가 지각하는 어려움 또는 용이함의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임윤정(2008)은 지각된 행동통제를 “한류문화 콘텐츠 중 드라마와 음반을 이용하려는 관광객들이 관광행동에 필요한 기술, 자원, 기회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지각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그림 2-11]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

3.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계획행동이론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감은 행동을 위한 명분은 제공하나, 행동의도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Perugini & Bagozzi, 2001), 개인의 행동의도가 활성화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Bagozzi & Warshaw, 1992).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도입하여 기존의 계획행동이론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송학준·이충기·부숙진, 2011; 유근준·이승곤, 2013b; 윤설민, 2011; 현용호, 2012; Han, Lee, & Lee,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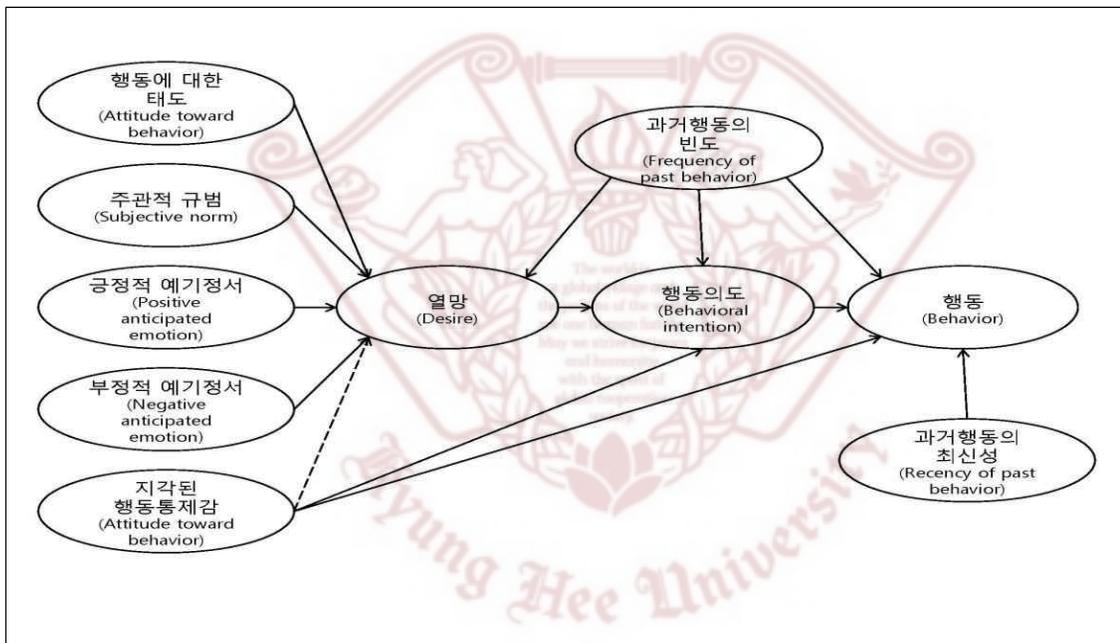
계획행동이론은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거나 변수간의 경로를 이동시킴으로써 관광학 연구(예: 관광객의 목적지 선택)에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Han, Lee, & Lee, 2011). 그러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xtended TPB)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행동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Han, Lee, 그리고 Lee(2011)는 비자면제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방문의도를 살펴보기 위해 ‘관광비자면제에 대한 기대’를 추가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였다. 유근준·엘리자·이승곤(2013c)은 CIS국가 의료관광객들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행동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사전지식’을 추가변수로 확장한 계획행동이론을 구축하였다. 또한 송학준 등(2011)이 자연기반 축제의 방문행동 이해를 위해 ‘환경 친화적 관광 소비행동’을 추가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도입하였다.

4. 목표지향적 행동이론(MGB)

계획행동이론 역시 과거행동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계획행동이론은 주로 행동을 결정하는 인지적 요인에 관심을 두고, 행동을 결정하는 감정적 요인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행동이론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Perugini과 Bagozzi(2001)는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제안하였다.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는 계획행동이론의 모든 기존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의 역할은 새롭게 제시된 변수 중 하나인 열망(desire)에 의해 간접적으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도록 재 정의되었다. 또한, 과거행동과 감정요인의 영향력을 고려하기 위해 열망 이외에 긍정적 예기정서(positive anticipated emotion), 부정적 예기정서(negative anticipated emotion), 과거행동의 빈도(frequency of past behavior), 그리고 과거행동의 최신성(recency of past behavior)이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제시되었다.



[그림 2-12] Perugini & Bagozzi(2001)의 목표지향적 행동이론

TPB모형에서 새롭게 제시된 개념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열망이란 행동주체가 사람, 사물 그리고 행동을 포함하는 목표대상에 대해 가지는 강렬한 감정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다(Perugini & Bagozzi, 2004).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열망은 행동의도와 기존 계획

행동이론의 변수(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추가된 다른 개념들(긍정적 예기정서, 부정적 예기정서, 과거행동의 빈도와 최신성)을 매개함으로써 목표행동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완성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기정서(긍정적, 부정적)는 대상행동을 실행하기 전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이 대상행동에 관해 갖게 되는 사전적 감정들로 설명되고 있다(Carrus et al., 2008). 예기정서 개념의 도입으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은 기존의 계획행동이론이 설명할 수 없었던 인간행동 결정의 감정적 부분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과거행동은 구체적으로 과거행동의 빈도와 최신성으로 구분된다(Perugini & Bagozzi, 2004). 과거행동의 빈도는 어떠한 행동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총 행동빈도의 횟수를 의미하고, 이는 열망의도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행동의 최신성은 어떠한 행동에 관한 최근의 행동빈도의 횟수라 할 수 있으며 행동빈도의 횟수는 실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은 그동안 기존 계획행동이론이 간과해왔던 목표행동의 반복습관이 해당 행동에 대한 행동의도 또는 실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실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동의도, 과거행동의 최신성, 과거행동의 빈도,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감이다. 열망, 과거행동의 빈도,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존 계획행동이론의 독립변수들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새롭게 제시된 긍정적 예기정서, 부정적 예기정서, 그리고 과거행동의 빈도와 함께 열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은 기존 계획행동모형에 열망, 예기정서, 과거행동의 개념을 포괄시킨 통합적 사회심리학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열망, 예기정서, 그리고 과거행동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모

형설명력은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모형은 브랜드 관련 행동, 음주 행위,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일 섭취, 정보탐색, 의사결정 등 여러 가지 인간행동을 이해하는데 사용되어 왔다(박희량, 2011; 송학준·이충기, 2010; 이규현·리차드 바고찌, 2009; Bagozzi & Dholakia, 2006; Lee, Song, Bendle, Kim, & Han, 2012; Song, Lee, Kang, & Boo, 2012; Song, You, Reisingerc, Lee, & Lee, 2014; Prestwich, Perugini, & Hurling, 2008; Richetin et al., 2008; Taylor, Ishida, & Wallace, 2009; Taylor, 2007).

1) MGB에서 열망의 역할

사람은 그들의 열망을 충족시키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열망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Perugini & Bagozzi, 2001). 열망이란 어떤 사람이나 객체를 갈망하거나 특정한 미래를 희망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Taylor, Bagozzi, & Gaither, 2005). Perugini와 Bagozzi(2004)는 “한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한 혹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적인 동기를 가졌을 때의 마음의 상태”로 열망을 정의하였다.

열망은 크게 ‘소비의 욕구’와 ‘의지의 욕구’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소비의 욕구는 소비 행위(먹고자 하는 욕구 등)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반해 의지의 욕구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나타나게 되며 넓은 범위의 목적 행동이 적용될 수 있다(Davis, 1984). 어떤 목적에 대한 태도는 타당한 이유를 기반으로 생겨나는데 때문에 태도는 의지욕구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곤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여행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태도는 여행을 가고자 하는 욕구로 발현될 것이다. 즉, 태도는 열망의 의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태도와 열망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Perugini & Bagozzi, 2001). Bagozzi와 Kimmel(1995)는 이러한 태도가 열망을 거쳐 의도에 끼치는 영향을 입증해냈다.

비록 TPB에서 의도는 자연적인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열망과 다르지 않다고 여겨 열망을 고

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Fishbein & Stasson, 1990), 열망을 배제한 채 행동에 대한 긍정적 예기정서만으로 행동 의도를 가속시키는 쉽지 않다. Perugini와 Bagozzi(2001)는 태도와 열망 사이의 접점이 바로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동기부여 역할을 한다고 진술했다.

특정 행동에 대해 개인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확신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동기가 부여 될 만큼 충분한 매력을 느낄 때 비로소 실천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 행동에 대한 열망이 태도와 다른 점은 개개인이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동기부여적인 헌신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태도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상황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열망은 오직 미래상황에서만 언급된다(Perugini & Bagozzi, 2004).

다음으로 열망과 예기정서 사이의 관계를 보면, Mayo와 Jarvis(1981)는 예기정서란 각 개인이 구체적 행동을 수행하게 하는 내면의 원동력 또는 육체적, 심리적 에너지를 써서 외부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내면의 상태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기정서는 개인이 생각을 하고 구체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열망과 예기정서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때 열망이란 예기정서가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써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겨나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열망과 예기정서, 두 관계에 대해 여행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면 여행자들은 신선함, 사고, 도피처 등 다양한 여행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여행 감정은 긍정적·부정적 과정을 거치면서 여행에 대한 열망을 더욱 고무시키며 그 열망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행동 의도, 혹은 실제 여행을 위한 행동으로 뒤바뀔 것이다. 따라서 예기정서란 구체적 행동으로 이끄는 열망에 대한 필수적인 선행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agozzi(1992)는 비록 의도가 행동을 이끌지만 열망이 필연적으로 행동을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지질공원을 가고자 하는 의도는 지오파크를 갈 가능성을 충분히 이끌어 내지만 지질공원에 대한 열망이 항상 지오투어리즘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행위의 철학자 Brand(1984)는 의도와 열망의 구별에 대하여 또 다른 대안을 제의했다. 그는 특정 행동에 대해 서로 상반된 열망을 보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Davidson, 1980; McCann, 1986).

특정한 행동을 이행한다는 것은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꼭 그것을 열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의도는 항상 그것대로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열망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점은 의도가 소망보다 실제 행동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Brand, 1984). Perugini와 Bagozzi(2001)는 의도는 열망을 상정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행동하기 위한 의도를 형성하기 위해선 그 행동에 대한 열망을 필요로 한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열망이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의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Bagozzi(1992)는 열망이 의도와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일단 열망이 생기면 열망과 가능한 상태와의 비교를 기반으로 도래한 열망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열망의 다른 상태와 연관되어 있는 평가는 정서반응을 일으키며 그러한 반응을 의도로 전환시킨다(Lazarus, 1991; Bagozzi, 1992). 위와 같이 열망과 의도에 대한 이론적인 구별은 경험적 이론으로서 뒷받침된다. 최근 TPB에 대한 메타연구는 이러한 구별 방법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Armitage & Conner, 2001). 의도와 자기 예측은 열망 이외의 더 많은 예측 변수들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의도에 대한 태도는 거의 대부분 열망에 영향을 받는다.

2) MGB에서 예기정서의 역할

감정은 인간 행동을 기반으로 한 기초적인 메커니즘으로 간주되며(Carrus, Passafaro, & Bonnes, 2008), 그 중 몇몇 학자들은 행동에 대한 예기정서 반응이 의도에 있어 긴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Conner & Armitage, 1998).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 미래에서 행할 행동에 대해 느낄 정서를 미리 생각하게 된다. Gleicher et al.(1995)는 이러한 것들을

반 사실적 사고-사전 사실적 사고라 명명했으며 이것들은 부정적 예기정서를 피하고 긍정적 예기정서를 촉진시킴으로써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진술했다.

3) MGB에서 과거 행동의 역할

TRA와 TPB 모델에서는 과거 행동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과거 행동이 의도와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Bagozzi & Warshaw, 1990; Fredricks & Dossett, 1983). 따라서 과거 행동은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인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송학준·이충기, 2010; 이규현·리차드 바고찌, 2009; Bagozzi & Warshaw, 1990; Conner & Armitage, 1998; Song, Lee, Norman, & Han, 2012; Ouellette & Wood, 1998; Perugini & Bagozzi, 2001; Verplanken & Arts, 1999).

과거 행동은 습관 형성과 의도 형성, 두 가지 방법으로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Ouellette & Wood, 1998). 습관 형성의 경우 행동을 시작하고 통제하는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교적 안정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반면 의도 형성의 경우 덜 안정된 상태로 이루어지며 과거 행동이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형성 과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특정 과거 행동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등 여러 TPB 요소나 다른 잠재적 변수들과 함께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MGB에서 과거행동은 빈발 과거 행동과 최신 과거 행동, 두 가지 개념으로서 의도와 행동 모두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Perugini & Bagozzi, 2004). 빈발 과거 행동은 1년 정도의 비교적 긴 시간동안 이루어진 행동을 말한다. 이와 달리 최신 과거 행동은 보통 몇 주나 몇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행동을 말한다. 과거행동의 빈도와 과거행동의 최신성의 효과는 이론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며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데 있어 독립적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과거행동의 빈도는 습관의 다른 말로서 간주되며 때문에 최신 과거 행동과는 달리 열망과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4) MGB이론의 초기연구

처음 MGB 이론은 Perugini와 Bagozzi(2001)가 체중 조절과 학습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그들은 MGB가 TPB보다 더욱 다양한 의도와 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효과인 경우 MGB는 약 53%의 의도와 24%의 행동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반해 TPB는 34%의 의도와 15%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다(Perugini & Bagozzi, 2001). 또한 열망이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행동 의도에 대한 기대 정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행동 개념을 적용시켜보면 과거 행동빈도는 체중 조절과 학습행동의 의도에 영향을 끼쳤다. 반면 최신 과거 행동은 오직 체중조절에 한해서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러한 연구는 최근 MGB를 다른 행동들(유행, 음주 및 음료, 온라인 저작권, 과일 섭취, 정보검색, 재활용, 고혈압 조절을 위한 자기통제, 과자 소비, 공부, 대중교통 이용 및 무게 조절 등)에 대한 여러 사회심리 모델에도 적용가능하게 했다.

5) MGB에 관한 선행연구

그 동안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 행동이론에 관한 선행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목표지향 행동모형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이규현·리차드 바고찌(2009)는 소비자들이 함께 행동하고자 할 때 그들의 집단행동의 내부에는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공동 목표가 형성되고 구성원들은 목표지향적 행동을 하려는 것에 주목하고 소비자들의 의도적 사회 행위(intentional social action)를 이해하기 위해 예측치들이 어떠한 설명력을 나타내는지를 연구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열망에 대한 예측치로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긍정적기대감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주관적 규범과 부정적 기대감정은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학준·이충기(2010)는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하여 복합리조트 카지노 방문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방문행동의 결과에 대한 사전감정이 강하고 카지노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이 높으며 주변사람들이 복합리조트 카지노 방문행동을 긍정적으로 지지해주고 과거 복합리조트 카지노 방문횟수가 많을수록 방문행동에 대한 열망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열망과 행동의도에 아울러 태도는 열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희량(2011)은 인터넷 구매행동에 목표지향 행동이론을 적용하였을 때 행동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을 얼마나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또한 인지욕구 수준에 따라 그 과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욕망에 대해 태도, 부정예기정서, 과거행동, 행동통제력 지각, 정적예기정서, 순으로 매개하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규범만이 욕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12)은 2009년 H1N1의 사례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하고 이에 지각된 H1N1와 비약 물적 중재라는 요인을 확장된 개념으로 H1N1로 인한 잠재여행객의 행동의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잠재적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2009 HINI와 NPI(비약물적 중재) 인식을 MGB이론에 포함시켜 EMGB로 개발하고 2009 H1N1 질병이 잠재적 해외관광객에게 미치는 영향관계와 의사결정과정 검토하였다. 또한 TRA와 TPB를 비교하여 EMGB의 우수한 예측능력을 입증하였으며 2009 H1N1 바이러스와 NPI가 잠재적 해외관광객이 인식하는 바이러스에 관하여 MGB모형으로 이러한 인식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Song, Lee, Kang, 그리고 Boo(2012)는 증가하는 환경 친화적인 인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연기반 축제를 방문할 때 여행객들의 환경 친화적인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중요하게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기반 축제 방문객의 행동의도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환경관심, 지각된 소비자 효

율성, 그리고 환경 친화적 관광행동의 구조와 환경적으로 관련된 이들 세 가지를 포함하는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EMGB)를 제안하고 한국의 보령 머드 축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인식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였다.

Song et al.(2012)에 따르면 MGB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이 카지노 연구에서 실험되거나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카지노 방문객들의 행동 의도를 분석하고자 MGB이론을 적용하였다. 더불어 책임도박전략을 추가하여 카지노 방문객들의 도박행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책임도박전략의 인식은 카지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과거행동의 빈도에 따라 열망이 증가하며, 카지노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통해 태도, 긍정적인 예상 감정, 부정적인 예상 감정 등에 의해 열망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희정·김승현(2013)은 대학생의 그룹여행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를 위해 목표지향 행동모델과 사회정체성 이론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이 친구와 왜, 여행을 가려하는가와 그러한 의도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MGB이론을 토대로한 연구의 결과로 지각된 행동통제, 태도, 주관적 규범, 사회정체성 모두 열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여행을 가려는 열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태도가 중요하며 그 다음 순으로 열망, 지각된 행동통제감, 사회정체성으로 그 영향관계가 밝혀졌다. 그러나 주관적 규범은 열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각되었다.

5. 사전지식(prior knowledge)

사전지식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기억 속에 저장한 정보라 정의할 수 있다(Grnhaug, 1986). 그러한 정보는 어떻게 측정되느냐에 따라 단일차원 및 다차원으로 정의된다. Brucks(1986)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기억에 저장된 정보의 양과 인식을 사전지식이라

정의하고 이를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으로 분류하였다.

송학준·이충기(2010)는 소비자들의 사전지식 수준이 높으면 제품에 대한 분류기준이 세분화 되고 정교화 되어 제품구매에 대한 평가능력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아울러 제품에 대한 평가과정이 자동화되어 제품구매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Bettman & sujan, 1987; Johnson & Mervis, 1997).

Wood와 Lynch(2002)은 사전 지식이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숙련도와 과거의 경험이 같은 역할을 하는 단일 차원의 개념임을 강조하였고, 그 수준 정도에 따라 전문가, 초보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이 정보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단어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품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충분한 제품 지식을 가진 소비자보다 더 많은 정보원(information source)을 사용할 것이다(Park & Kim, 2010).

Alba와 Hutchinson(1987)은 사전지식이 소비자가 제품에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친숙성의 정도와 숙련도 및 과거의 경험 등으로 구성된 다차원의 개념이라 하였다. Brucks(1986)은 친숙성에는 대한 논의로 제품이나 대상 목적지에 관한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개인이 지오파크에 가본 적이 없어서도 매체 등을 통해 지오명소에 대한 기대를 유발하면서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 숙련도란 개인이 경험이나 훈련을 통해 획득한 구체적인 지식으로(Wood & Lynch, 2002), 그 수준에 따라 전문가와 초심자로 구분된다. 또한 과거경험은 방문경험이나 사용경험으로부터 습득된 경험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전지식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정보 탐색활동에 관한 연구, 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연구,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연구 등 여러 가지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송학준·이충기, 2010). 그러나 아직까지 지오투어리즘에 적용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사전지식을 목표지향 행동모형에 추가하여 확장된 목표지향 행동모형을 구축하여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한다.

1) 사전지식에 관한 선행연구

Moorman et al.(2004)은 주관적 사전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정보처리 동안에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 보다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할 것이라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보면 주관적 사전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제품에 대한 평가 능력 및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주관적 사전지식이 낮은 사람은 제품 평가에 대한 능력도 낮고 정보탐색 정도도 낮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민병권(2004)은 소비자 제품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사전지식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소비자 제품평가에서 소비자 체험의 각 모듈을 자극하는 광고유형과 광고템포 및 소비자의 사전 지식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윤설민 등(2010)은 계획된 행동이론에 주관적 사전지식을 추가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행동의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로 사전지식과 지각된 위험이 해외여행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태도에 있어서도 사전지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지식이 높은 사람은 해외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윤설민(2011)은 모험적 여가 활동에서의 사전지식은 활동에 대한 인지적 정보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인지적 정보력은 활동 참여 전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상황에서 생성되지만 오랜 활동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된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모험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초보자보다 경험자가 더 많은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결론적으로 모험적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태도나 행동의도를 결정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Mishra와 Kumar(2011)은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의 정보 탐색 및 정보 처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 모두 정보의 폭, 깊이 및 정보 처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Khosrowjerdi와 Iranshahi(2011) 또한 사적 지식 및 정보 검색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와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Phillips, Asperia, 그리고 Wolfeb(2013)은 한국 국가 이미지 및 한식에 대한 주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중서부 지역 사람들의 한국 방문 의도 및 한식 소비 의도를 분석하였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 및 한식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 한국 방문의도 및 한식소비의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라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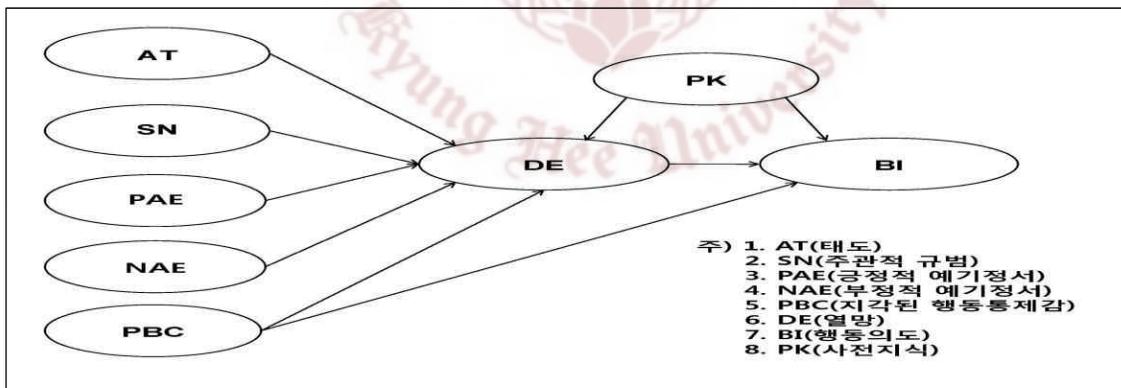
송학준·이충기(2010)는 목표지향적 행동이론(MGB)에 사전지식을 추가하여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이론(EMGB: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을 개발하고 카지노 방문객들의 방문행동의도예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열망은 카지노 의도에 대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카지노 갬블링에 대한 사전 지식, 과거의 경험의 순으로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카지노 갬블링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사전지식이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관광형태 중 하나인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지오명소를 찾는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논리적으로 알아보고자 Perugini와 Bagozzi(2001)가 제안한 목표지향적 행동이론(MGB)를 적용하여 구성개념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송학준·이충기(2010)의 복합리조트 카지노 방문객 행동연구에서 사전지식을 추가한 확장된 MGB모형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지오파크 관광객의 사전지식 유·무에 따른 MGB모형 간 비교를 실시하고 모형별로 설명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변화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사전지식을 추가한 확장된 MGB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 2 절 가설의 설정

1. 태도와 열망의 관계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에 대해 태도는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Perugini와 Bagozzi(2001)의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는 태도가 행동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망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노정희·김승현, 2013; 송학준·이충기, 2010; Perugini & Bagozzi, 2001; Bagozzi & Dholakia, 2006; Lee, Song, Bendle, Kim, & Han, 2012; Song, Lee, Kang, & Boo, 2012; Song, Lee, Norman, & Han, 2012).

노정희·김승현(2013)은 대학생의 그룹여행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집단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그들의 열망과 의도가 증가하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송학준·이충기(2010)는 어떠한 개인이 복합리조트 카지노 방문행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복합리조트 카지노 방문행동에 대한 열망에 영향을 주게 되며 방문의도를 강화시켜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오파크 방문객의 방문행동에 적용해보면, 지오파크 방문행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오파크 방문행동의 긍정적 태도는 지오파크 방문행동에 대한 열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다시 방문의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지오파크 관광객의 방문행동에 대한 태도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주관적 규범과 열망의 관계

Fishbein와 Ajzen(1975)는 개인이 특정행동을 수행할 때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이 특정행동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따라, 행동주체의 행동의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주관적 규범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유재 · Bagozzi, 2000; Cheng et al., 2006). 그러나 MGB모형에 의하면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망을 통해 행동의도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송학준 · 이충기; 2010; Perugini & Bagozzi, 2001; Taylor, 2007).

예를 들어 송학준 · 이충기(2010)는 복합리조트 카지노 방문행동연구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주변인들이 복합리조트 카지노 방문행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는 복합리조트 카지노에 대한 열망에 영향을 미치며, 더하여 행동의도를 강화하는 요소임을 입증하였다. 이는 지오파크 관광객에게 중요한 주변사람들이 지오파크 방문행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열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H2: 지오파크 관광객의 방문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열망 및 행동의도의 관계

Ajzen(1991)은 어떤 행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갖고 있을 때 생기는 자신감이나 능력을 뜻하는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태도와 행동의도 사이의 관계에서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중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종종 무언가를 수행하기엔 자기효능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를 하기 위한 열망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MGB이론에서의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행동의도, 실제행동, 그리고 열망에 영향을 미치도록 구성되었다(Carrus et al., 2008; Perugini & Bagozzi, 2001; Taylor, 2007).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오파크 관광객들이 제주세계지오

파크를 방문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 등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이들의 방문행동에 대한 열망과 행동의도는 증가할 것이고 아울러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실제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다(Ajzen, 1991; Ajzen & Madden, 1986). 그러나 본 연구의 최종 종속 변수는 실제행동이 아니라 행동의도이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가설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관련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설정되었다.

H3: 지오파크 관광객의 방문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지오파크 관광객의 방문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예기정서와 열망의 관계

계획행동이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 이론은 행동의도 형성에 있어서 감정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Perugini & Bagozzi, 2001). 사회과학분야의 학자들은 감정과 인간의 의사결정의 합리적인 프로세스간의 상호작용이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개인은 목표행동을 실행하기 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기된 반 사실적사고(anticipated counterfactual thinking)를 통해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한 사전적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Van & Vries, 1998).

송학준·이충기(2010)는 반 사실적 사고란 “~였더라면, ~했을 텐데”라는 식의 생각이라고 이처럼 반 사실적 사고는 선행사건 또는 행동의 조건부분과 이에 따른 결과부분으로 이루어진 조건절의 형태를 갖게 된다(Goodman, 1983). Gleicher et al.(1995)는 사전 가정사고(prefactuals)를 통해 형성된 정서적 반응은 행동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동의도와 행동은 목표달성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대된 감정(정서)가 MGB모델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었다.

Perugini와 Bagozzi(2001)는 긍정적, 부정적 예기정서가 열망을 형성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MGB 모델은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 요인에 예기정서와 과거 행동 그리고 열망이라는 요인을 추가시켰다. 이에 근거하여 실제행동에 대한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예기정서가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 포함되었다.

MGB 모델에 따르면 두 가지의 예기정서(긍정적, 부정적 예기정서)가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열망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Perugini & Bagozzi, 2001), 두 가지의 예기정서는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행동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감정적 결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Bagozzi, Baumgartner, & Pieters, 1998).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예기정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H5: 지오파크 관광객의 방문행동에 대한 긍정적 예기정서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지오파크 관광객의 방문행동에 대한 부정적 예기정서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열망과 행동의도의 관계

Leone et al.(1999)은 계획행동이론이 동기적 헌신(위임)을 수반하지 않았으나 특정행동을 수행하는 행동의도는 열망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Bagozzi, 1992; Leone et al., 1999). MGB모형에서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예기정서 등과 같은 평가적 요소들이 감정적 추진요소인 열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열망은 이와 같은 평가적 요소들의 영향

력을 매개하여 행동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Carrus et al., 2008; Perugini & Bagozzi, 2001; Taylor, 2007). MGB모델에서 열망은 행동의도의 가장 근접한 결정요인으로 간주된다(Perugini & Bagozzi, 2001). 즉, 개인이 지오파크 방문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방문행동을 위한 충분한 능력과 기회를 보유하고, 지오파크 관광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갖고 있다면, 이는 열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오투어리즘을 하고자 하는 행동의도를 강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망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7: 지오파크 관광객의 방문행동에 대한 열망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사전지식과 열망 및 행동의도의 관계

송학준·이충기(2010)은 카지노에 대한 방문객의 사전지식이 복합리조트 카지노 방문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카지노에 대한 사전지식과 열망, 그리고 행동의도와 의 잠재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Alba와 Hutchinson(1987)은 소비자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구성개념으로써 사전지식이 정보수집과 구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품선택과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Park와 Lessig(1981)는 사전지식은 상품평가에 대한 확신정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전지식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최태영(2011)은 사전지식의 역할은 의사결정 기준을 비교적 쉽게 구성하거나 혹은 만들어진 기준을 기억으로부터 쉽게 인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며,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을 때 기존 정보와 연결하고 구조화하여 처리하며 관련성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제거하며 요약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은 지오파크 방문행동과 관련된 열망과 행동의도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이에 따

라 지오파크 관광객들이 지오파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열망과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H8: 지오파크에 대한 사전지식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지오파크에 대한 사전지식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3 절 구성요인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1. 구성요인의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란 개념적 정의를 실제로 관찰 가능한 현상과 연결시켜 구체화시킨 진술 즉, 가설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개념을 실제현상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되었다. 첫째, 지오투어리즘(유근준·이승곤, 2013a; Boley et al., 2011; Bosak et al., 2010; Boyle & Nickerson, 2010; Boley & Nickerson, 2013; Buckley, 2003; Dowling & Newsome, 2006; Joly et al., 2009; Lew 2002; Stokes et al., 2003), 인간행동이론(박희량, 2011; 송학준·이충기, 2010; Ajzen, 1991; Ajzen & Madden, 1986; Bagozzi et al., 1998; Carrus et al., 2008; Lam & Hsu, 2004; Lee, Song, Bendle, Kim, & Han, 2012; Perugini & Bagozzi, 2001, 2004; Richetin, Perugini, Adjali, & Hurling, 2008; Song, Lee, Kang, & Boo, 2012), 그리고 사전지식(민병권, 2004; 송학준·이충기, 2010; 윤설민, 2011; Alba & Hutchinson, 1987; Brucks, 1986; Khosrowjerdi & Iranshahi, 2011; Phillips, Asperia, &

Wolfeb, 2013)과 관련된 문헌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목적과 관련된 측정항목들을 추출하였다. 둘째, 학계 전문 교수님들께 의뢰하여 추출된 측정항목들이 지오투어리즘 관광객의 지오파크 방문행동 측정을 위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정제하였다. 셋째, 완성된 1차 설문지로 관광학부 생과 대학원생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측정항목들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재검토하였다. 측정항목 척도의 경우 1)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명목 및 비율척도로, 2) 그 외의 항목들(예: 태도, 주관적 규범, 예기정서, 열망 등)은 리커트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그저 그렇다 7=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1) 태도(attitude)

태도(AT)에 대한 측정은 지오파크 관광객의 관점에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은 제주 지오파크 방문에 대한 귀하의 태도를 묻는 항목입니다”라는 질문으로 1)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긍정적인 행동이다. 2)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가치 있는 행동이다. 3)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유익한 행동이다. 4)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현명한 행동이다. 등을 송학준·이충기(2010), Lee, Song, Bendle, Kim, and Han(2012), Perugini and Bagozzi(2001, 2004), Richetin, Perugini, Adjali, and Hurling(2008), Song, Lee, Kang, and Boo(2012) 등의 선행연구에서 도출하였으며,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하여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 ‘보통’, 7)= ‘매우 그렇다’로 나열하여 태도를 측정하였다.

2)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Ajzen(1991)은 주관적 규범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수행할지 안 할지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인 압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주관적 규범(SN)에 대한 측정은 지오투어리즘을 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주변사람들에 대한 의견과 반응에 대한 지각된 사회 압력의

정도를 측정된 개념으로 박희량(2011) 송학준·이충기(2010), Lee, Song, Bendle, Kim, & Han(2012), Perugini & Bagozzi(2001, 2004), Richetin, Perugini, Adjali, & Hurling(2008), Song, Lee, Kang, & Boo(2012)의 선행연구에서 도출하였다. 측정문항은 1)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찬성해 줄 것이다. 2)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3)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이해해 줄 것이다. 4)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 줄 것이다. 이에 대한 측정은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하여 1)= ‘전혀 그렇지 않다’, 4)= ‘보통’, 7)= ‘매우 그렇다’로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였다.

3) 지각된 행동통제감(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jzen(1991)에 의하면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서 해당 행동을 하는 것이 쉽거나 또는 어렵다고 느끼는 행동에 대한 인지된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지오파크 관광객들이 지오파크를 방문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 등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이들의 방문행동에 대한 열망과 행동 의도는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른 측정항목으로 1)내가 원하면 제주 지오파크를 언제든지 방문 할 수 있다. 2)나는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3)나는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4)나는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등을 구성하였다.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측정하기 위해 박희량(2011) 송학준·이충기(2010), Lee, Song, Bendle, Kim, & Han(2012), Perugini & Bagozzi(2001, 2004), Richetin, Perugini, Adjali, & Hurling(2008), Song, Lee, Kang, & Boo(2012) 등의 선행연구에서 측정항목을 도출하였다. 또한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여 1)= ‘전혀 그렇지 않다’, 4)= ‘보통’, 7)= ‘매우 그렇다’으로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측정하였다.

4) 예기정서(anticipated emotions)

MGB모형에서는 두 가지 예기정서(긍정적, 부정적 예기정서)가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열망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제시되었다(Perugini & Bagozzi,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희량(2011) 송학준·이충기(2010), Lee, Song, Bendle, Kim, & Han(2012), Perugini & Bagozzi(2001, 2004), Richetin, Perugini, Adjali, & Hurling(2008), Song, Lee, Kang, & Boo(2012) 등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긍정적(즐거움, 기쁨, 만족, 행복), 부정적(안타까움, 실망, 슬픔, 후회) 예기정서의 측정문항을 설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하여 1)= '전혀 그렇지 않다', 4)= '보통', 7)= '매우 그렇다'로 예기정서를 측정하였다.

5) 열망(deire)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열망은 행동의도와 기존 계획행동이론의 변수와 MGB모형에서 추가된 다른 개념들을 매개함으로써 목표행동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완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열망의 예측변수로서 고안되었으며, 태도와 주관적 규범들 그리고 행동통제감과 동등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Lee et al., 2012). 열망에 대한 측정은 1)나는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을 원한다. 2)나는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을 열망한다. 3)나는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을 희망한다. 4)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하려는 나의 희망은 열정적이다. 등을 박희량(2011) 송학준·이충기(2010), Lee, Song, Bendle, Kim, & Han(2012), Perugini & Bagozzi(2001, 2004), Richetin, Perugini, Adjali, & Hurling(2008), Song, Lee, Kang, & Boo(2012)의 선행연구에서 도출하였고,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 '보통', 7)= '매우 그렇다'로 나열하여 열망을 측정하였다.

6) 사전지식(prior knowledge)

Moorman et al.(2004)은 사전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정보처리 동안에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 보다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할 것이라 정의하였다. 지오투어리즘 사전지식에 대한 각 항목은 송학준·이충기(2010), 윤설민(2011), Khosrowjerdi & Iranshahi(2011), Phillips, Asperia, & Wolfeb(2013), 민병권(2004)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은 1)나는 다른 사람에게 제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2)나는 제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3)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제주 방문에 무리가 없다. 4)나는 제주 방문에 매우 친숙하다. 이며 리커트 7점 척도를 적용하여 1)= '전혀 그렇지 않다', 4)= '보통', 7)= '매우 그렇다'로 사전지식을 측정하였다.

7)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

행동의도에 대한 측정은 “다음은 제주 지오파크 방문에 대한 귀하의 행동의도를 묻는 항목입니다.”라는 질문으로 1)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할 의도가 있다. 3)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를 기꺼이 재방문 할 것이다. 4)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 재방문을 위해 금전과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 등을 박희량(2011) 송학준·이충기(2010), Lee, Song, Bendle, Kim, & Han(2012), Perugini & Bagozzi(2001, 2004), Richetin, Perugini, Adjali, & Hurling(2008), Song, Lee, Kang, & Boo(2012)의 선행연구에서 도출하였으며,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하여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 '보통', 7)= '매우 그렇다'로 나열하여 행동의도를 측정하였다.

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의 구성을 살펴보면 MGB이론에 근거하여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척도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총 4문항,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측정하는 문항은 4문항,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4문항, 긍정적 예기정서가 4문항, 부정적 예기정서 4문항, 열망이 4문항, 행동의도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사전지식에 대한 4문항을 추가하여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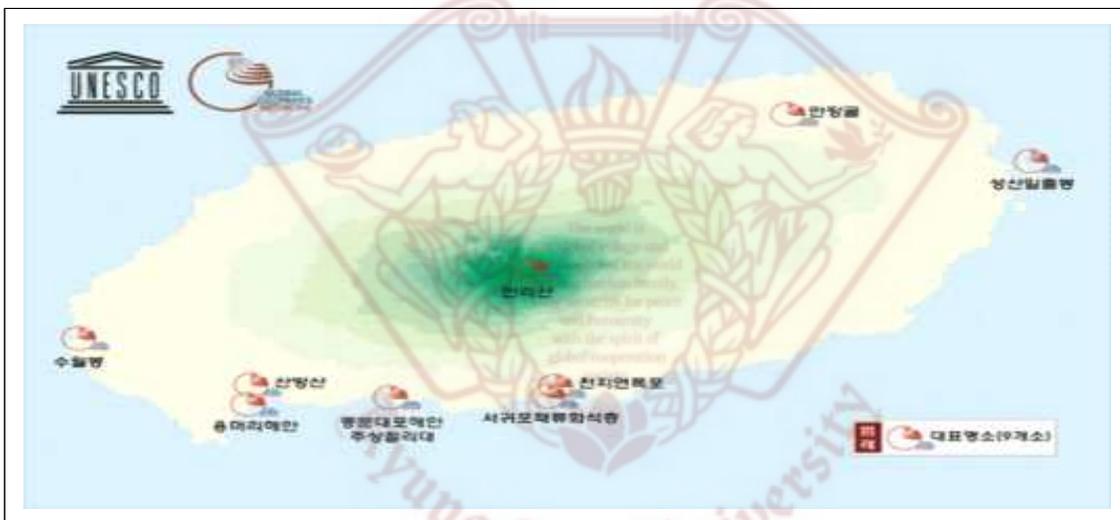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항목은 거주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월평균 소득, 직업 등이며 명목척도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대상이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을 방문하는 지오파크 관광객이므로 특별히 거주지를 묻는 항목을 첫 질문으로 하였다. 한편, 지오파크 관광객의 방문유형에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묻는 항목들은 방문횟수, 체류기간, 동반유형, 동반인원, 교통수단, 제주여행에 관한 정보 등으로 질문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지는 총 45개의 변수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문항의 자세한 설문지 구성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설문지 구성

구분	측정내용	선행연구	척도
태도	1)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긍정적인 행동이다. 2)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가치 있는 행동이다. 3)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유익한 행동이다. 4)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현명한 행동이다.	박희량(2011) 송학준·이충기(2010), Lee, Song, Bendle, Kim, & Han(2012), Perugini & Bagozzi(2001, 2004), Richetin, Perugini, Adjali, & Hurling(2008), Song, Lee, Kang, & Boo(2012), 송학준·이충기(2010)등	Likert 7점 척도
주관적 규범	1)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찬성해 줄 것이다. 2)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3)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이해해 줄 것이다. 4)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 줄 것이다.		Likert 7점 척도
지각된 통제감	1)내가 원하면 제주 지오파크를 언제든지 방문 할 수 있다. 2)나는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3)나는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 할 수 있는 경력이 있다. 4)나는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Likert 7점 척도
긍정적 예기정서	1)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즐거울 것이다. 2)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3)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4)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Likert 7점 척도
부정적 예기정서	1)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 2)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한다면 실망 할 것이다. 3)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한다면 슬플 것이다. 4)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한다면 후회 할 것이다.		Likert 7점 척도
열망	1)나는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을 원한다. 2)나는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을 열망한다. 3)나는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을 희망한다. 4)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하려는 나의 희망은 열정적이다.		Likert 7점 척도
행동의도	1)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할 의도가 있다. 3)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를 기꺼이 재방문 할 것이다. 4)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 재방문을 위해 금전과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		Likert 7점 척도
사전지식	1)나는 다른 사람에게 제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2)나는 제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3)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제주 방문에 무리가 없다. 4)나는 제주 방문에 매우 친숙하다.		Likert 7점 척도
인구통계적 특성	거주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월평균소득, 직업, 방문횟수, 체류기간, 동반유형, 동반인원, 교통수단, 제주여행에 관한 정보	명목/비율	

3. 표본의 설정과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제주도 세계지질공원(Jeju Island Global Geopark)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고, 모집단은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방문객 중 만 19세 이상의 관광객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표본의 추출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고른 분포 및 수집을 위하여 제주도 세계지질 9곳의 대표명소 한라산, 만장굴, 성산일출봉, 서귀포 패류화석층, 천지연폭포, 대포동 주상절리대, 산방산, 용머리해안, 수월봉 등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출처: 제주 세계자연유산관리공단(2013).

[그림 3-2] 제주도 대표지질명소

조사를 위해 먼저 제주지질공원 관리공단의 협조와 허가를 받아 장소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설문장소를 선정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한라산 지질명소를 탐방하기 위한 탐방코스는 어리목탐방로, 영실탐방로, 성판악탐방로, 관음사탐방로, 돈내코 탐방로가 있으며 설문조사를 위한 등반 코스로 이 중 가장 짧은 영실코스를 선정하여 어리목코스와 교차하는 지점인 윗세오름 대피소

를 한라산 지질명소의 설문장소로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지역의 조사대상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정했다. 특히 설문조사의 세부적인 정확성을 위하여 설문대상자들에게 지오파크와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본 연구의 의미를 이해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원은 관광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사전에 설문에 대한 취지, 조사방법, 설문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킨 후 설문지 순서에 따라 개별 면접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시점은 탐방객들의 탐방시간을 고려하여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작성은 자기기입 방식과 개별면접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할 것이며 9곳의 지질명소에서 각각 4명의 조사원들이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일인당 11부 한 지역에서 44부를 조사하고 총 396부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충기(2011)에 의하면 표본의 크기는 최소 표본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기준으로 모집단의 크기가 500,000 ~ 일 경우, 최소 306부 이상의 표본크기가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pm 5\%$ 라 하였다.

<표 3-2> 모집단 크기별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표본크기

Sample Size for Reliability				
모집단 크기	$\pm 1\%$ point	$\pm 2\%$ point	$\pm 3\%$ point	$\pm 5\%$ point
10,000	3,288	1,091	516	302
20,000	3,935	1,154	530	304
50,000	4,461	1,195	538	305
100,000	4,669	1,210	541	306
500,000 to ~	4,850	1,222	544	306

출처: Zikmund, W. G.(1997). 이충기(2011)에서 재인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2013)는 2013년 10월 3일 기준으로 제주관광객 입도인원을 8,339,869 만 명으로 집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는 이에 대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거한 설문지 중 완성하지 못한 14부를 제외하고 382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382부의 설문지는 측정변수의 정규성 및 이상치(outlier)를 확인하고 불성실한 설문지 17부를 제외하였으며, 총 365부를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증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5월 18일에 조사하였다.

제 4 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된 설문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먼저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지오파크 방문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각 문항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신뢰성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를 통한 신뢰도 검증을 통해 각 측정문항의 신뢰성을 파악하였다. 구성개념의 차원을 확보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한 측정모형의 타당성 및 신뢰성은 모수추정값,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추출된 분산평균(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상관계수제공(SMC: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설정하여 확인하였다.

전반적인 모형적합도 검증은 연구단위와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조 모형이 제공하는 적합도 지표인 카이제곱 통계량, GFI, AGFI, RMR, NFI, CFI 등을 통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는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가설 검증을 위해 구성개념들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한 구성개념 간의 인과 관계 및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제 4 장 실증 분석

제 1 절 표본의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지오파크 관광객의 성별은 남성(53.9%), 여성 (47.1%)로 남성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 20-29세 (28.2%), 30-39세 (30.7%), 40-49세 (20.0%), 50-59세 (15.6%), 60세 이상 (5.5%)의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별 분포에 대한 분석결과 30-39세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결혼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기혼자가 (56.4%), 미혼자가 (42.7%), 기타 (0.8%)으로 기혼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중학교 이하가 .8%, 고등학교(16.2%), 전문대(18.9%), 대학교 이상이 62.7%로 대학교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제주 지오파크를 찾는 지오파크 관광객들의 교육수준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월평균 소득수준에 대한 조사는 100만 원 미만이 15.1%, 100-199만 원이 17.8%, 200-299만 원은 23.8%, 300-399만 원 19.7%, 400만 원 이상 23.6%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빈도로 확인된 소득수준에서 200-299만 원이 23.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직업분석결과 회사는 회사원이 29.6%, 사업(자영업)이 17.3%, 공무원 6.3%, 학생 16.2%, 주부 7.1%, 기술직 2.7%, 전문직(방송인/예술인/교수) 11.2%, 은퇴 1.9%, 기타 7.7%로 회사원이 29.6%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측정변수	빈도 (명)	비율 (%)	변수	측정변수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193	53.9	직업	회사원	108	29.6	
	여성	172	47.1		사업가 (자영업)	63	17.3	
나이	20-29세	103	28.2		공무원	23	6.3	
	30-39세	112	30.7		학생	59	16.2	
	40-49세	73	20.0		주부	26	7.1	
	50-59	57	15.6		기술직	10	2.7	
	60세 이상	20	5.5		전문직 (방송/예술/교수)	41	11.2	
	결혼 여부	미혼	156		42.7	은퇴	7	1.9
기혼		206	56.4		기타	28	7.7	
기타		3	0.8		거주지	서울	135	37.0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8	2.2			부산	28	7.7
	고등학교	59	16.2			대구	19	5.2
	전문대	69	18.9	인천		14	3.8	
	대학교 이상	229	62.7	광주		12	3.3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55	15.1		대전	16	4.4
100-199만원		65	17.8	울산		6	1.6	
200-299만원		87	23.8	경기		69	18.9	
300-399만원		72	19.7	강원		5	1.4	
400만원 이상		86	23.6	충북		12	3.3	
				충남	9	2.5		
			전북	6	1.6			
			전남	15	4.1			
			경북	6	1.6			
			경남	13	3.6			

응답자의 거주지별 분포로는 서울(37.0%), 부산(7.7%), 대구(5.2%), 인천(3.8%), 광주(3.3%), 대전(4.4%), 울산(1.6%), 경기(18.9%), 강원(1.4%), 충북(3.3%), 충남(2.5%), 전북(1.6%), 전남(4.1%), 경북(1.6%), 경남(3.6%)의 분포로, 본 조사기간에 조사된 거주지별 분포는 서울이 37.0%로 다른 지역 보다 월등하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지오파크 관광객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4-2>와 같이 조사되었다.

<표 4-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측정변수	빈도 (명)	비율 (%)	변수	측정변수	빈도 (명)	비율 (%)
방문 횟수	처음	84	23.0	동반 인원	혼자	14	3.8
		281	77.0		2명	101	27.7
	재방문	27	7.4		3명	47	12.9
		15	4.1		4명	54	14.8
16		4.4	5명		27	7.4	
체류 기간	당일	6	1.6		6명	15	4.1
	1박2일	59	16.2		7명	16	4.4
	2박3일	200	54.8		8명	8	2.2
	3박4일 이상	100	27.4		9명	5	1.4
동반 유형	가족/친지	171	46.8		10명	8	2.2
	친구/연인	104	28.5	9명 이상	98	19.6	
	단체	74	20.3	TV/라디오	58	15.9	
	기타	16	4.4	정보	신문/잡지	7	1.9
교통 수단	비행기	334	91.5		홍보책자	16	4.4
	여객선	31	8.5		친구/친지	78	21.4
					인터넷	155	42.5
				여행사	28	7.7	
				현수막	2	0.5	
				기타	21	5.8	

<표 4-2>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방문객의 방문횟수는 처음이 84명(23.0%), 재방문이 281명(73.0%)로서 재방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방문 방문객들 중에서 3번 이상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57.3%로 재방문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류기간에 따른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 당일이 6명(1.6%), 1박2일 59명(16.2%), 2박3일이 200명(54.8%), 3박4일 이상 100명(27.4%)으로 응답자중 2박3일 방문객들이 54.8%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동반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가족/친지 171명(46.8%), 친구/연인 104명(28.5%), 단체 74명(20.3%), 기타 16명(4.4%)로서 가족/친지가 46.8%로 가장 많이 오는 동반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친구/연인 순으로 제주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인원은 다중응답을 실시하였으며 형태별 분석결과를 보면, 혼자(3.8%), 2명(27.7%), 3명(12.9%), 4명(14.8%), 5명(7.4%), 6명(4.1%), 7명(4.4%), 8명(2.2%), 9명(1.4%), 10명(2.2%), 10명 이상(19.6%)으로 동반인원은 2명(27.7%)가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여행정보에 대한 정보원에 대한 조사에서는 TV/라디오 58명(15.9%), 신문/잡지 7명(1.9%), 홍보책자 16명(4.4%), 친구/친지 78명(21.4%), 인터넷 155명(42.5%), 여행사 28명(7.7%), 현수막 2명(0.5%), 기타 21명(5.8%)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지오파크 관광객의 방문형태 중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에서는 인터넷 42.5%를 통한 정보취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정보 취득 분석을 토대로 인구 통계학적 특징에도 조사된 것과 같이 제주도는 재방문 관광지로 자연경관과 함께 문화유산을 보고 즐기려는 지오파크 관광객에게 각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43.6%를 통한 정보취득이 높게 나타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오투어리즘에 있어서 SNS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스마트마케팅 활용방안이 새롭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기술통계 분석

1. 측정문항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표 4-3> 기술통계 분석

측정문항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긍정적인 행동이다.	5.81	0.764	-0.552	0.236
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가치 있는 행동이다.	5.83	0.744	-0.601	0.439
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유익한 행동이다.	5.85	0.735	-0.465	0.243
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현명한 행동이다.	5.69	0.858	-0.591	0.015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찬성해 줄 것이다.	5.82	0.833	-0.664	0.377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5.72	0.871	-0.640	0.261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이해해 줄 것이다.	5.72	0.867	-0.622	0.040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 줄 것이다.	5.84	0.923	-0.953	1.342
내가 원하면 제주 지오파크를 언제든지 방문 할 수 있다.	5.29	1.338	-0.922	0.644
나는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5.19	1.262	-0.805	0.513
나는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5.29	1.217	-0.722	0.295
나는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4.86	1.371	-0.441	-0.540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즐거울 것이다.	5.79	0.868	-0.496	-0.070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5.84	0.867	-0.598	0.087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5.79	0.910	-0.923	1.552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5.86	0.900	-0.740	0.347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	5.32	1.160	-0.484	-0.147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한다면 실망 할 것이다.	5.10	1.211	-0.462	-0.156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한다면 슬플 것이다.	4.89	1.317	-0.420	-0.170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한다면 후회 할 것이다.	5.06	1.282	-0.588	0.362
다른 사람에게 제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4.52	1.386	-0.292	-0.371
나는 제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4.56	1.396	-0.310	-0.399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제주 방문에 무리가 없다.	4.79	1.378	-0.487	-0.252
나는 제주 방문에 매우 친숙하다.	4.83	1.477	-0.466	-0.497
나는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을 원한다.	5.63	0.846	-0.395	-0.407
나는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을 열망한다.	5.47	0.903	-0.271	-0.604
나는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을 희망한다.	5.60	0.841	-0.397	-0.151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하려는 나의 희망은 열정적이다.	5.28	0.978	-0.030	-0.898
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5.42	0.999	-0.291	-0.628
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할 의도가 있다.	5.55	0.950	-0.485	-0.240
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를 기꺼이 재방문 할 것이다.	5.59	0.964	-0.412	-0.441
지오파크 재방문을 위해 금전과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	5.52	1.029	-0.916	2.091

주) Liket 5점 척도의 평균값(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측정변수에 대한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규분포성은 왜도와 첨도의 값을 통해 파악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4-3>과 같이 조사되었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기준점인 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비교적 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절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성 검증

1.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측정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수들이 내적일관성을 확보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reliability)이란 측정한 다변량 변수 사이의 일관된 결과를 의미하며 동일한 개념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경우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으로 내적일관성은 측정의 동질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정확성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김계수, 2011).

본 연구에서는 측정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신뢰성 검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태도에 대한 측정항목 4개의 전체 신뢰도는 0.903으로 검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7 이상인 경우,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Nunally, 1978). 따라서 태도에 대한 신뢰성은 내적일관성이 검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관적 규범에 대한 신뢰성은 0.909, 긍정적 예기정서 0.927, 부정적 예기정서 0.909으로 매우 높은 신뢰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각된 행동통제감에 대한 4개의 측정항목에서 항목 제거 시 요인별로 전체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확인하였다. 지각된 행동통제감에 대한 분석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0.860으로 확인되었다. 열망 0.899, 행동의도 0.907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사전지식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0.907으로 각 요인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unnally(1978)가 제안한 통계 기준인 0.7을 상회하는 것으로 구성개념별 측정항목의 신뢰성이 만족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

2. 측정모형의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변수의 개수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자료 변동을 설명하는 다변량 분석기법으로 기본적인 구조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이나 주어진 자료가 몇 개의 요인으로 구성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공분산행렬을 통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다(김계수, 2011).

요인의 추출은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이용하였으며, 요인구조를 중심으로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사전지식과 계획행동이론에 관련된 측정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전체표준적합도(KMO) 값이 0.908, 모집단 변수의 단위행렬을 의미하는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측정값이 $\chi^2 = 8929.681(p < 0.000)$ 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어 변수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주성분 분석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증결과 <표 4-4>와 같이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인 요인에 대해 요인적재량 0.4 이상의 요인으로 중복적재 되는 문항을 제거한 후 요인을 추출하였다.

<표 4-4>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요 인	측정변수	요인 적재 량	고유 치	분산 설명력	신뢰 계수
태도	1. 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긍정적인 행동이다.	0.862	3.229	10.415	0.903
	2. 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가치 있는 행동이다.	0.854			
	3. 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유익한 행동이다.	0.818			
	4. 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현명한 행동이다.	0.719			
주관적 규범	1.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찬성해 줄 것이다.	0.810	3.269	10.545	0.909
	2.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0.848			
	3.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이해해 줄 것이다.	0.809			
	4.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 줄 것이다.	0.806			
긍정적 예기정서	1.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즐거울 것이다.	0.791	3.203	10.334	0.927
	2.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0.810			
	3.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0.800			
	4.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0.762			
부정적 예기정서	1.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	0.739	3.211	10.357	0.909
	2.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한다면 실망 할 것이다.	0.853			
	3.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한다면 슬플 것이다.	0.859			
	4.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한다면 후회 할 것이다.	0.786			
지각된 행동통제감	1. 제주 지오파크를 언제든지 방문 할 수 있다.	0.785	2.939	9.480	0.860
	2.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0.877			
	3.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0.769			
	4. 지오파크를 방문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0.752			
열망	1. 나는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을 원한다.	0.719	2.317	7.474	0.899
	2. 나는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을 열망한다.	0.804			
	3. 나는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을 희망한다.	0.785			
	삭제				
행동의도	1. 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0.734	3.153	10.170	0.907
	2. 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할 의도가 있다.	0.789			
	3. 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를 기꺼이 재방문 할 것이다.	0.777			
	4. 지오파크 재방문을 위해 금전과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	0.775			
사전지식	1.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제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0.860	3.236	10.440	0.907
	2. 나는 제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0.901			
	3.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제주 방문에 무리가 없다.	0.852			
	4. 나는 제주 방문에 매우 친숙하다.	0.810			
총 분산설명력: 79.216%, KMO= 0.908, Bartlett 구형성 검정 $\chi^2= 8929.681(p< 0.000)$					

요인분석 결과 총 8개의 요인이 추출하였다. 또한 추출된 요인들의 특성과 선행연구의 내용을 고려하여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기정서’, ‘부정적 예기정서’, ‘지각된 행동통제감’, ‘열망’, ‘행동의도’, ‘사전지식’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적재량은 .716~.901 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각 요인의 분산설명력은 각각 태도(10.415%), 주관적 규범(10.545%), 긍정적 예기정서(10.334%), 부정적 예기정서(10.357%), 지각된 행동통제감(9.480%), 열망(7.474%), 행동의도(10.170%), 사전지식(10.440%)으로 이에 대한 적합성은 총 분산설명력 79.216%로 매우 높게 나타나 변수가 가진 분산설명력이 적합함을 검정하였다.

3. 확인적 요인분석(CFA)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검증된 측정변수들의 신뢰성, 타당성을 추가 검증하고 그 보다 적합한 변수를 추출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측정항목들의 t 값이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당성은 연구에 사용한 측정변수에 대하여 그 개념이나 속성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김계수, 2011). 구체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FA)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하고 요인분석으로 설정된 요인구조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도지수가 낮은 변수의 다중상관계수 항목 중, 분석과정에서 단일차원을 저해시키는 측정변수를 제거하는 목적이 있다(유근준·이승곤, 2013b).

모수의 추정에는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는데 최대우도법은 P 개의 모든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요인의 적재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일치성과 충분성의 특성이 있다(김계수, 2011). 측정항목들 중에서 요인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항목들을 다중상관자승(SMC) 값을 근거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태도 4문항, 주관적 규범 4문항, 긍정적 예기정서 4문항, 부정적 예기정서 4문항, 지각된 행동통제 3문항, 열망 3문항, 행동

의도 4문항, 사전지식 4문항을 추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측정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절대적합 지수인 χ^2 (p값)과 증분부합지수로 구분하며 절대부합지수(CMIN/DF)는 3이하가 적당하다(김계수, 2011). 적합지수 GFI(0.9), AGFI(0.9), NFI(0.9), NNFI(TLI, 0.9), CFI(0.9)이상이고, RMR은 0에 가까우면 양호하며 RMSEA은 0.8이하 이면 적합하다(김계수, 2011; 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Hong, Malik, & Lee: 2003).

<표 4-5> 측정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χ^2/df	CFI	NFI	IFI	NNFI	RMSEA
측정모형	822.973	377	0.000	2.183	0.948	0.908	0.948	0.940	0.057
기준치*				≤ 3	≥ 0.9	≥ 0.9	≥ 0.9	≥ 0.9	≤ 0.08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NNFI=Non-Normed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측정척도에 대한 구조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822.973$, $df = 377$, $\chi^2/df = 2.183$, $p < 0.000$, CFI= 0.948, NFI= 0.908, IFI= 0.948, TLI= 0.940, RMSEA= 0.057로 통계적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은 적합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분석결과 모든 기준치를 상회함으로써 구성개념의 수렴타당성과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준적재치가 0.5이상으로 나타나 개념타당성도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김계수, 2011). 각 측정항목의 표준화요인적재량은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모든 측정항목들이 각 요인들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표 4-6> 전체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타당성 신뢰성 분석

구분	요인변수 (Variables)	표준 적재치	S.E.	개념 신뢰도	AVE
태도	1. 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긍정적인 행동이다.	0.872	-	0.941	0.799
	2. 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가치 있는 행동이다.	0.900	0.042		
	3. 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유익한 행동이다.	0.830	0.046		
	4. 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현명한 행동이다.	0.765	0.057		
주관적 규범	2.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0.903	-	0.930	0.769
	1. _____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찬성해 줄 것이다.	0.842	0.040		
	3. _____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이해해 줄 것이다.	0.863	0.041		
	4. _____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 줄 것이다.	0.780	0.048		
긍정적 예기정서	2.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0.907	-	0.948	0.819
	1.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즐거울 것이다.	0.888	0.043		
	3.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0.862	0.038		
	4.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0.834	0.043		
부정적 예기정서	3.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한다면 슬플 것이다.	0.861	-	0.870	0.627
	2.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한다면 실망 할 것이다.	0.894	0.043		
	4.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한다면 후회 할 것이다.	0.836	0.046		
	1.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	0.801	0.045		
지각된 행동통제	2. 나는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0.867	-	0.789	0.556
	1. 내가 원하면 제주 지오파크를 언제든지 방문 할 수 있다.	0.778	0.058		
	3. 나는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0.809	0.053		
	삭제				
열망	2. 나는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을 열망한다.	0.859	-	0.921	0.795
	3. 나는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을 희망한다.	0.901	0.044		
	1. 나는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을 원한다.	0.823	0.047		
행동의도	4. 지오파크 재방문을 위해 금전과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	0.810	-	0.910	0.718
	3. 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를 기꺼이 재방문 할 것이다.	0.883	0.051		
	2. 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할 의도가 있다.	0.862	0.052		
	1. 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0.822	0.055		
사전지식	2. 나는 제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0.922	-	0.819	0.533
	1.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제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0.892	0.036		
	3.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제주 방문에 무리가 없다.	0.792	0.043		
	4. 나는 제주 방문에 매우 친숙하다.	0.759	0.048		
$\chi^2 = 868.672, df = 404, \chi^2/df = 2.150, p < 0.000$					

한편, Hair et al.(2006)은 잠재변수의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구성개념에 대한 합성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 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각각 0.7과 0.5이상으로 신뢰성 및 집중타당성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4. 상관분석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측정하는 분석 기법으로 두 변수의 일차관계의 방향과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값을 상관계수라 한다(김계수, 2011).

<표 4-7> 상관관계 분석결과

Constructs	F1	F2	F3	F4	F5	F6	F7	F8
태도	1.000							
주관적규범	0.563*** (0.316)	1.000						
지각된 행동통제	0.339*** (0.114)	0.347*** (0.120)	1.000					
긍정적 예기정서	0.519*** (0.269)	0.552*** (0.304)	0.451*** (0.203)	1.000				
부정적 예기정서	0.338*** (0.114)	0.398*** (0.158)	0.293*** (0.085)	0.536*** (0.287)	1.000			
사전지식	0.089 (0.007)	0.126* (0.015)	0.344*** (0.118)	0.183** (0.033)	0.349*** (0.121)	1.000		
열망	0.415*** (0.172)	0.406*** (0.164)	0.373*** (0.139)	0.536*** (0.287)	0.525*** (0.275)	0.296*** (0.087)	1.000	
행동의도	0.417*** (0.173)	0.389*** (0.151)	0.365*** (0.133)	0.573*** (0.328)	0.578*** (0.334)	0.35*** (0.122)	0.736*** (0.541)*	1.000
CR	0.941	0.930	0.789	0.948	0.870	0.819	0.921	0.910
AVE	0.799	0.769	0.556	0.819	0.627	0.533	0.795	0.718

주) 1. *p< 0.05; **p< 0.01; ***p< 0.001. 2. ():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수의 제공 값을 의미함.
 3. CR= 개념신뢰도, AVE= 평균분산추출값. 4. (*): 제공 값 중 가장 높은 값.

이충기(2014)는 측정모델의 잠재변수에 대한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균분산추출값,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신뢰구간, χ^2 차이분석의 3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이를 적용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열망(0.795)과 행동의도(0.718)의 평균분산추출값이 열망과 행동의도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0.541)보다 높게 나타나 엄격한 방법인 평균분산추출값을 통한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 또한 태도는 사전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긍정적 예기정서, 부정적 예기정서, 열망, 행동의도 모든 구성개념의 상관관계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긍정적 예기정서, 부정적 예기정서, 열망, 행동의도 등은 각 구성개념 간에 95% 표준오차 추정구간의 상관계수가 구성개념 간 동일하다는 1에 대한 포함 유무에 대한 귀무가설($\Phi=1.0$)이 기각되어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이에 따른 구성개념 간 방향성은 모두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제 4 절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 검증 결과

1. 연구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는 모델의 전반적 적합도를 측정하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와 제안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간명도와 관련된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로 제시하였다(배병렬, 2009). 이에 따라 적합도의 기본이 될 수 있는 χ^2 통계량과 자유도, p-value를 확인하였으며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절대부합도지수로 Q값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의 적합도는 두 개의 공분산행렬에 의해 결정되며 공분산 행렬 간의 차이가 작을수록 χ^2 통계량은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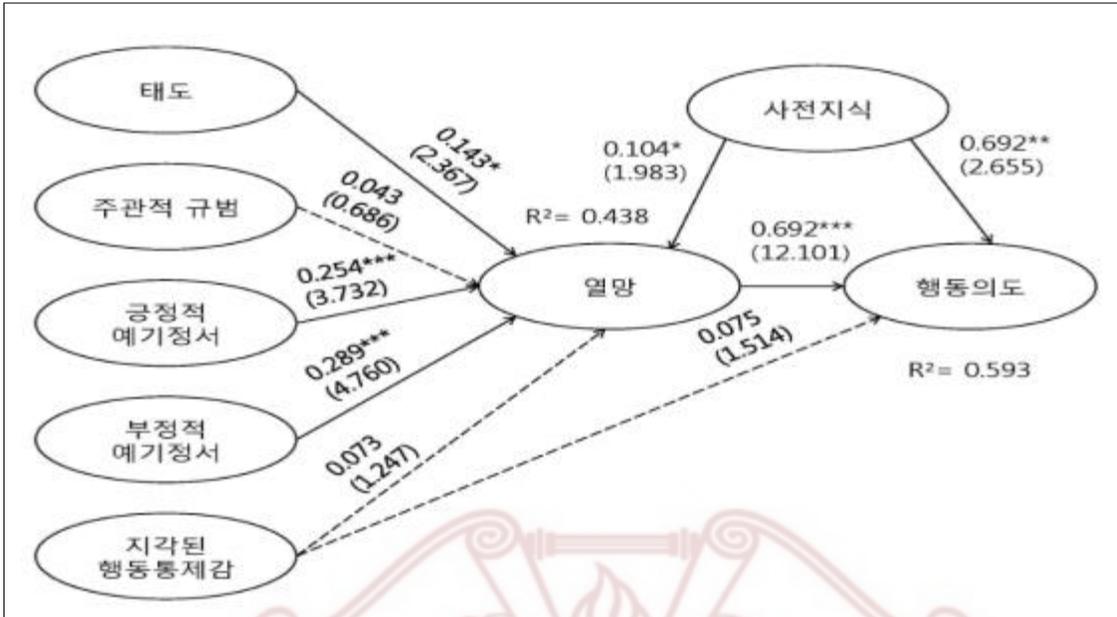
고 적합도는 높게 나타난다(Hair et al., 2010).

<표 4-8>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에 대한 검증 결과

유형	적합도 지수	최적모형 기준치	연구모형
절대적합지수	χ^2	$p \geq 0.05$	857.230(df=381, $p < 0.000$)
	RMSEA	≤ 0.08	0.059
증분적합지수	IFI	≥ 0.90	0.945
	NFI	≥ 0.90	0.904
	CFI	≥ 0.90	0.944
	NNFI	≥ 0.90	0.936
간명적합지수	CMIN/DF	≤ 3	2.250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기존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의 설명변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긍정적 예기정서, 부정적 예기정서, 열망, 행동의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확장된 변수인 사전지식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열망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하여 모형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구조적 관계에 따른 적합도 지수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 전체의 적합도 지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chi^2 = 857.230$, $df = 381$, $\chi^2/df = 2.250$, $p < 0.000$, IFI = 0.945, CFI = 0.944, NFI = 0.904, TLI = 0.936, RMSEA = 0.059로 기준치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지수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최적 모델의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표 4-8>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외생변수 간의 공분산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 주) 1. 외생변수간의 공분산 관계는 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생략함.
 2. 괄호안의 숫자는 t-값을 의미함.
 3. *p< 0.05; **p< 0.01; ***p< 0.001.

[그림 4-1] 모델분석 결과

2. 가설검증

1) 태도와 열망

실증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결과 지오파크 관광객의 방문행동에 대한 태도는 열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표준화 경로계수(β)가 0.143, C.R.값이 2.367로 $p < 0.05$ 의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지오파크 방문행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오파크 방문이 가치 있는 행동이며 유의한 행동으로 현명한 태도라는 가설 H1은 채택되었다.

2) 주관적 규범과 열망

지오파크 관광객의 방문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열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는 주관적 규범이 열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결과, 표준화 경로계수(β)= 0.043, C.R.값= 0.686로 나타났으며 가설 H2는 기각되었다. 이는 지오파크를 찾는 행동에 대하여 주변사람들의 의견과 반응이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열망

지오파크 관광객의 방문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은 가설검증결과, 표준화 경로계수(β)= 0.073, C.R.값은 1.247으로 분석되어 가설 H3은 기각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지오파크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여유와 경제력과 시간이 있어도 물리적인 거리와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제주지오파크를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4)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행동의도

지오파크 관광객의 방문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4는 표준화 경로계수(β)= 0.075, C.R.값 1.514이며 $p < 0.13$ 의 수준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행동의도에 관한 가설 H4는 기각되었다.

5) 긍정적 예기정서와 열망

지오파크 관광객의 방문행동에 대한 긍정적 예기정서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5는 채택되었다. 가설 H5에 대한 표준화 계수(β)는 0.254, C.R.값 3.732, $p < 0.001$ 로 확인되었다.

6) 부정적 예기정서와 열망

지오파크 관광객의 방문행동에 대한 부정적 예기정서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6의 검증결과 표준화 경로계수(β)는 0.289, C.R.값은 4.760이며 $p < 0.001$ 로 부정적 예기정서와 열망 간의 유의한 정(+)의 관계를 확인하여 가설 H6은 채택되었다.

7) 열망과 행동의도

지오파크 관광객의 방문행동에 대한 열망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결과 표준화 경로계수(β)가 0.692, C.R.값이 12.101로 $p < 0.001$ 의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H7은 채택되었다.

8) 사전지식과 열망

지오파크에 대한 사전지식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8의 검증결과 표준화 경로계수(β)가 0.104, C.R.값이 1.983로 $p < 0.05$ 의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H8은 채택되었다. 또한 $R^2 = 0.438$ 로 나타났다.

9) 사전지식과 행동의도

지오파크에 대한 사전지식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표준화 경로계수(β)= 0.121, C.R.값 2.655이며 $p < 0.01$ 의 수준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사전지식과 행동의도에 관한 가설 H9는 채택되었다. 행동의도의 $R^2 = 0.593$ 로 나타났다.

<표 4-9> 가설검정 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	비표준화	S.E.	C.R.	P	검증 결과
H1	AT	→	DE	0.143	0.166	0.07	2.367	0.018*	채택
H2	SN	→	DE	0.043	0.042	0.061	0.686	0.493	기각
H3	PBC	→	DE	0.073	0.052	0.041	1.247	0.212	기각
H4	PBC	→	BI	0.075	0.057	0.038	1.514	0.13	기각
H5	PAE	→	DE	0.254	0.25	0.067	3.732	0.000***	채택
H6	NAE	→	DE	0.289	0.196	0.041	4.760	0.000***	채택
H7	DE	→	BI	0.692	0.746	0.062	12.101	0.000***	채택
H8	PK		DE	0.104	0.062	0.031	1.983	0.047*	채택
H9	PK		BI	0.121	0.078	0.029	2.655	0.008**	채택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AT(태도), SN(주관적 규범), PBC(지각된 행동통제감), PAE(긍정적 예기정서), NAE(부정적 예기정서), DE(열망), BI(행동의도), PK(사전지식).

3. 확장된 변수에 대한 모델 예측력 비교

본 연구는 MGB이론을 적용한 지오파크 관광객들의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고, 아울러 MGB 모형과 사전지식을 추가한 확장된 목표지향적 모형(E-MGB)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매개변수 열망과 종속변수인 행동의도에 대한 R²을 비교한 결과, MGB는 열망(R²=0.43), 행동의도(R²=0.582)로 확인되었고, E-MGB에서는 열망(R²=0.438), 행동의도(R²=0.59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E-MGB의 설명력은 MGB에 비해서는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을 예측하는데 사전지식이 적합한 변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0> 적합도 비교분석결과

모형	χ^2	DF	p	χ^2/df	CFI	NFI	IFI	NNFI	RMSEA
MGB	654.472	282	0.000	2.321	0.945	0.915	0.950	0.942	0.060
E-MGB	857.230	381	0.000	2.250	0.944	0.904	0.945	0.936	0.059
기준치*				≤ 3	≥ 0.9	≥ 0.9	≥ 0.9	≥ 0.9	≤ 0.08
MGB R ²	열망= 0.43		행동의도= 0.582						
E-MGB R ²	열망= 0.438		행동의도= 0.593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대중관광의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이 부각되면서 지오투어리즘은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오투어리즘은 관광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보완과 관광객의 여행패턴 변화, 그리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관광형태로서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다양한 경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제주도세계지질공원이 인증된 이후 한국은 자연공원법을 개정하고 국가지질공원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2012년 제주도국가지질공원과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고, 2013년 부산, 2014년 경북 청송과 강원평화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2014년 현재 총 5개의 국가지질공원이 인증되어 있다. 이밖에 많은 지자체에서 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지역의 지질자원과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관광학적 측면의 연구의 필요성과 지오투어리즘의 이론적 체계 확립을 위한 실증연구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관광학 관점에서의 논의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관리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오투어리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지질과 지리학적 측면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오투어리즘 연구의 새로운 관점, 즉 지오파크 관광객의 지오투어리즘 방문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앞서 제의한 바와 같이 지오투어리즘의 가치를 밝히고, 지오파크 관광객들의 행동

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지오파크 방문행동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간행동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그 우수성이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목표지향적 행동이론(MGB)을 적용하고 사전지식을 추가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이론(E-MGB)에 대한 모형비교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오파크를 찾는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행동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지오파크 관광객들이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지오파크를 찾게 되고 그들이 지오투어리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것은 그들의 행동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논의이다. 더불어 사전지식 요인을 추가한 모형비교를 통해 모형의 설명력을 확인하고 모형의 구조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주세계지질공원을 찾는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 긍정적 예기정서, 부정적 예기정서, 열망, 행동의도 요인 이외에 지오파크 관광객들의 지오투어리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정도에 대한 변인으로 사전지식을 추가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오파크 관광객의 태도에 따른 열망의 관계에 대해 검증한 결과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도의 네 가지 하위요인 중 '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가치 있는 행동이다'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긍정적인 행동이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규범이 열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주관적 규범은 제주지오파크를 방문함에 있어 주변사람들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변수로써 지오파크 관광객과 가까운 사람들은 열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분석결과 주관적 규범은 지오파크 방문에 대한 열망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셋째,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열망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결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자들이 제주세계지질공원을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지 않으며, 여유와 경제력 및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지식을 추가하지 않은 모델에서는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행동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오파크 관광객이 여유와 시간은 부족하지만 제주세계지질공원을 재방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높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넷째, 긍정적 예기정서는 열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 긍정적 예기정서가 열망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정적 예기정서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도 긍정적 예기정서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제주지오파크를 방문하고자 하는 열망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열망이 MGB이론의 선행변인들과 행동의도와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추가적으로 제시된 연구 가설에 대해 살펴보면 사전지식은 열망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사전지식과 행동의도와의 관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오파크 관광객의 지질학적 관심과 지오파크에 대한 중요성 인지는 지오파크를 방문하고 찾을 때 더욱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곱째,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모든 모형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최종모형으로써 그 적합성이 검증 되었다. 더불어 MGB와 사전지식을 확장한 E-MGB의 모형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수인 행동의도에 대한 R^2 값이 E-MGB에서 좀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제주세계지질공원을 방문하고자하는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을 규명하였으며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적용하고 추가적 변인으로 사전지식을 확장한 MGB 모델을 비교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최근 MGB이론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분야에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광 분야의 연구에서 이를 적용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MGB이론을 지오투어리즘 연구에 처음으로 적용하여 지오파크 관광객의 방문의사를 증명하기 위한 본 논문은 의미 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MGB를 적용하여 제시한 새로운 연구 모형은 향후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연구와 지오파크 방문객들의 행동분석 연구에 기초 자료로써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MGB모델은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열망에 대해 유의하지 않음에도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지오투어리즘 관광객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모델로서 유용하다 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지오파크 관광객의 제주도 지오파크 방문행동의도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열망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긍정적 예기정서는 열망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세계지질공원의 방문에 있어 열망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지오파크 방문을 못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안타깝거나 후회스러운 행동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예기정서는 열망에 대해 유의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태도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MGB에서 태도라는 개념이 개인의

특정행위에 대한 선호 정도를 규정하는 인지적 변수로 인식된다는 점 때문에 열망이나 행동의도에 대한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오파크 관광객 태도에 맞는 폭넓은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오투어리즘에 부합하는 측정변수를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지오파크를 찾는 관광객의 행동의도에 대한 예측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주관적 규범은 제주지오파크를 방문함에 있어 주변사람들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변수로써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오파크 관광객들의 주변 사람들이 지오파크 방문에 대해 이해하고 지지하며 찬성, 혹은 반대를 하여도 지오파크 방문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라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김주현·윤만희·김정섭(2012), 박희량(2011), Song, Lee, Norman, & Han(2012)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지각된 행동통제감과 열망 사이의 유의하지 않은 영향력의 관계는 개인의 지식과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과 같은 내부요인과 더불어 시간과 기회 등의 외부요인을 포함할 수 있다는 상충된 인식으로 인하여 지오파크 관광객들에게는 열망과 행동의도가 동시에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카지노 방문객의 행동의도를 연구한 Song, Lee, Norman, & Han(2012), 보령머드축제 방문객에 관한 Song et al.(2012), 브랜드 동호회 참여에 대한 Baggozi & Dholakia(2006)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다르거나 폭넓은 PBC의 정의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열망과 행동의도에 대한 사전지식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지식이 열망과 행동의도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지식 요인을 모델에 추가할 경우 열망에 대해 설명력이 .8%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행동의도 설명력은 1.1%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전지식의 추가는 지각된 행동통제와 열

망과의 영향관계를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전지식이 열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 응답자들에게 각 변인의 측정개념을 이해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지오파크를 지역개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많은 지자체에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오파크 관광객이 긍정적 예기정서, 부정적 예기정서를 통해 가장 강한 열망을 갖게 됨으로 지오파크를 방문하고자하는 의사결정에 있어 감성적이면서도 공감 할 수 있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오파크 관광객들은 지오파크의 아름다운 경관과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질학적 유산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하며 만족한다고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오파크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서 지역의 독특한 이미지가 있는 사진과 영상 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제안한다.

둘째, 지오투어리즘의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지속적인 활용방안으로 지오투어리즘 태도변인에 관한 폭넓은 적용이 중요할 것이다. 즉, 인지적 태도와 감정의 효과를 고려하여 지오투어리즘이 수반하는 환경적 측면과 자연 문화적 측면, 아름다운 경관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지오투어리즘 상품개발로 관광객들의 선택을 다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지오파크 관광객들은 주변사람들의 의견이나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내포하고 있는 여유 시간과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오파크 방문열망에 따른 방문의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지오파크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오파크와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홍보와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제시된 연구 가설에서도 사전지식이 열망과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오투어리즘이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관광분야이며 아직까지 일반 대중들에게는 생소한 관광유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오파크를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에서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와 스마트 앱 등을 활용한 지오투어리즘 홍보 방안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지오투어리즘의 활성화를 꾀하고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 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문제 및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첫째, 공간적 범위로 본 연구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시점에 지오파크로 인증 받은 지역이 제주도 한곳 뿐 이었다는 것을 감안하여도 한 지역의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울릉도·독도, 부산, 청도, DMZ 국가지질공원을 대상으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을 확인하고자 제주세계지질공원을 방문한 관광객을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하였다. 이는 지오파크를 방문하는 모든 지오파크 관광객들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주민과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인식과 어려운 용어 등은 다른 관광산업과 달리 설문조사를 하는 동안 측정항목의 이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열망과 행동의도에 관한 질문과 지각된 행동통제감에 대한 문항을 중복적인 질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오투어리즘에서 측정할 수 있는 설문항목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오투어리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적용하여 연구한다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지질공원의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지역 확대는 많은 지오파크 관광객을 유도 할 것이며 이는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구전 마케팅을 기대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주변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이끌게 되고,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분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지질자원을 기반한 지오투어리즘 맥락에서 볼 때 지오파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자연유산의 보존, 환경 친화적 지역개발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경제적 이익에 관한 순환구조는 지오투어리즘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방향일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관광개발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지질학적 자원에 관한 면밀한 접근과 지오파크 관광객의 리즈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관광객들의 지오파크에 대한 방문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인식을 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자들은 지오투어리즘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지오투어리즘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질과 지리학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관광학적 관점과 관광마케팅 차원의 연구와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 연구]

- 강원평화지역지질공원 (2012). <http://dmzgeopark.com/>
- 권동희 (2011). 제주도 지오파크의 발전적 콘텐츠 개발: 산방산·용머리 해안을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18(3), 1-10.
- _____ (2013).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 본 베트남 하롱베이의 지형경관. 『한국사건지리학회지』, 23(1), 1-12.
- 김계수 (201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나래: 서울.
- 김대관·김동렬 (2001).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광의 역사적 흐름』. 서울: 일신사.
- 김범훈 (2013) 한국에서의 지오투어리즘(Geotourism) 연구동향과 과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김용중·김동진 (2012). 확장된 합리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소비자의 친환경 레스토랑 선택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8(2), 45-62.
- 김주현·윤만희·김정섭 (2012). 목표지향행위로서의 고객불평에 관한 연구. 『마케팅논집』, 20(4), 1-22.
- 김창환 (2009). 한국에서의 지오파크 활동과 지리학적 의미. 『한국지형학회지』, 16(1), 57-66.
- 김창환 (2011). 지오파크(Geopark)명칭에 대한 논의. 『한국지형학회지』, 18(1), 73-83.
- 김홍범·유지영·이재형 (2012). 해외여행의 위험지각과 주관적 규범이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행동이론의 적용. 『호텔관광연구』, 44(0), 67-81.
- 김흥렬·이태희·윤설민 (2010).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테마파크 방문에 대한 행동의도 연구: 즐거움의 역할 탐색. 『관광연구저널』, 24(2), 5-23.
- 노정희·김승현 (2013). 대학생의 그룹여행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목표지향 행동모델과 사회정체성 이론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7(6), 319-339.
- 민병권 (2004). 인지과학적 접근에 따른 소비자 제품평가에 관한 연구 : 사전지식, 제품유형의 조절적 역할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경·김창환 (2012). 강원도 양구, 화천 일원의 분지 지형과 지오투어리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형학회지』, 19(4), 97-108.
- 박미영 (2011). 홍도 지형 자원을 활용한 지오투어리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1), 109-121.
- 박미진 (2007).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청소년의 진로정보탐색행동 예측모형.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준형·정대교 (2012). 지질유산의 정량적 가치평가 모델 개발 연구. 『지질학회지』, 48(2), 163-178.
- 박진경 (2011). 여가행동을 예측하는 모형 탐색: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관광연구』, 26(4), 237-255.
- 박희량 (2011). 목표지향 행동모델을 적용한 인터넷 구매행동의 이해: 인지욕구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2(2), 67-95.
- 박희서·노시평·김은희 (2007). 환경친화적 행동의 영향요인 분석: 합리적행동이론(TRA)의 관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2), 97-119.
-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청람: 서울.
- 부산국가지질공원 (2013). <http://geopark.busan.go.kr/HomeMain.do>
- 손영관·우경식·권창우·김련·전용문 (2009). 지질유산과 지질모니터링: 제주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질학회지』, 45(6), 751-770.
- 송학준·이충기 (2010).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복합리조트 카지노 방문객의 행동의도 예측. 『관광·레저연구』, 22(5), 341-360.
- 송학준·이충기·부숙진 (2011).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자연기반 축제의 방문행동 이해: 환경친화적 관광 소비행동의 추가적 역할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5(4), 21-38.
- 신현규 (2013). 자기결정성이론과 계획행동이론의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연구: 생태관광의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건상 (2011). 한국 서남해안에 분포하는 화강암의 풍화작용과 지질경관. 『한국도서학회』, 23(1), 101-116.
- 오민재·이후석 (2002). 생태관광 도입을 위한 탐색 연구: 광주·전남 방문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16(1), 1-16.
- 오정준 (2003).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연구: 생태 관광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울릉도·독도국가지질공원 (2013). <http://geopark.ulleung.go.kr/>

- 유근준·엘리자·이승곤 (2013c).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CIS국가 의료관광객의 의사결정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 23(4), 117-129.
- 유근준·이승곤 (2013a).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탐색연구: 사회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이용한 제주 지오파크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 23(2), 49-64.
- 유근준·이승곤 (2013b).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한방축제방문객의 의사결정과정 연구. 『관광·레저연구』, 25(6), 5-27.
- 윤설민 (2010). 계획행동이론의 확장을 통한 모험적 여가활동 추구 관광객의 행동지속성에 관한 연구 : 플로우(Flow), 애착도, 과거행동의 역할 탐색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설민 (2011).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TPB)을 적용한 모험적 여가활동에 대한 행동 분석: 사전지식과 애착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0(6), 189-208.
- 윤설민·오선영·윤선정 (2010). 계획행동이론(TPB)을 활용한 내국인의 해외여행 의도에 관한 영향관계 연구: 사전지식과 지각된 위험의 추가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19(6), 289-307.
- 이규현·리차드 바고찌 (2009). 왜 우리는 타인들과 함께 행동하는가: 목표지향행동과 집단정체감. 『소비문화연구』, 12(4), 71-90.
- 이성일 (2011).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무사증(No Visa)기대가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진 (2013). 지질관광동기와 서비스품질이 관광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 세계지질공원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유재·Bagozzi (2000). 시도이론에 관한 이론적 연구: 목표지향적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마케팅저널』, 2(2), 39-62.
- 이준엽·안태기 (2008). 축제방문자의 먹거리 구매행동 예측에 대한 계획행동이론의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2), 116-124.
- 이충기 (2011). 『관광조사 통계분석』. 서울: 대왕사.
- 이충기·송학준 (2010).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갬블링열정과 행동의도간 구조관계 분석. 『관광학연구』, 34(3), 125-145.
- 임윤정 (2008).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외래관광객의 한류문화콘텐츠 행동예측모형: 한국 드라마와 음반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자연공연법 (2011). 법률 제10978호.

- 전병길 · 정운조 · 정하운 (2007). 인터넷 참가의사결정과정과정에 관한 연구: 태도 및 참가의사의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5), 75-95.
- 전영권 (2005).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을 위한 대구 앞산 활용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517-529.
- 전영권 (2010). 한국의 지오투어리즘. 『한국지형학회지』, 17(4), 53-69.
- 전용문 · 안웅산 · 류춘길 · 강순석 · 송시태 (2012). 제주도 꽃자왈 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고찰: 예비 연구결과. 『지질학회지』, 48(5), 425-434.
- 정강환 (2000). 지질관광대상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시장분석과 관광 프로그램 및 이벤트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4(1), 281-296.
- 정필모 · 서종철 · 전영권 · 신영규 (2010).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을 위한 주왕산국립공원의 자연관찰로 분석. 『한국지형학회지』, 17(2), 77-86.
- 정희진 · 이계희 · 서원석 (2009). 카지노 gambling 의도에 관한 구조적 분석: 마카오 gambling을 대상으로. 『관광연구』, 24(4), 169-193.
- 제주도세계지질공원 (2012). <http://www.jeju.go.kr/>
- 제주 세계자연유산관리공단 (2013).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http://wnhcenter.jeju.go.kr/index.php/contents/unesco/geopark>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013). 관광통계. http://www.hijeju.or.kr/APP/bbs/board.php?bo_table=total_day&wr_id=285
- 청송국가지질공원 (2014). <http://csgeopark.homepagekorea.kr/kor/>
- 최영정 (2010).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관광객의 책임관광 행동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은정 (2010). 한국 거주 서구인의 개고기 식용에 관한 식행동 분석: 확장된 계획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태영 (2011). 먹거리 地域祝祭에서의 飲食購買行動에 대한 계획된 行動理論적용: 사전지식의 역할. 『觀光産業研究』, 5(2), 316-336.
- 한수진 (2009). 계획된 행동이론(TPB)을 적용한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 보건증진 프로그램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철호 · 최상훈 (2007) 관광지질학 활성화를 위한 지질 및 지형경관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국지구과학회』, 28(1), 75-86.
- 환경부 (2013). 국가지질공원

http://www.me.go.kr/web/286/me/common/board/detail.do?boardId=notice_02&decorator=me&idx=183937(10, 09, 2013).

- 현용호 (2012).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제주 올레길 재방문의도 예측요인 검증: 올레길 방문 만족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6(7), 55-74.
- 황상구 · 안웅산 · 이문원 · 윤성호 (2005). 제주도 북동부 거문오름 용암튜브계의 형성과 내부구조. 지질학회지, 41(3), 385-400.

[국외 연구]

-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J. Kuhl & J. Beckman(Eds.), *Action-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pp. 11-39). Heidelberg: Springer.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Organis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 & M. Fishbein.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Cliffs, NJ: Prentice Hall.
- Ajzen, I. & T. Madden. (1986).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Attitudes, intentions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5), 453-474.
- Alba, J. W. & Hutchinson, J. W. (1987). Dimensions of consumer expertis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3(4), 411-454.
- Alexandrowicz, Z. (2006). Geopark-Nature protection category aiding the promotion of geotourism (Polish perspectives). *Geoturystyka*, 2(5), 5-6.
- Armitage, C. J. & Conner, M. (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4), 471-499.
- Asia Pacific National Geoparks. (2013). Available at http://asiapacificgeoparks.org/?page_id=115(accessed 10 September 2013).
- Azman, N., Halim, S. A., Liu, O. P., Saidin, S. & Komoo, I. (2010). Public education in heritage conservation for Geopark community.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7, 504-511.
- Bagozzi. (1992). The self-regulation of attitudes, intentions and behavior.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5(2), 178-204.

- Bagozzi, R. P., Baumgartner, H. & Pieters, R. (1998). Goal-directed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12(1), 1-26.
- Bagozzi, R. P. & Dholakia, U. M. (2006). Antecedents and purchase consequences of customer participation in small group brand comm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23(1), 45-61.
- Bagozzi, R. P. & Kimmel, S. K. (1995). A comparison of leading theories for the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ur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4), 437-461.
- Bagozzi, R. P. & P. R. Warshaw. (1992). An examination of the etiology of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 for goal-directed behavior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7(4), 601-634.
- Bagozzi, R. P. & Warshaw, P. R. (1990). Trying to consum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2), 127-140.
- Bastion, R. De. (1994) The private sector-threat or opportunity?, Geological and landscape conservation. *Geological Society*, London, pp. 391-395.
- Bearden, W. O. & Etzel, M. J. (1991). Reference group influence on product and brand purchase decisions. In H. H. Kassarian, & T. S. Robertson, *Perspectives in Consumer Behaviour* (pp. 435-451).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4th ed).
- Bettman, J. R. & C. W. Park. (1980). Effects of prior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phase of the choice process on consumer decision processes: A protocol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3), 234-248.
- Bettman, J. R. & M. Sujan. (1987). Effects of framing on evaluation of comparable and noncomparable alternatives by expert and novice consumer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2), 141-154.
- Boley, B. B. (2006). Geotourism in the crown of the continent: developing.
- Boo, E. (1990). *Ecotourism: The Potentials and Pitfalls*, Vols. 1 and 2., Washington D.C.: WWF.
- Bosak, K., Boley, B. & Zaret, K. (2010). Deconstructing the Crown of the Continent: Power, Politics and the Process of Creating National Geographic's

Geotourism Mapguides. *Tourism Geographies*, 12(3), 460-80.

- Boyle, D. & Nickerson, N. (2010). Statewide vacationers to Montana: Are they geotourists? Research report. Missoula, MT: *Institute for Tourism & Recreation Research* (ITRR). Retrieved from http://www.itrr.umt.edu/research10/statewidegeotourismrr2010_2.pdf
- Boyle, D. & Nickerson, N. (2013). Profiling geotourists: an a priori segmentation identifying and defining sustainable travelers using the Geotourist Tendency Scale (GT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1(2), 314-330.
- Boley, B. & Nickerson, N. (2009). *Geotourism in The Crown of the Continent*. Missoula: The University of Montana.
- Boley, B., Nickerson, N. P. & Bosak, K. (2011). Measuring geotourism: Developing and testing the geotourist tendency scale (G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50(5), 567-578.
- Brand, M. (1984). *Intending and acting: Toward a naturalized theory*. Massachusetts: MIT Press.
- Brucks, M. (1986). A typology of consumer knowledge conten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3(1), 58-63.
- Buckley, R. (2003). Environmental inputs and outputs in ecotourism: Geotourism with a positive triple bottom line? *Journal of Ecotourism*, 2(1), 76-82.
- Burlando, M., Firpo, M., Queirolo, C., Rovere, A. & Vacchi, M. (2011). From geoheritage to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and perspectives in the Beigua Geopark (Italy). *Geoheritage*, 3(2), 63-72.
- Burlando M, Firpo M, Queirolo C. & Vacchi M. (2009). A new strategy to promote sustainable tourism in Beigua Geopark (Italy). In: de Carvalho CN, Rodrigues J (eds) New challenges with geotourism. *Proceedings of the VIII European Geoparks Conference*, Idanha-a-Nova, Portugal, 14-16 September, 54.
- Carrus, G., Passafaro, P. & Bonnes, M. (2008). Emotions, habits and rational choices in ecological behaviours: The case of recycling and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8(1), 51-62.
- Cheng, S., Lam, T. & Hsu, C. (2006). Negative word-of-mouth communication

- intention: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Research*, 30(1), 95-116.
- Conner, M. & Armitage, C. J. (1998).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venue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Applied and Social Psychology*, 28(15), 1429-1464.
- Davidson, D. (1980).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Clarendon Press.
- Davis, W. A. (1984). The two senses of desire. *Philosophical Studies*, 45(2), 181-195.
- Dodor, J. B. K. & Rana, D. S. (2009). Investigating business schools' intentions about offering e-commerce education using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cision Sciences Journal of Innovative Education*, 7(1), 195-220.
- Dong van geopark. (2014). Dong van geopark. Available at <http://dongvangeopark.com/Pages/galleryShow.aspx?id=2> (accessed 10 September 2013).
- Dowling, R. K. (2009). *Geotourism's contribution to local and regional development*. In Geotourism and local development, Neto de Carvalho C, Rodrigues JC(eds). Câmara Municipal: Idanha-a-Nova, Portugal, 15-37.
- Dowling R. K. (2010). *Emerging volcano and geothermal related tourism in Iceland*. In: Erfurt-Cooper P, Cooper M (eds) Volcano and geothermal tourism: sustainable geo-resources for leisure and recreation. Earthscan, London, UK, 209-220.
- Dowling, R. & Newsome, D. (2006). *Geotourism*. Oxford: Elsevier Butterworth-Heinemann.
- Dowling, R. K. (2011). Geotourism's global growth. *Geoheritage*, 3(1), 1-14.
- European Geoparks Network. (2013a). Available at http://www.europeangeoparks.org/?page_id=342 (accessed 10 September 2013).
- European Geoparks Network. (2013b). Available at http://www.europeangeoparks.org/?page_id=498 (accessed 10 September 2013).
- European Geoparks Network. (2014). Available

http://www.europeangeoparks.org/?page_id=168 (accessed 4 April 2014).

- Erikstad, L. (2013). Geoheritage and geodiversity management - the questions for tomorrow. *Proceedings of the Geologists' Association*, 124, 713-719.
- Farsani TN., Coelho, C. & Costa, C. (2009). *Geotourism as an opportunity for local communities' participation in geoparks*. In Proceedings of 8th European Geoparks Conference, Idanha-a-Nova, 89, Geopark Naturtejo, Portugal, September 2009.
- Farsani TN., Coelho, C. & Costa, C. (2011). Geotourism and Art Geoparks as Novel Strategies for Socio-economic.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3, 68-81.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Fennell, D. A. & P. F. Eagles. (1990). Ecotourism in Costa Rica :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4, 1-16.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ishbein, M. & Stasson, M. (1990). The role of desires, self-predictions, and perceived control in the prediction of training session attendan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0, 173-198.
- Fredricks, A. J. & Dossett, D. L. (1983). Attitude behavior relations: A comparison of the Fishbein-Ajzen and Bentler-Speckart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3), 501-512.
- Frey, Schäfer, Büchel. & Patzak. (2006). Geoparks a regional European and global policy in Dowling. R.K. and Newsome, D.(eds), *Geotourism*, Elsevier Ltd., Oxford, 104-110.
- Geraldes, J. & Ferreira, R. (2009). *Tourism: 'tectonics' and geo-bakery*. In Proceedings of 8th European geoparks conference, Idanha-a-Nova, 100, Geopark Naturtejo, Portugal, September.
- Gleicher, F., Boninger, D. S., Strathman, A., Armor, D., Hetts, J. & Ahn, M. (1995).

With an eye toward the future: The impact of counterfactual thinking on affect, attitudes, and behavior. In N. J. Roese & J. M. Olson (Eds.), *What might have been: The social psychology of counterfactual thinking* (pp. 283-304). Mahwah, NJ: Lawrence Erlbaum.

- Global Network of National Geoparks. (2013). Global geopark Available at. <http://www.globalgeopark.org/aboutGGN/list/index.htm> (accessed 10 September 2013).
- Global Network of National Geoparks. (2014). What is a geopark? <http://www.globalgeopark.org/homepageaux/tupai/6513.htm> (accessed 4 April 2014).
- Goodman, N. (1983). *Fact, Fiction, and Forecast(4th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ant C. (2010). Towards a typology of visitors to geosites.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Global Geotourism Conference, *Making Unique Landforms Understandable*. Mulu, Sarawak, Malaysia, 17-20 April.
- Gray, M. (2004). *Geodiversity: Valuing and Conserving Abiotic Nature*. John Wiley, Chichester.
- Gray M. (2008). Geodiversity: developing the paradigm. *Proceedings of the Geologists' Association*, 119, 287-298.
- Gray, M. (2010). GSSPs: the case for a third, internationally recognised, geoconservation network. *Geoheritage*, 3, 83-88.
- Grnhaug, K. (1986).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s of product knowledge contrasted.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3, 67-71.
- Hak-Jun, Song., Choong-Ki, Lee., William, C. Norman. & Heesup, Han. (2012). Therole of responsible gambling strategy in forming behavioral intention: An application of a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Journal of Travel Research*, 51(4), 512-523.
- Hair J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 Hair, J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cer, NJ: Pearson Education.

- Han, H., Lee, S. G. & Lee, C. K. (2011). Extend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Visa Exemptions and the Traveller Decision-making Process. *Tourism Geographies*, 13(1), 45-4.
- Han, H., L. T. Hsu. & C. Sheu. (2010).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green hotel choice: Testing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riendly activities. *Tourism management*, 31(3), 325-334.
- Holloway JC, Taylor N. (2006). *The business of tourism 7th ed*. Prentice Hall, Harlow, England.
- Hong, S., Malik, M. & Lee, M.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Hose, TA. (1995). Selling the story of Britain's stone. *Environ Interpret*, 10(2), 16-17.
- Hose TA. (1996). Geotourism, or can tourists become casual rock hounds? In Bennett MR, Doyle P, Larwood JG, Prosser, CD(eds) *Geology on your Doorstep. Geological Society*, 207-228.
- Hose, TA. (2006). Geotourism and interpretation. in Dowling, R.K. and Newsome, D.(eds), *Geotourism*, Elsevier Ltd., Oxford, 248.
- Hughes, K. & Ballantyne, R. (2010). *Interpretation rocks! Designing sings for geotourism sites*. In Newsome, D. and Dowling, R.K.(eds) *Geotourism: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Ltd., Oxford, 184-199.
- Inskeep, E. (1991), *Tourism Planning: An integrat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New York : VNR.
- Johnson, K. E. & C. B. Mervis. (1997). Effects of varying levels of expertise on the basic level of categoriz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General*, 126(3), 248-276.
- Johnson, J. E. V. & Bruce, A. C. (1997). An empirical study of the impact of complexity on participation in horserace bett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3(2), 159-172.

- Joly, M., Verner, A. & Cot, A. (2009). Urban geotourism: The case of Montréal. *E-Review of Tourism Research (eRTR)*, 7(6), 124-132.
- Joyce B. (2006). Geomorphological sites and the new geotourism in Australia. <http://web.earthsci.unimelb.edu.au/Joyce/heritage/geotourosmReviewwebj.htm>
- Joyce, E.B. (2010). *Australia's geological heritage: a national inventory for future geoparks and geotourism*. In Newsome, D. and Dowling, R.K.(eds) *Geotourism: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Goodfellow Publishers Ltd., Oxford, 27-42.
- Kanawinka Geopark. (2012). Grampians from mount. Available at <http://www.kanawinkageopark.org.au/?s=GRAMPIANS+FROM+MOUNT> (accessed 10 September, 2013).
- Khosrowjerdi, M. & Iranshahi, M. (2011). Prior knowledge and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PhD and MA student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3(4), 331-335.
- Lam, T. & C. H. C. Hsu. (2004). Theory of planned behavior: Potential travelers from China.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28(4), 463-482.
- Lam, T. & C. H. C. Hsu. (2006). Predicting behavioral intention of choosing a travel destination. *Tourism Management*, 27(4), 589-599.
- Larwood, J. G., Badman, T. b. & McKeever, P. J. (2013). The progress and future of geoconservation at a global level, *Proceedings of the Geologists' Association*, 124(2013), 720-730.
- Lazarus, R. S. (1991). *Emotion & adaptation*. Oxford New York.
- Lee, C. K., Song, H. J., Bendle, L. J., Kim, M. J. & Han, H. S. (2012). The Impact of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for 2009 H1N1 Influenza on Travel Intentions: A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Tourism Management*, 33(1), 89-99.
- Leone, L., Perugine, M. & Ercolani, A. P. (1999). A comparison of three models of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s in the studying behavior domai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2-3), 161-189.
- Lew, A. (2002). Geotourism and what geographers do. *Tourism Geographies*, 4(4), 347-

- Maher P. (2010). *The geology of Ireland providing a catalyst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In: Dowling RK, Newsome D (eds)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Goodfellow Publishers, Oxford, 153-166.
- Mayo, E. & Jarvis, L. (1981). *The Psychology of leisure travel, effective marketing and selling of travel services*. Boston: CBI Publishing.
- McCann, H. J. (1986). *Rationality and the range of intention*. In P. A. French (Ed.), *Midwest studies of philosophy* (Vol. 10, pp. 191-211).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cCool, Stephen F., R. Neil Moisey. & Norma P. Nickerson. (2001). What should tourism sustain? The disconnect with industry perceptions and useful indicators. *Journal of Travel Research*, 40(2), 124-31.
- Mishra, S. K. & Kumar, M. (2011). How mutual fund investors' objective and subjective knowledge impacts their information search and processing behaviour.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Marketing*, 16(1), 27-41.
- Moeller, T., Dolnicar, S. & Leisch, F. (2011). The sustainability-profitability trade-off in tourism: Can it be overcom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9(2), 155-169.
- Moorman, C., Diehl, K., Brinberg, D. & Kidwell, B. (2004). Subjective knowledge, search locations, and consumer choi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1(3), 673-680.
- Moreira, JC. & Bigarella, JJ. (2010). *Geotourism and geoparks in Brazil*. In: Dowling RK, Newsome D (eds)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Goodfellow Publishers, Oxford, 137-152.
- National Geographic Center for Sustainable Destinations. (2011). National Geographic. (no date). Centre for Sustainable Destinations. About Geotourism Retrieved 15 June 2013, from http://travel.nationalgeographic.com/travel/sustainable/about_geotourism.html.
- National Park Service. (2008). National park service. Retrieved December 17, 2013, from www.concessions.nps.gov/document/AdvisoryBoard/Oct08/Briefon

- Newsome, D. & Dowling, R. (2010). *Setting an agenda for geo tourism*. In Geotourism: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Newsome D, Dowling R(eds). Good Fellow Publishers: Oxford: 4.
- Ng Y, Fung LW, Newsome D. (2010). *Hong Kong geopark—uncovering the geology of a metropolis*. In: Dowling RK, Newsome D (eds)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Goodfellow Publishers, Oxford, 179-191.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Eds.). New York: McGraw-Hill.
- Ouellette, J. A. & Wood, W. (1998). Habit and intention in everyday life: The multiple processes by which past behavior predicts future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24(1), 54-74.
- Park, C. W. & Lessig, V. P. (1981). Familiarity and its impact on consumer decision biases and heuristic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2), 223-231.
- Park, S. & Kim, D. (2010). A comparison of different approaches to segment information search behaviour of spring break travellers in the USA: Experience, knowledge, involvement and specialisation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2(1), 49-64.
- Patzak, M. & Eder, W. (1998). UNESCO Geopark. A new programme – a new UNESCO label. *Geologica Balkanica*, 28(3-4), 33-34.
- Pavlou, P. A. & Fygenson, M. (2006). Understanding and predicting electronic commerce adoption: an extens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IS quarterly*, 115-143.
- Perugini, M. & Bagozzi, R. P. (2001). The role of desires and anticipated emotions in goal-directed behaviors: Broadening and deepening the TPB.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1), 79-98.
- Perugini, M. & Bagozzi, R. P. (2004). The distinction between desires and inten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1), 69-84.
- Phillips, W. J., Asperin, A. & Wolfe, K. (2013). Investigating the effect of country image and subjective knowledge on attitudes and behaviors: US upper midwesterners' intentions to consume korean food and visit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32, 49-58.

- Pierro, A., Manetti, L. & Livi, S. (2003). Self-identit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health behavior and leisure activity. *Self and Identity*, 2(1), 47-60.
- Pralong, J. P. (2006). Geotourism: A new form of tourism utilising natural landscapes and based on imagination and emotion. *Tourism Review*, 61(3), 20-25.
- Prestwich, A., Perugini, M. & Hurling, R. (2008). Goal desires moderate intention-behaviour rel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7(1), 49-71.
- Richetin, J., Perugini, M., Adjali, I. & Hurling, R. (2008). Comparing leading theoretical models of behavioral predictions and post-behavior evaluations. *Psychology and Marketing*, 25(12), 1131-1150.
- Rivis, A. & Sheeran, P. (2003). Descriptive norms as an additional predictor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analysis. *Current Psychology*, 22(3), 218-233.
- Rodrigues, J. & Carvalho, D. CN. (2009). Geoproducts in the Naturtejo Geopark. In: De Carvalho CN, Rodrigues J (eds) New challenges with geotourism. New challenges with geotourism. *Proceedings of the VIII European Geoparks Conference*, Idanha-a-Nova, Portugal, 14-16 September, 82-86.
- Sapp, S. G. & Jensen, H. H. (1997). Reliability and validity of nutrition knowledge and diet-health awareness tests developed from the 1989-1991 diet and health knowledge surveys.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29(2), 63-72.
- Sohn, Y. K. & Chough, S. K. (1989). Depositional processes of the Suwolbong tuff ring, Cheju Island (Korea). *Sedimentology*, 36(5), 837-855.
- _____ (1992). The Ilchulbong tuff cone, Cheju Island, South Korea: Depositional processes and evolution of an emergent, Surtseyan - type tuff cone. *Sedimentology*, 39, 523-544.
- Sohn, Y. K. & Park, K. H. (2004). Early-stage volcanism and sedimentation of Jeju Island revealed by the Sagye borehole, SW Jeju Island, Korea. *Geosciences Journal*, 8, 73-84.
- Sohn, Y. K., Park, K. H. & Yoon, S. H. (2008). Primary versus secondary and subaerial versus submarine hydrovolcanic deposits in the subsurface of Jeju

- Island, Korea. *Sedimentology*, 55, 899-924.
- Song, H. J., Lee, C. K., Kang, S. K. & Boo, S. J. (2012). The Effec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Perceptions on Festival Visitors' Decision-Making Process Using an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Tourism Management*, 33(6), 1417-1428.
- Song, H. J., Lee, C. K., Norman, W. C. & Han, H. (2012). The Role of Responsible Gambling Strategy in Forming Behavioral Intention: An Application of a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Journal of Travel Research*, 51(4), 512-523.
- Song, H. J., You, G. J., Reisinger, Yvette., Lee, C. K. & Lee, S. K. (2014). Behavioral intention of visitors to an Oriental medicine festival: An extended model of goal directed behavior. *Tourism Management*, 42(June): 101-113.
- SPSS. (2001). *SPSS base 11.0 user's guide*. Chicago, IL: SPSS Inc. sen,
- Stokes, A. M., Cook, S. D. & Drew, D. (2003). Geotourism: The New Trend in Travel. *Travel Industry America and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 Stuve, A. M., Cook, S. D. & Drew, D. (2002). The Geotourism Study : Phase 1 Executive Summary. National Geographic Traveller. *Travel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1.
- Taylor, S. A. (2007). The addition of anticipated regret to attitudinally based, goal-directed models of information search behaviours under conditions of uncertainty and risk.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4), 739-768.
- Tunmer, G. (2004). *Understanding celebrity*. London: Sage.
- Taylor, S. A., Ishida, C. & Wallace, D. W. (2009). Intention to engage in digital piracy: A conceptual mode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Service Research*, 11(3), 246-262.
- Taylor, S. D., Bagozzi, R. P. & Gaither, C. A. (2005). Decision making and effort in the self-regulation of hypertension: Testing two competing theories.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4), 505-530.
- Thompson, S. (2007). Celebrating the Crown of the Continent. "RECM 210 Nature-based Tourism Class," University of Montana Missoula, Montana. Fall 2007.

- Triandis, H. C. (1977). *Interpersonal behavior*. Monterey, CA: Brooks/Cole.
- UNESCO. (2006). Guidelines and Criteria for National Geoparks seeking UNESCO's assistance to join the Global Geoparks Network. Paris, January 2006. Internal document, 10.
- UNESCO. (2009). Geopark list. Available at <http://www.unesco.org/science/earth/doc/geopark/list.pdf> (accessed 10 September, 2013).
- UNESCO. (2013). Geopark list. Available at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arth-sciences/global-geoparks/members/> (accessed 10 September, 2013).
- UNESCO. (2013b). Mount Sanqingshan National Park. Available at <http://whc.unesco.org/en/list/1292> (accessed 10 September, 2013).
- Unzen geopark. (2013). Unzen geopark. Available at http://www.adjustbook.com/doc/Index/show/us/725/bk/2166#/p2_3/ (accessed 10 September, 2013).
- Van der Pligt, J. & De Vries, N. K. (1998). Expectancy-value models of health behaviour: The role of salience and anticipated affect. *Psychology & Health*, 13(2), 289-305.
- Verplanken, B. & Aarts, H. (1999). Habit, attitude, and planned behaviour: Is habit an empty construct or an interesting case of goal-directed automaticity? In W. Stroebe & M. Hewstone (Ed.),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0, pp. 101-134). Chichester, UK: Wiley.
- White, J. D. L. & Houghton, B. (2000). Surtseyan and related phreatomagmatic eruptions. *Encyclopedia of volcanoes*, 495-511.
- Williams, P. & Fidgeon, P. R. (2000). Addressing participation constraint: A case study of potential skiers. *Tourism Management*, 21(4), 379-393.
- Won, J. K., Matsuda, J., Nagao, K., Kim, K. H. & Lee, M. W. (1986). Paleomagnetism and radiometric age of trachytes in Jeju Island, Korea. *J. Korea Inst. Mining Geol.* 19, 25-33(in Korean).
- Wood, S. L. & Lynch Jr, J. G. (2002). Prior knowledge and complacency in new

product learn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9(3), 416-426.

Zikmund, W. G. (1997). *Business Research Method(5th ed)*. Fort Worth, TX: Dryden Press.

Zint, M. (2002). Comparing three attitude-behavior theories for predicting science teachers' intention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9(9), 819-844.

Zouros N. (2010). Geotourism in Greece: a case of the Lesvos Petrified Geopark. In: Dowling RK, Newsome D (eds)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Goodfellow Publishers*, Oxford, 215-229.

Zouros, N. & Martini, G. (2003). Introduction to the European Geoparks Network. In: Zouros, N., Martini, G., Frey, M.-L. (Eds.), *Proceedings of the 2nd European Geoparks Network Meeting, Lesvos, Greece, 3-7 October, 2001, Natural History Museum of Lesvos Petrified Forest, Greece*, 17-21.



방문객 설문조사: 지오투어리즘 관광객들의 의사결정과정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제주 지오파크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오파크 관광객들의 의사결정과정” 연구를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내용은 맞거나 틀리는 내용이 없으며, 오로지 학술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지오투어리즘에 관한 연구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 조사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연구원: 유 근 준 (경희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 / glassyou@khu.ac.kr)

지오투어리즘은 환경·문화·미술·문화유산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포함한 그 지역의 지리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학문입니다(Stokes, Cook, & Drew 2003).

지오파크는 지리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건축학적, 역사적 혹은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UNESCO, 2006).

국내의 경우, 2010년 천혜 자연경관과 다양한 화산지형의 제주도는 섬 전체가 지질자원의 보고로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지오파크인증은 지질유산에 대한 세계적 가치를 확인함은 물론 그에 따른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해 지오투어리스트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거주지는?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I. 다음은 방문행동 등에 관한 귀하의 방문유형을 묻는 항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해당되는 부분에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항목	방문유형
1. 방문횟수	지금까지 제주도를 몇 번 정도 방문하셨습니다? 회 (처음 방문인 경우 1회)
2. 체류기간	<input type="checkbox"/> ① 당일 <input type="checkbox"/> ② 1박2일 <input type="checkbox"/> ③ 2박3일 <input type="checkbox"/> ④ 3박4일 이상
3. 동반유형	<input type="checkbox"/> ① 가족/친지 <input type="checkbox"/> ② 친구/연인 <input type="checkbox"/> ③ 단체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구체적 기입:___)
4. 동반인원	본인 포함된 동반인원수_____
5. 교통수단	<input type="checkbox"/> ① 비행기 <input type="checkbox"/> ② 여객선
6. 제주여행에 관한정보 (많은 영향을 준하나만)	<input type="checkbox"/> ① TV/라디오 <input type="checkbox"/> ② 신문/잡지 <input type="checkbox"/> ③ 홍보책자 <input type="checkbox"/> ④ 친구/친지 <input type="checkbox"/> ⑤ 인터넷 <input type="checkbox"/> ⑥ 여행사 <input type="checkbox"/> ⑦ 현수막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II. 다음은 제주 지오파크 방문에 대한 귀하의 태도, 주변사람들의 의견, 지각된 행동통제감, 긍정적 예기정서를 묻는 항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해당되는 부분에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않 다	보통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긍정적인 행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가치 있는 행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유익한 행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제주 지오파크 방문은 현명한 행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찬성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이해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제주 지오파크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내가 원하면 제주 지오파크를 언제든지 방문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즐거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Ⅲ. 다음은 제주 지오파크 방문에 대한 귀하의 부정적 예기정서, 사전지식, 열망, 행동의도를 묻는 항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해당되는 부분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내용	열망/행동의도/만족도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않 다	보통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한다면 실망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한다면 슬플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제주 지오파크를 방문하지 못한다면 후회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제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제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제주 방문에 무리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제주 방문에 매우 친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나는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을 열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을 희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가까운 미래에 제주 지오파크 방문하려는 나의 희망은 열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를 재방문 할 의도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를 기꺼이 재방문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향후 제주 지오파크 재방문을 위해 금전과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구통계적인 특징

가.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나. 귀하의 연령은(만으로)?

① 19~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다. 귀하의 교육수준은?

① 중졸 이하 ② 고등학교 ③ 전문대 ④ 대학교 이상

라.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마.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199만원 ③ 200만~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만원 이상

바. 귀하의 직업은?

① 회사원 ② 사업가(자영업) ③ 공무원 ④ 학생

⑤ 주부 ⑥ 기술직 ⑦ 전문직(방송인/예술인/연구직/의사 등)

⑧ 은퇴 ⑨ 기타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부록: 2.

유럽지오파크 네트워크 현황

순번	지오파크	국가	웹 사이트	자료
1	Reserve Geologique de Haute-Provence	프랑스	http://www.resgeol04.org/	
2	Vulkaneifel Geopark	독일	http://www.geopark-vulkaneifel.de/	
3	Lesvos Geopark	그리스	http://www.petrifiedforest.gr/	
4	Parque Cultural del Maestrazgo	스페인	http://www.maestrazgo.org/	
5	Psiloritis Natural Park	그리스	http://www.psiloritis-natural-park.gr/	
6	Geo and Naturepark TERRA.vita	독일	http://www.naturpark-terravita.de/	
7	Copper Coast Geopark	아일랜드	http://www.coppercoastgeopark.com/	
8	Marble Arch Caves Global Geopark	아일랜드	http://www.marblearchcavesgeopark.com/	
9	Madonie Geopark	이탈리아	http://www.parcodellemadonie.it/	
10	Rocca di Cerere Geopark	이탈리아	http://www.roccadicerere.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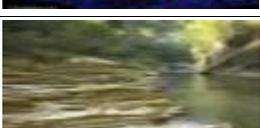
(표 계속)

순번	지오파크	국가	웹 사이트	자료
11	Nature Park Steirische Eisenwurzen	오스트리아	http://www.geoline.at	
12	Bergstrasse-Odenwald Geopark	독일	www.geo-naturpark.de	
13	North Pennines AONB European Geopark	UK	http://www.northpennines.org.uk	
14	Luberon, Parc Naturel Regional	프랑스	http://www.parcduluberon.fr/geopark	
15	North West Highlands Geopark	스코틀랜드, 영국	http://www.northwest-highlands-geopark.org.uk/	
16	Swabian Albs Geopark	독일	http://www.geopark-alb.de	
17	Geopark Harz . Braunschweiger Land. Ostfalen	독일	http://www.geopark-harz.de	
18	Hateg Country Dinosaurs Geopark	루마니아	www.hateggeoparc.ro	
19	Parco Del Beigua	이탈리아	www.parcobeigua.it	
20	Fforest Fawr Geopark	UK	http://www.fforestfawrgeopark.org.uk	
21	Bohemian Paradise	체코 공화국	http://www.geopark-ceskyraj.cz	
22	Cabo de Gata - Nijar Natural Park	스페인 안달루시아	www.juntadeandalucia.es/medioambiente/cabodegata-nijargeopark	

(표 계속)

순번	이름	국가	웹 사이트	자료
23	Naturtejo Geopark	포르투갈	www.naturtejo.com	
24	Subbeticas Geopark	스페인 안달루시아	http://www.juntadeandalucia.es/medioambiente/site/web/	
25	Sobrarbe Geopark	아라곤, 스페인	www.geoparquepireneos.com	
26	Gea Norvegica Geopark	노르웨이	http://www.geanor.no	
27	Geological, Mining Park of Sardinia	이탈리아	http://www.parcogeominerario.eu/	
28	Papuk Geopark	크로아티아	http://www.papukgeopark.com	
29	English Riviera Geopark	UK	http://www.englishrivierageopark.org.uk/	
30	Parco Naturale Adamello Brenta	이탈리아	www.pnab.it	
31	GeoMón GeoPark	웨일즈 - 영국	http://www.geomon.co.uk/	
32	Arouca Geopark	포르투갈	www.geoparquearouca.com	
33	Geopark Shetland	스코틀랜드 - 영국	www.geoparkshetland.org.uk	
34	Chelmos - Vouraikos Geopark	그리스	www.fdchelmos.gr	

(표 계속)

순번	이름	국가	웹 사이트	자료
35	Novohrad - Nograd Geopark	헝가리 - 슬로바키아	www.nngeopark.eu	
36	Magma Geopark	노르웨이	www.magmageopark.com	
37	Basque Coast Geopark	스페인	http://www.geoparkea.com	
38	Parco Nazionale del Cilento e Vallo di Diano	이탈리아	http://www.parks.it/parco.nazionale.cilento	
39	Rokuua Geopark	핀란드	http://www.rokuageopark.fi	
40	Tuscan Mining Park	이탈리아	www.parcocollinemetallifere.it	
41	Vikos - Aaos Geopark	그리스	http://kapesovo.wordpress.com/	
42	Muskau Arch Geopark	독일 / 폴란드	http://whc.unesco.org/en/list/1127/gallery/	
43	Sierra Norte de Sevilla Natural Park	스페인	www.juntadeandalucia.es/medioambiente/sierranortedesevilla-geopark	
44	Burren & Cliffs of Moher	아일랜드	www.burrenconnect.ie/geopark	
45	Katla Geopark	아이슬란드	www.katlageopark.is	
46	Massif des Bauges Geopark	프랑스	www.parcdesbauges.com	

(표 계속)

순번	이름	국가	웹 사이트	자료
47	Apuan Alps	이탈리아	http://www.apuanegeopark.it	
48	Villuercas-Ibores-Jara	스페인	www.villuercasgeopark.com	
49	Carnic Alps Geopark	오스트리아	www.geopark-karnische-alpen.at	
50	Chablais Geopark	프랑스	www.geopark-chablais.com	
51	Central Catalunya Geopark	스페인	www.villuercasgeopark.com	
52	Bakony-Balaton Geopark	헝가리	http://www.bakony-balaton-geopark.hu/	
53	Azores Geopark	포르투갈	http://www.azoresgeopark.com/?lang=EN	
54	Karavanke & Karawanken	슬로베니아 및 오스트리아	http://www.geopark.si/?lang=en	
55	Idrija Geopark	슬로베니아	http://www.geopark-idrija.si/si/	
56	Hondsrug Geopark	네덜란드	http://www.geoparkdehondsrug.eu/	
57	Sesia - Val Grande Geopark	이탈리아	http://www.parcovalgrande.it/geoparco.php	
58	Kula Geopark	터키		

출처: EGN(2014)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ABSTRACT

A Study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Geopark Visitors using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Focused on Jeju Island Global Geopark-

You, Geun Jun

Department of Tourism
The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aims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behaviour of the tourist's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opark tourists through revealing the value of the geotourism and analyze their impact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tourists. Specifically,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tourists, to learn their knowledge about geotourism and to analyse the impact of the prior knowledge on the behavior intention of tourists. Goal-directed behavior which is excellent theory on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applied as an analyse method of the study by adding prior knowledge. Specifically this study performed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added prior knowledge to compare the MGB and EMGB.

The specific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Geopark tourists who are going to visit Jeju World Geopark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of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like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 positive emotions, negative emotions, desire, behavior intention and also added factor prior knowledge about the

geotourism.

First, the result of relationship between tourist's attitude about geotourism and desire showed that attitude has significant impact on desire. Specifically, the one of the four subfactor of attitude "visiting the Jeju Geopark is worthwhile action" showed the highest impact on desire followed by "visiting Jeju Geopark is an positive actio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norm and desire. Subjective norm is the influence of the around people opinion about the Jeju Geopark, so this study expected that opinion of around people will impact on desire of tourists, but the results confirmed that subjective norm has no effect on desire.

The third result of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desire showed that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did not impact on desire. In other words the Jeju World Geopark visitors did not have enough time and money that's why can not visit anytime. But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s positive effect on behavior intention, which means tourists want to revisit the Geopark even they do not have enough time and money.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emotions, negative emotions and desire. The results shows that positive emotions have positive impact on desire and hypothesis was con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desire also showed similarly significant effect.

Fifth, desire to visit Jeju World Geopark has positive impact on behavior, as well as the strongest influence on behavior. The result prove that desire plays an important mediating role between behavioral control and other preceding variables of MGB.

Sixth, it was confirmed that prior knowledge has significant effect on desire and desire has positive impact on behavior intention. In other words, natural interests of tourists, interests on natural heritage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Geopark and Geotourism will consciously effect on tourists behavior while finding the Geopark or Geotourism.

Seventh,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model showed that fit indicates of all models and final model was validated. The results of comparison analysis with MGB and Extended MGB added prior knowledge showed that R2 value of Extended MGB appears more highly than MGB.

When it viewed in the context of the Geotourism based on geological resources public interests on Geopark, presevation of natural heritage, developing the environment-friendly region and people's active participation on it and economic interests on the cycle structure of the geotoruism is meaningful pursuit direction of Geotourism. For this type of tourism development local government should carefully approach to the geological resources and should identify the needs of the geo tourism tourists through these should try positively impact on decision making proc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takeholders will be able to know the importance of the Geotourism and will be able to control the direction of Geotourism. In addition, in order to develop the Geotourism, researches should be done not only from the geological and geographical point as well as tourism and tourism marketing point.

Key words: Geotourism, Geopark, Geo attraction, Model of goal-direction behavior(MGB), decision-making process